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 치 열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건달형 인물전설의 전승지역 특징과  
이행기적 성격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난 경

건달형 인물전설의 전승지역 특징과  
이행기적 성격

심 치 열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난 경

# 인 준 서

김난경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4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각 지역에서 전승되는 건달형 인물전설의 전승지역에 따른 개별적 성격과 이행기적 성격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I 장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건달형 인물전설의 연구가 보편적 성격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점과 통시적 관점으로써 인물유형론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하고 본 논문의 연구는 공시적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밝히며,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건달형 인물전설 중에서 연구대상으로 평양의 김선달, 경주의 정만서, 영덕·영해의 방학중, 김제의 정평구, 서귀포의 변인태 자료의 수집과 선정 이유를 다루었다.

제 II 장은 평양의 김선달, 경주의 정만서, 영덕·영해의 방학중, 김제의 정평구, 서귀포의 변인태 자료의 전승 현황 및 양상을 점검하고, 삽화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삽화별 분류는 건달형 인물이 함께 공유하며 전승시키는 삽화들을 공통 삽화,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전승시키는 삽화들은 단독 삽화라고 명명하여 분류하였다. 각각의 건달형 인물들이 전승시키는 공통삽화와 단독삽화의 분포를 통해 개성적·보편적 전승 양상들을 점검하며 진행하였다.

제 III 장은 제 II 장을 바탕으로 각각의 건달형 인물들의 개성적 성격과 특징을 전승지역의 특성과 전승 삽화들을 통해 논의하였다. 평양의 김선달은 금전적 욕망을 주로 드러내는 인물로 일찍이 상업이 번성했던 평양의 지역적 특징이 반영된 인물이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속임수의 수법이 치밀한 계획을 갖고 진행한다는 점과 속임수를 통해 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도외지의 사기꾼의 형상을 갖는다고 밝혔다. 경주와 영덕·영해의 정만서와 방학중은 공통 삽화의 교집합을 이루는 자료가 대부분으로 경북의 두 건달형 인물은 김선달과 달리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피하여 일회성에 그치는 식(食)의 욕망을 주로 충족시키는 등의 하층민의 형상을 갖는 인물이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정만서와 방학중을 둘러싼 전승 자료의 내적·외적 요소들의 다양한 담론들을 통해 두 인물이 구별되는 개성적 지점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김제의 정평구는 민중영웅의 형상을 갖는 임진왜란 활약담이 함께 전승되고 있어서 민중영웅에서 건달형 인물로의 유형적 변이가 전승지역에서 골계적 성격을 갖는 정평구에 대한 애정과 상품 경제사회로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일제강점기

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평구가 문화영웅으로 추앙받게 되면서 근대부터 오늘날까지 전승지역에서는 정평구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서귀포의 변인태는 지배계층을 향한 골계적 성격이 강한 인물로 그의 이야기는 주로 피많은 하인이 상전을 골려먹는 내용의 전국적 전승을 보이는 설화와 유형적 동질성을 갖는 등의 건달형 인물전설 중에서도 이질적이고 개성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다는 특징과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속임수를 피하는 등의 건달형 인물전설의 유형적 동질성을 갖는 지역변이유형에 속한다고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건달형 인물전설은 각각 인물별로 개별적인 개성적 성격들이 발견되면서도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이 주로 저잣거리나 길거리를 배외하고 다니는 할 일 없는 인물들이라는 점과 개인의 욕망을 긍정하고 타인의 욕망을 이용하여 속임수를 피하는 등의 유형적 보편성의 성격 역시 정리·논의하였다.

제IV장에서는 건달형 인물전설의 개별성과 보편성의 성격과 그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규명하고자 조선 후기의 동시대에 함께 형성되었던 인물유형인 판소리의 방자형, 탈춤의 말뚝이형 인물과의 비교·고찰을 하였다. 먼저 각각의 인물별로 상대인물과의 갈등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욕망 지향의 수동성과 능동성을 기준에 두고 논의하였다. 방자형 인물은 상대인물과 작품 내적·외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욕망추구에 있어서도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면모를 보이는 등의 중세적 인물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따른 인물이며, 말뚝이형 인물은 상대인물과 우위를 점하는 등의 봉건적 예속관계에서 벗어난 전복된 관계를 보이며 욕망추구에서도 주체·능동적 면모를 보여 근대적 인물형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을 작품들을 통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건달형 인물과 이광옥은 유사점이 많은 인물형으로 자유의지로 세상을 부유하는 인물로써 방자와 말뚝이와 달리 뚜렷한 세속적 결핍을 드러내며 주체적·능동적 욕망추구를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 다음은 갈등해결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지향성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기준점에 두고 논의하였다. 상대인물과의 갈등 전개 양상을 통해 방자형 인물은 중세사회에 불합리성의 ‘틈입을 확인’, 말뚝이형 인물은 중세사회에 불합리성의 ‘틈입 확장’, 건달형 인물은 중세사회에 불합리성의 ‘틈새 전복’에 집중하는 인물형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의 주인공들은 범인과 일상의 영역에 속하며 세속적·현실적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주인공들이 등장한다는 점을 밝혔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9
II. 건달형 인물전설의 자료 현황	10
1. 건달형 인물전설의 자료 및 전승 현황	10
1) 김선달	10
2) 정만서	14
3) 방학중	17
4) 정평구	22
5) 변인태	24
2. 건달형 인물 전설의 공통 삽화 및 단독 삽화	26
1) 건달형 인물별 공통 삽화	27
2) 건달형 인물별 단독 삽화	37
III. 건달형 인물전설의 개성과 전승 지역의 특징	49
1. 평양: 도외지의 사기꾼- 김선달	49
2. 경주와 영덕·영해: 잡보- 정만서와 방학중	59
3. 김제: 민중 영웅- 정평구	75
4. 서귀포: 꾀쟁이 하인- 변인태	91
IV. 건달형 인물전설의 이행기적 성격과 의미	102
1. 판소리·탈춤에 등장하는 유사 인물과의 비교	102
1) 갈등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욕망 지향의 수동성과 능동성	102
2) 세 인물형의 풍자적 성격과 이행기적 지표	118
2. 건달형 인물전설의 이행기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미	126

V. 결론 ..... 131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 표목차

[표 1] 김선달 자료 현황 .....	10
[표 2] 정만서 자료 현황 .....	14
[표 3] 방학중 자료 현황 .....	17
[표 4] 정평구 자료 현황 .....	22
[표 5] 변인태 자료 현황 .....	24
[표 6] 4인의 공통 삽화 .....	27
[표 7] 3인의 공통 삽화 .....	28
[표 8] 2인의 공통 삽화 .....	32
[표 9] 김선달 단독 삽화 .....	37
[표 10] 정만서 단독 삽화 .....	39
[표 11] 방학중 단독 삽화 .....	42
[표 12] 정평구 단독 삽화 .....	44
[표 13] 변인태 단독 삽화 .....	46

# I. 서론

## 1. 연구 목적

건달형 인물전설은 특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전승되는 이야기이다. 건달형 인물의 이름 앞에 그 출신지역을 붙여서 함께 호명된다는 것이 다른 인물전설과 차별화된 모습이다. 출신지역은 말 그대로 건달형 인물의 출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주 전승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건달형 인물전설은 유형화된 이야기임에도 전승지역에 따라 호명도는 이름이 다르고, 전승되는 이야기들 역시 보편성과 개별성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기존의 논의는 건달형 인물전설의 개별적 성격에 주목하지 않고 보편적 성격에 기대 ‘속고, 속이는’ 건달형 인물의 행위에 주목하여, 통시적 관점에 의해 민중영웅 혹은 트릭스터 인물 유형론에 매몰되어 더 이상의 진척된 논의가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본 연구는 건달형 인물전설의 전승지역에 따른 개별적·개성적 성격과 건달형 인물전설과 동시대에 형성·전승된 유사인물 유형과의 비교하여 이행기 문학의 특징을 논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건달형 인물전설 중에서 평양의 김선달, 경주의 정만서, 영덕·영해의 방학중, 김제의 정평구, 서귀포의 변인태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자료의 선정 기준은 연구 대상이 될 만한 정도의 일정한 자료 편수를 보유한 건달형 인물을 선택하였다. 또한 지역적 안배도 고려하였다.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의 세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중부권의 경우는 호남과 영남권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연구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sup>1)</sup>와 『한국구전설화』<sup>2)</sup>에 수록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정평구와 변인태의 경우는 연구 자료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현지 대학과 문화원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집까지 확장하여 안정적인 연구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전승지역에서 채록한 자료도 보충하여 활용한다.

건달형 인물전설은 유형화된 설화이다. 각 지역마다 건달형 인물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며, 인물의 성격도 저마다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전승지역마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건달형 인물마다의 개별적·개성적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건달형 인물은 속임수를 통해 결핍된 욕망을 해소하는 인물들이다. 결핍된 욕망

1)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년.

: 이하 『대계』로 표시함.

2) 임석재, 『한국구전설화』1-12권, 평민사, 1989년.

: 이하 『구전』로 표시함.

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보편적 욕망이다. 건달형 인물은 저잣거리 등을 돌아다니며 걸핍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이러한 건달형 인물이 갖는 욕망성과 속임수를 통해 드러나는 풍자적 성격은 동시대에 함께 형성된 유사인물형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 후기의 이행기 문학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이전의 종적인 연구 관점에서 벗어나 횡적인 관점으로 그 시각을 옮겨야만 건달형 인물전설의 개별성과 이행기 문학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건달형 인물전설의 연구는 왜 필요한지, 이 연구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건달형 인물전설이 형성되었던 조선 후기의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시기는 중세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충돌하며 여러 분야에서 근대적 징후가 발견되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건달형 인물전설은 범속한 주인공을 앞세워 저잣거리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군상을 이야기 속에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의 형상화는 이념화된 비범한 주인공을 앞세운 전근대적 인물전설과 차별화된다. 건달형 인물전설과 전근대적 인물전설과의 차별점이 발생하는 것은 이행기 사회의 근대적 징후와 맞물린다. 이념화된 비범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인물전설에서 일상적 삶에 관심을 둔 범속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인물전설로의 변화는 통시적 관점에서 인물전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을 포착하게 한다. 집단적 거대담론에서 개인의 미시적 담론, 이념에서 일상으로의 변화는 건달형 인물전설을 포함한 조선 후기 이행기 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양상은 근대문학의 징후를 포착하게 한다. 건달형 인물전설은 설화문학으로써 근대문학으로의 이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근대성이라는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행기 문학을 연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날의 현대사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근대사회로의 이행해 왔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근대사회의는 현대사회의 또다른 거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행기에 형성된 설화 문학에서 근대적 지표의 발견은 설화전승집단의 민중 우위에 입각한 집단 지성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된다.

## 2. 선행연구 검토

건달형 인물 전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트릭스터담으로서의 건달형 인물 전설의 특징을 논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서양의 '트릭스터' 이론을 차용하여 우리의 건달형 인물 전설의 특징과 인물 성격을 규명하였다. 대표적 연구자로 조희웅과 나수호 등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은 건달형 인물 전설의 문화·사회사적 의미를 규명한 연구이다. 건달형 인물 전설이 특정 시기에 형성·향유되었다는 점과 골계적 성격이 나타나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방향의 영웅, 민중영웅'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규명하며 문화사적 의미를 논하였다. 대표적 연구자로는 조동일과 임재해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된 논의는 건달형 인물 전설을 연구함에 있어 큰 지침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건달형 인물 전설의 연구 역시 위의 두 가지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동일<sup>3)</sup>의 연구는 문화·사회사적 측면에서 건달형 인물을 논의한 연구서이다. 그는 영덕·영해를 중심으로 현장론적 구조주의를 인물전설 연구에 적용하였다. 전승집단의 계층·계급적 성격에 따라 인물 전설의 전승 목록, 평가 등이 어떻게 다르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방학중 전설은 인정, 욕심, 관념을 거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하여도 투쟁의 진전은 없고, 투쟁의 결과 세계가 개조되지 않아 전설적 좌절을 겪는 인물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방학중이란 인물전설의 주인공을 향유층의 시각에서 그 인물의 성격을 '파괴의 영웅, (-)방향의 영웅'이라고 규정하였다. 그의 연구는 현재까지 방학중과 더불어 건달형 인물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조희웅<sup>4)</sup>은 트릭스터담의 측면에서 건달형 인물 전설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그의 연구서는 건달형 인물 전설을 트릭스터담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개괄적인 논의에 머물러 있으며, 트릭스터 이론이 서양의 이론이라는 한계로 인해 우리의 건달형 인물 전설이 갖는 개별성이나 독자성을 온전히 해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인간 트릭스터가 악의 대상, 징치의 대상이 되는 강자를 속이고 보복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건달형 인물전설에서 속임을 당하는 상대인물들은 주로 소시민에 가까운 인물군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대치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최원식<sup>5)</sup>은 건달형 인물 전설 중에서 김선달을 소설화한 공안소설 『신단공안』 36회에 실린 「김봉본전(金鳳本傳)」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 소설이 중세보편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주의에 입각한 리얼리즘 소설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하며, 김선달과 같은 인물을 통틀어 '건달'이라고 명명한다. 정확하게는 '봉이형 건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긴 했지만, 인물의 행위와 역사적 의미를 함의한 '건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

3)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출판부, 1979.

4) 조희웅, 「트릭스터담 연구」, 『어문학논총』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7.

5) 최원식, 『한국 근현대소설사론』, 창작과 비평사, 1986, 185-213쪽.

여 이와 같은 유형군의 인물을 통칭해서 부를 수 있는 학문적 명칭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문헌자료에 우위를 두어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과 설화의 전승양상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봉이 김선달을 선본으로 삼아놓고, 정만서와 방학중과 같은 인물 전설은 김선달에게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연유로 두 인물의 이야기는 문학사적 의의가 떨어진다는 성급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김헌선<sup>6)</sup>은 구비전승, 한문야담, 국문야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건달형 인물들을 함께 자료 양상을 소개하였다. 그의 연구는 선학자들에 의해 채록·수집된 전체 자료의 실상과 개인 채록자료들을 소개하며, 건달형 인물의 구전과 문헌을 아우르는 이야기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인물 전설의 출신지와 채록지를 대비하여 건달형 인물 전설의 형성과정을 유추하고, 각각의 전승 양상에 따른 특징들을 논의한 점이다. 그러나 자료 소개나 개괄적 논의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임재해<sup>7)</sup>는 조동일의 성과를 이어 건달형 인물 전설의 논의를 심화시켰다. 조동일의 논의와 큰 틀에서 일맥상통하나, 건달형 인물의 '영웅성'에 대한 논의는 조동일과 다소 차이점을 드러낸다. 그는 민중사관의 관점에서 영웅성을 해석하며, 방학중을 비롯한 건달형 인물은 영웅적 민중이며, 영웅다움이 아니라 민중다움이 영웅성이라고 지적한다. 중세적 가치에 도전하는 해체적 행위가 바로 영웅성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논의에서 작위적인 자료 해석과 그로 인한 무리한 논의 전개가 아쉬움이 남는다.

나수호<sup>8)</sup>는 서양의 트릭스터 이론 중에서 반계넵과 터너의 리미널리티(경계성) 이론을 통해 한국의 트릭스터 연구 모색에 건달형 인물이야기를 선택하였다. 이때 '경계성'은 '중간에 있는 공간 혹은 시간이며 여기에 있는 것도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건달형 인물전설 중에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으로 한정하여 한국 트릭스터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론에 매몰되어 건달형 인물이야기가 트릭스터 이론에 의해 재단되어 버리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이론을 위해 자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한국의 트릭스터담과 서양의 트릭스터담을 비교하면서도 단순 도식화하여 공통성과 차별성만을 부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트릭스터담은 인물 전설이고 서양의 트릭스터담은 신화인데, 이러한 비교 향이 온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음은 단일한 건달형 인물을 자료로 삼아 논의한 연구사이다. 검토는 연구 논저가

- 
- 6) 김헌선, 「건달형 인물이야기의 존재 양상과 의미」, 『경기어문학』8,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0.
  - 7) 임재해, 「건달형 인물전설의 어긋난 행위에 갈무리된 근대성」, 『한민족어문학』53, 한민족어문학회, 2008.
  - 8)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원형적인 인물 트릭스터의 경계성」, 『구비문학연구』제2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한국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방학중, 정만서, 김선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1.

많은 순으로 진행한다.

김난경<sup>9)</sup>은 방학중 전설을 대상으로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웃음과 풍자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였다. 방학중 전설에서 드러나는 웃음의 양상은 양분된다고 하였다. 1차적 욕구와 2차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속임수로 발생하는 웃음이다. 전자는 주로 식욕, 성욕, 배설과 같은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속임수와 후자는 자신의 가난을 희화화시키는 행위와 말로 인해 웃음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또한, 눈여겨볼만한 것은 방학중의 탄생담을 처음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이 탄생담이 아기장수의 서사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학중전설의 전승의식을 함께 살펴보았다.

2013년 10월 24일에 영덕문화원의 주최로 방학중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에 초청된 설화 연구자로 임재해, 이강옥, 김현선, 신동훈, 나수호이다. 이들이 참가한 학술대회는 이후 단행본<sup>10)</sup>으로 출간되었다. 임재해<sup>11)</sup>는 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으로 진행된 글을 보안한 것으로 이전의 건달형 인물전설에 관한 논문<sup>12)</sup>과 큰 틀에서 논의의 인식은 같다. 방학중 전설에 함의한 웃음의 미학을 9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변혁의 가치와 인간해방의 주제로서 민중의 진보적 가치를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이강옥<sup>13)</sup>은 방학중 전설의 전승 양상을 통한 전승집단의 내면 의식을 고찰하였다. 전승지의 중심부와 주변부 지역에서 방학중에 대한 긍·부정의 인식이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승집단의 상반된 인식은 방학중이 은밀한 욕망의 대리 충족자이며, 동시에 내면의 부끄러운 부분을 성찰을 하게 하는 양가적 심정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논하였다. 그러나 전승집단이 드러내는 인식을 고찰하는 데에 기존 연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김현선<sup>14)</sup>은 문학사와 역사적 측면에서 방학중 전설을 논하였다. 그의 핵심적 논의는 방학중 전설이 중세의 영웅전설 시대가 아닌 이행기의 산물인 평범한 범인의 시대에 형성된 이야기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건달형 인물을 인물전설의 유형군에서 민중영웅이라고 분류하였으나,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 평범한 범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야기라는 점을 지적한 것은 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건달형 인물을 평가, 구분 지었다고 판단된다. 신동훈<sup>15)</sup>은 유럽 민담에 등장하는 트릭스터를 대상으로 원형적 트릭스터 인물형을 고찰함으로써 트릭스터의 전형적인 특성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방학중은 서민적 애완을 담고 있는 소시민적 트릭스터로서 거리감과 친근감, 반역성과 구속성, 자기중심적 면모와 공생적 지향을 함께 갖춘 이중적이고 복합적, 입체적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이것이 방학중의 개성적인 트

9) 김난경, 『방학중 설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1.

10) 임재해 외9명, 『천하잡보 방학중의 해학과 풍자』, 민속원, 2014.

11) 위의 책, 임재해, 「방학중 전설의 세계와 문학적 은유의 웃음미학」, 12-81쪽.

12) 임재해, 앞의 논문.

13) 앞의 책, 이강옥, 「방학중의 인물 성격과 민중의 내면 표출」, 82-114쪽.

14) 앞의 책, 김현선, 「방학중 전설의 골계성과 역사적 인식」, 116-142쪽.

15) 위의 책, 신동훈, 「유럽민담 트릭스터와 방학중 캐릭터의 특성 비교」, 144-177쪽.

릭스터의 면모라고 하였다. 나수호<sup>16)</sup>는 방학중의 반(反)영웅성에 대해 논하였다. 방학중은 영웅의 뜻과 반대되는 목표를 향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중세를 무너뜨리고 근대로 나아가도록 힘을 보탠 인물이었지만, 근대로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데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기존 연구사에서 건달형 인물의 반(反)영웅, (-)방향의 영웅성을 논의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답습하고 있는 점이 한계다.

2017년에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의 주최 아래 『경주사람 천하명물 정만서』<sup>17)</sup>가 발간되었다. 그러나 정만서와 방학중의 이야기는 약 90% 이상이 같아서, 기존에 방학중 전설의 연구 논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논의를 답습하고 있어 한계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김현선<sup>18)</sup>은 정만서 전설이 전승지역의 언어로 향유되는 점을 강조하며, 경주어로 전승되는 정만서 이야기는 전승자 집단의 정서적 일체감을 갖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지적하며, 이야기판에서 구술되는 지역 방언에 강조점을 두었다. 신동훈<sup>19)</sup>은 트릭스터 정만서 성격을 규정하고 그의 말하기 방식에 집중하여 논의하였다. 정만서는 강경한 기세와 함께 남다른 기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이라고 논하였다. 정만서는 언어규범 일탈, 상상력을 통한 기발한 발상과 상황 연출을 통한 말하기에 능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만서의 이야기를 통해 현시하는 일탈과 파격, 그리고 전복의 상상력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고 논하였다. 홍성남<sup>20)</sup>은 문헌 설화를 중심으로 나타난 정만서의 말에는 언어유희나 문자유희를 구사하며, 남의 약점을 간접적으로 우회하여 비판하는 문사(文師)의 면모를 보인다고 하였다. 해학과 풍자로 사람들을 압도하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농조(弄調)의 어조로 웃어넘기는 대범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논하였다. 김나영<sup>21)</sup>은 정만서의 행적을 통해 언어, 욕망, 규범, 윤리 등의 여섯 가지의 일탈적 행위가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정만서의 일탈적 행위는 일상의 속박이나 무게로부터 일탈을 꿈꾸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소시민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논하며, 전승자는 웃음이라는 도구로 정만서의 일탈적 행위를 옹호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 이창식<sup>22)</sup>과 박현숙<sup>23)</sup>은 정만서 전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콘텐츠화 혹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연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도 하였다.

16) 앞의 책, 나수호, 「방학중의 영웅적 성격에 대한 탐구」, 178-204쪽.

17) 강석근 편, 『경주사람 천하명물 정만서』,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17.

18) 앞의 책, 김현선, 「정만서 구전설화의 면모와 의의-지역어·지역인물·지역유형의 층위를 구실 삼아-」, 15-59쪽.

19) 위의 책, 신동훈, 「경주의 트릭스터 정만서의 말하기와 창조적 상상력」, 109-141쪽.

20) 위의 책, 홍성남, 「문헌설화(문헌설화)에 나타난 경주인 정만서의 말(말)」, 143-193쪽.

21) 위의 책, 김나영, 「일탈을 향한 욕망의 대리자. 경주의 인물 정만서」, 195-227쪽.

22) 위의 책, 이창식, 「재담가로서 정만서의 가치와 수용」, 61-108쪽.

23) 위의 책, 박현숙, 「정만서 설화의 전승 양상과 아동 대상의 스토리텔링 방안」, 229-273쪽.

전북지역에서 전승되는 정평구 전설에 대한 연구는 5편이 있다. 김월덕<sup>24)</sup>은 전북지역에 구비 전승되는 설화들 가운데 영웅설화를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지역적 특성과 결부하여 그 성격을 파악하였다. 그 중에서 정평구를 문화 영웅으로 분류하여 해학과 유머로 세계를 조롱하는 희극적 비판을 통해 민중의 공감을 얻는 반체제적 영웅의 속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논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지면에 다양한 전북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논의해야 함으로 기존의 논의를 답습하는 등 심층적 분석이 부실하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은숙<sup>25)</sup>은 정평구 전설이 유형화된 건달형 인물 전설로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전승 확대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정평구를 역사적 존재, 해학적 건달, 잔혹한 건달의 단계를 거쳐 이야기가 확대 전승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잔혹한 건달이라는 명명 아래 분류된 정평구 전설이 과연 정평구의 잔혹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지 의문이 든다.

허정주<sup>26)</sup>는 정평구 전설을 트릭스터 이론에 대입하여 세계관과 문화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특히 정평구를 무(無)산자, 떠돌이의 성격을 갖는 부적응자로 보상심리의 콤플렉스가 확인된다는 논의는 눈여겨 볼만하다. 그러나 트릭스터 이론을 통해 건달형 인물 전설을 논의한 기존 연구를 답습하고 있는 한계점이 나타난다.

한정훈<sup>27)</sup>은 일제강점기의 신문 사설과 송기면의 <전평구전>을 비교하여 정평구의 인물 담론이 확대·축소되며 전승되는 양상과 전승 의식을 살펴보았다. 신문 사설과 전(傳)은 정평구를 비차를 개발한 문화 영웅으로 칭송하며, 국권침탈과 식민지배 과정에서 민족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인물 담론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정평구 전설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문자화된 자료들만을 통해서 정평구의 인물담론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김난경<sup>28)</sup>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정평구 전설과 건달형 인물전설 유형에 속하는 정평구 전설을 비교, 분석하여 전승의식의 확대·변화해가는 추이를 살펴보았다. 민중 영웅이었던 정평구가 조선 후기의 변화된 사회상에서 새로운 갈등 양상을 형상화할 새로운 인물 유형인 건달형 인물전설의 주인공으로 다시 호명되어 유형적 변이가 이루어진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유형적 변이가 가능했던 것은 이전의 정평구 전설이 민중 우위의 의식과 재치있는 속임수로 풍자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건달형 인물

24) 김월덕, 「전북지역 구비설화에 나타난 영웅의식」,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회, 1997.

25) 이은숙, 「전평구 전승의 확대 양상-전북의 건달형 인물 이야기 고찰(2)-」, 『국어문학』35, 국어문학회, 2000.

26) 허정주, 「정평구 설화의 세계와 문화적 의미」, 『비교민속학』41, 비교민속학회, 2010.

27) 한정훈, 「설화에 나타난 실존 인물의 의미화와 전승주체의 인식-김제 정평구 설화를 대상으로」, 『구비문학연구』 36, 한국구비문학회, 2013.

28) 김난경, 「설화 속 정평구의 형상과 전승의식의 다각화」, 『돈암어문학』 31집, 돈암어문학회, 2017.

전설의 주인공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제주도의 서귀포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변인태 전설의 연구서는 1편만이 있다. 강정식<sup>29)</sup>은 변인태 전설은 유형적으로 건달형 인물전설에 속하지만, 전승집단의 사고구조와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따라 개별적인 특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변인태는 미천한 신분인 관노가 지배계급을 풍자한다는 면에서 정수동과 유사하며, 관노라는 신분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유형의 인물들과 다르다고 하였다. 제주도적인 삶이 반영되었기에 공격의 대상이 지배계층으로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평양의 김선달 전설의 연구는 2편이며, 이 2편은 단일한 인물형 연구가 아닌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된 연구서이다. 평양의 김선달이 갖는 대중적 인지도와는 다르게 연구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전화민<sup>30)</sup>은 김선달과 중국의 서문장 설화, 박연관<sup>31)</sup>은 김선달과 베트남의 대표적 트릭스터인 Trang Quynh과의 비교를 통해 전승양상과 특징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김선달 전설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는 이야기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비교문학 연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단편적인 비교와 차이점만을 설명하는 것인데, 위의 두 논문 역시 그러한 단순한 논의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상으로 위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연구자에 의해 건달형 인물 전설의 논의가 축적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먼저, 각각의 건달형 인물 전설의 개별적 특징과 성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여러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건달형 인물 전설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특징이 있음에도 이에 주목하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달형 인물의 보편적 성격에 집중하였을 뿐,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면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건달형 인물전설이 조선 후기의 동시대의 여타 문학작품들과의 비교·고찰이 부족하다. 동시대에 함께 등장한 새로운 인물 유형과의 논의를 통해 조선 후기 사회상을 살펴보아야만 건달형 인물전설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사회를 반영한 보편·개성적 인물형이라는 점을 논의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요컨대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29) 강정식, 「邊仁泰 說話의 意味」, 『백문어문』 7, 백문어문학회, 1990.

30) 전화민, 『한·중 귀지인물설화 연구: 김선달, 서문장 설화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2011.

31) 박연관, 「김선달과 Trang Quynh이야기를 통해 본 전승집단의 의식」, 『동남아연구』 25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 동남아연구소, 2016.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건달형 인물전설이 채록된 구비설화 자료와 현장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구비문학의 특성상 설화가 향유·전승되는 전승지역의 현장 경험이 채록된 구비설화 자료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은 한 사회의 역사·문화·경제사적 토양분을 거름 삼아 형성·성장하는 한 시대의 표상과 같은 얼굴이라는 사회·문화사적 관점을 건달형 인물전설의 연구 방향성으로 삼는다. 특정한 전승지역을 기반으로 향유되는 각각의 건달형 인물전설의 개별적 성격과 동시대의 유사한 인물 유형과의 비교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연구 방법론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상기한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Ⅱ장은 평양의 김선달, 경주의 정만서, 영덕·영해의 방학중, 김제의 정평구, 서귀포의 변인태 자료의 전승 현황 및 양상을 점검하고, 삽화별 분류를 시도한다. 삽화별 분류는 건달형 인물이 함께 공유하며 전승시키는 삽화들을 공통 삽화,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전승시키는 삽화들은 단독 삽화라고 명명하여 분류한다. 각각의 건달형 인물들이 전승시키는 공통삽화와 단독삽화의 분포를 통해 개성적·보편적 전승 양상들을 점검한다.

제Ⅲ장은 제Ⅱ장을 바탕으로 각각의 건달형 인물들의 개성적 성격과 특징을 전승지역의 특성과 전승 삽화들을 통해 논의한다. 평양의 김선달, 영덕·영해의 정만서와 방학중, 김제의 정평구, 서귀포의 변인태의 자료와 전승 자료의 내적·외적 요소들의 다양한 담론과 인물들의 결핍된 욕망, 속임수의 방법 등을 통해 각 건달형 인물들의 개성적 성격을 전승지역을 대비하여 논의한다.

제Ⅳ장에서는 건달형 인물전설의 개별성과 보편성의 성격과 그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규명하고자 조선 후기의 동시대에 함께 형성되었던 골계성이 짙은 인물유형인 판소리(판소리계 소설)의 방자형, 탈춤의 말뚝이형 인물과의 비교·고찰을 하였다. 비교의 기준점은 먼저 욕망 지향의 수동성과 능동성 그 다음으로는 인물형들의 세계관적 지향점을 중심으로 각각의 인물들의 세계관적 지향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더불어서 논의의 대상을 확대하여 세태소설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행기 문학의 특징과 풍자문학으로써의 건달형 인물전설의 사회·문화사적 의미와 그 문학적 위상을 논의한다.

제Ⅴ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본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점검하고 건달형 인물전설과 함께 시정세태를 반영한 고전소설과의 향후 연구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건달형 인물 전설의 자료 현황

### 1. 건달형 인물 전설의 자료 및 전승 현황

건달형 인물 전설의 자료 현황은 각 건달형 인물별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건달형 인물별 자료의 현황 정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첫째, 자료 검토는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정평구, 변인태 순서로 진행한다.

둘째, 전승 자료의 현황은 도표를 통해 제시한다. 도표를 통해서 각 인물별 전승 지역의 분포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대계』를 중심 자료로 삼지만, 『구전』, 『벼골에 불던 바람』<sup>32)</sup>, 『김제의 전통』<sup>33)</sup>, 『남국의 민담』<sup>34)</sup>, 『제주도 전설』<sup>35)</sup>, 『제주설화 집성 I』<sup>36)</sup>, 『제주도 부락지 I』<sup>37)</sup>, 『백문어록』<sup>38)</sup>를 포함하여 개인채록 자료 역시 전승지의 지역적 분포를 정리하는 데 보조적 자료로 함께 활용한다.

셋째, 각 건달형 인물별로 어떠한 각편이 많이 전승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자료 현황을 통해 아울러 살펴본다.

#### 1) 김선달 자료 현황

번호	제목	수록 책
1	붕이 김선달 공짜 숙식	『대계』 1-1, 284-286
2	붕이 김선달 이야기	『대계』 1-2, 463-464
3	김선달의 팔죽장사	『대계』 1-3, 415-417
4	김선달의 소의 병을 고치다	『대계』 1-3, 417-418
5	공짜 술 먹은 붕이 김선달	『대계』 1-4, 599-603
6	붕이 김선달(맛돈 내고 먹은 돼지)	『대계』 1-6, 389-390
7	붕이 김선달	『대계』 1-7, 215-218

32) 김용문, 『벼골에 불던 바람』, 김제문화원, 1991.

: 이하 『벼골』로 표시함.

33) 김제군, 『김제의 전통』, 김제군, 1982.

34) 진성기, 『남국의 민담』, 영설출판사, 1976.

35) 진성기, 『제주도 전설』, 백록, 1992.

36) 김영돈, 현용준 공저, 『제주설화 집성 I』,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37)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편집, 『제주도부락지 I』, 1989.

38)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백문어문 5』, 1998, 『백문어문 7』, 1992, 『백문어문 9』, 199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8	봉이 김선달	『대계』 1-7, 219-224
9	봉이 김선달	『대계』 1-7, 226-227
10	봉이 김선달(초 친 죽)	『대계』 1-7, 744-745
11	봉이 김선달(처녀 밑 보기)	『대계』 1-7, 745-747
12	봉이 김선달(대동강 팔아 먹기)	『대계』 1-7, 748-749
13	김선달의 사기 행각	『대계』 1-9, 601-607
14	봉이 김선달 이야기	『대계』 2-2, 194-218
15	김선달의 피	『대계』 2-5, 797-802
16	대동강 물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	『대계』 2-5, 827-831
17	봉이 김선달의 시(詩)	『대계』 2-7, 107-108
18	봉이 김선달	『대계』 2-7, 196-197
19	봉이 김선달	『대계』 2-7, 198-199
20	봉이 김선달	『대계』 2-7, 199-201
21	부정한 아내 행실 고치고 부자 된 김선달	『대계』 2-8, 362-372
22	김선달 풀이한 기러기 '끼'자로 벼슬 얻은 선비	『대계』 2-8, 807-810
23	봉이 김선달의 임기응변술	『대계』 2-9, 105-109
24	봉이 김선달	『대계』 2-9, 173
25	따귀맞은 김선달	『대계』 2-9, 293-294
26	김선달의 평양기생	『대계』 2-9, 302-307
27	봉이 김선달	『대계』 3-1, 213-217
28	봉이 김선달 이야기	『대계』 3-3, 377-382
29	적선한 부원군을 만나 영화 누린 김선달	『대계』 3-3, 704-715
30	봉이(鳳伊) 김선달의 피	『대계』 4-6, 690-695
31	봉이 김선달	『대계』 5-6, 76-79
32	봉이 김선달 벼루 전달하기	『대계』 6-8, 139-145
33	김봉이 일화	『대계』 7-5, 484-486
34	김선달과 하문(下門) 들인 여자	『대계』 7-7, 736-739
35	김선달과 과거 선비들	『대계』 7-7, 738-742
36	대동강 물을 팔아 먹은 김선달	『대계』 7-10, 54-55
37	봉이 김선달	『대계』 7-11, 328-340
38	못쓰는 대추나무 판 봉이 김선달	『대계』 7-17, 114-115
39	김선달의 과거길과 과거 급제한 내력	『대계』 7-17, 168-177
40	봉이 김선달	『대계』 8-3, 41-42
41	참봉과 선달	『대계』 8-14, 455-459

42	김선달 대동강 물을 팔다	『구전』 1, 307-308
43	김선달의 돈별기	『구전』 1, 308
44	김선달의 기지(奇智)	『구전』 1, 309
45	김선달의 껍	『구전』 1, 309
46	김선달의 껍	『구전』 1, 310
47	김선달의 껍	『구전』 1, 310-311
48	김선달의 껍	『구전』 1, 311-312
49	김선달의 껍	『구전』 1, 312-313
50	김선달과 과부	『구전』 1, 313-314
51	김선달과 중	『구전』 1, 314-316
52	김선달 남의 약점으로 돈을 울궈 먹다.	『구전』 1, 316-317
53	김선달 중과 힘내기	『구전』 1, 317-318
54	김선달과 장님	『구전』 1, 320-321
55	장님을 속이는 김선달	『구전』 1, 321-322
56	김선달 장님을 울궈먹다	『구전』 1, 322-323
57	중을 속인 김선달	『구전』 1, 323-324
58	김선달 중을 울궈 먹다	『구전』 1, 326-328
59	김선달 돈 없이 서울 가다	『구전』 1, 328-329
60	김선달 돈별기	『구전』 1, 329-330
61	김선달 일화	『구전』 1, 330
62	金先達과 과부	『구전』 2, 305
63	김선달의 껍	『구전』 2, 305-306
64	썩 팔죽 비싸게 팔다	『구전』 3, 184-185
65	거만한 양반 골린 김선달	『구전』 3, 185-186
66	兩班子弟에 方相氏 씨우다	『구전』 3, 186-188
67	김선달과 중	『구전』 3, 188
68	김선달의 간지(奸智)와 기지	『구전』 3, 189-191
69	돌도구 하나로 서울까지 가다	『구전』 3, 191-192
70	대동강을 팔다	『구전』 3, 192
71	대동강 물 팔아먹다	『구전』 3, 193
72	處女 국소(局所) 보기	『구전』 3, 194
73	개고기 훔쳐먹고	『구전』 3, 194-195
74	평생 먹을 것	『구전』 3, 196-197
75	대동강 오리를 팔아먹다	『구전』 3, 339
76	대동강 물을 팔아먹다	『구전』 3, 340

김선달 전설은 『대계』 41편, 『구전』 35편으로 총 76편이 전승되고 있다. 먼저, 『대계』의 전승 현황은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김선달 이야기가 채록되고 있다. 지역별 전승 현황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서울·경기도 13편, 강원도 13편, 전라도 2편, 경상도 9편이다. 이러한 자료 분포는 김선달 전설이 광포성(廣布性)을 갖는 이야기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확인해 준다. 그러나 『구전』 자료 35편의 자료는 평양 남·북도편 1, 2, 3권에 수록되어 있어서, 김선달 전설이 평양 및 평안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던 이야기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sup>39)</sup>

김선달 전설은 광포 설화임에도 『대계』 기준으로 보았을 시에 서울·경기와 강원도에 서만 총 26편이나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전승 현황은 북한지역과의 거리·공간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인한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일부 지역과 강원도는 북한 지역과의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며, 강원도는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는 북한 지역권에 속해 있었다. 그리하여 과거 지역적 친연성과 함께 인적 자원 교류의 통로를 통해 이야기 역시 유통과 전승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서울·경기 지역에서 김선달 전설이 여타 지역보다 다수의 이야기가 채록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6편의 김선달 전설 중에서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는 자료는 ‘대동강과 얽힌 이야기’이다. 위의 표 2, 12, 13, 16, 19, 27, 31, 36, 43, 71, 76번의 <대동강 팔기> 11편, 표 13, 19, 70번의 <대동강을 논이라고 팔기> 3편, 표 75번 <대동강의 오리 팔기> 1편으로 총 15편이다. 평양의 김선달과 대동강은 지역적 친연성이 강하게 작동되는 화소이므로 대동강과 김선달이 얽힌 이야기가 가장 많이 채록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많이 전승되고 있는 자료는 <여자의 밑을 보기>이다. 봉이 김선달이 여자의 밑이 두 개이면 관가에서 잡아간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자의 밑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표 11, 27, 34, 39, 44, 72번으로 총 6편이다.

그 다음으로는 표 3, 10, 27, 64번으로 4편이 전승되는 <선 팔죽을 팔기>이다.

39) 여타 다른 건달형 인물은 『구전』에 2-3편정도만 수록되어 있다. 이에 반해 봉이 김선달 자료는 『구전』에 집중적으로 채록되었다. 특히 평북지역에 집중적으로 채록되어 있는데, 이는 『구전』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부분과도 상통된다.

『구전』은 북한 설화를 음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집이지만, 평북지역을 채록의 중심으로 삼아 자료를 채집한 점과 그로 인하여 여타 지역과의 지역별 채집 균형이 고르지 못한 점이 자료집으로서의 한계점을 갖는다. 최인학, 「서평: 70년 걸린 본격구전설화의 채록 자료집」, 『한국문화인류학』 26, 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325-327쪽.

## 2) 정만서 자료 현황

번호	제목	출처
1	양반은 사람이 아냐(鄭萬瑞譚)	『대계』 1-1, 143-144
2	정만서 꽃감 먹은 이야기	『대계』 7-1, 49
3	정만서가 실패한 이야기	『대계』 7-1, 57-58
4	정만서의 술책	『대계』 7-1, 77-78
5	정만서의 술책	『대계』 7-1, 78-79
6	정만서의 불효자 놀음	『대계』 7-1, 90-95
7	닭을 학이라고 산 정만서	『대계』 7-1, 95-97
8	복어국을 공짜로 먹은 정만서	『대계』 7-1, 98-101
9	거짓 상처한 정만서	『대계』 7-1, 101-102
10	남의 부녀와 입 맞춘 정만서	『대계』 7-1, 102-104
11	정만서 아들 죽었다는 이야기	『대계』 7-1, 123-124
12	정만서와 서만서	『대계』 7-1, 126-127
13	정만서와 거문고	『대계』 7-1, 127-130
14	우는 여자를 웃긴 정만서	『대계』 7-1, 130-131
15	풀 사먹는 정만서	『대계』 7-1, 131-133
16	변소를 판 정만서	『대계』 7-1, 133-135
17	일본 순사를 골린 정만서	『대계』 7-1, 135-137
18	정만서의 부부 싸움	『대계』 7-1, 137
19	정만서와 아들	『대계』 7-1, 138
20	정만서를 죽을 때 이야기	『대계』 7-1, 138-139
21	정만서와 담배 주인	『대계』 7-1, 153-155
22	정만서와 주모 아들	『대계』 7-1, 155-157
23	영천 거짓말쟁이와 경주 거짓말쟁이	『대계』 7-1, 307
24	정만서인가 누군가	『대계』 7-1, 318
25	정만서, 돼지는 현금 주고 먹는 줄 알았다.	『대계』 7-1, 330-331
26	마누라가 죽었다고 한 정만서	『대계』 7-1, 331-332
27	저수지 굴 방망이를 뺏다는 정만서	『대계』 7-1, 332-333
28	정만서 담배 얻어 피는 이야기	『대계』 7-1, 333-334
29	물 건너 온 정만서	『대계』 7-1, 334-335
30	사방 가는 길	『대계』 7-1, 335
31	정만서의 거짓말	『대계』 7-1, 434-437

32	정만서와 아들 범이	『대계』 7-1, 563-565
33	정만서와 기생	『대계』 7-1, 576-578
34	정만서와 담배 장수	『대계』 7-1, 623-626
35	정만서와 주모	『대계』 7-1, 626-627
36	정만서와 어린 아이를 잃은 부인	『대계』 7-1, 628-629
37	정만서와 백운학	『대계』 7-1, 629-630
38	양반주인을 골려준 정만서, 처음으로 욕을 먹은 정만서	『대계』 7-2, 114-119
39	“암개 잡은 셈치라”는 정만서	『대계』 7-2, 273-275
40	등따시고 배부른 정만서	『대계』 7-2, 276-277
41	청룡황룡이 그려진 정만서의 집	『대계』 7-2, 277-278
42	정만서의 검은고(거문고)	『대계』 7-2, 321-323
43	정만서에게 당한 붓장사	『대계』 7-2, 323-324
44	정만서의 처녀 젓가슴 구경	『대계』 7-2, 358-362
45	정만서의 거짓 죽음	『대계』 7-2, 362-364
46	정만서의 고베어 팔기	『대계』 7-2, 731-732
47	정만서와 그 부인	『대계』 7-2, 732-733
48	아전인 정만쇠와 원님	『대계』 7-3, 107-109
49	정만서와 아내	『대계』 7-3, 109-110
50	정만서와 아들 범이	『대계』 7-3, 110-111
51	정만서와 가난한 정승	『대계』 7-3, 125-126
52	정만서와 말 잘하는 여자	『대계』 7-3, 126-127
53	정만서와 말 잘하는 여자	『대계』 7-3, 127
54	변소를 샀다고 하는 정만서	『대계』 7-3, 127-129
55	정만서, “돼지는 맞돈 냈다고.”	『대계』 7-3, 129
56	정만서와 주모 아들	『대계』 7-3, 229-232
57	정만서와 순라꾼	『대계』 7-3, 232-233
58	정만서 이야기	『대계』 7-3, 233-236
59	정만서	『대계』 7-3, 255-257
60	정만서와 밀장사	『대계』 7-3, 286-291
61	정만서의 맞돈	『대계』 7-3, 341-342
62	정만서와 불효 자식	『대계』 7-3, 625-628
63	정만서와 과거 보러 가는 동료들	『대계』 7-3, 628-633
64	정만서와 빨래 하는 처녀	『대계』 7-3, 633-636
65	정만서가 과거 한 이야기	『대계』 7-3, 636-637

66	정만서와 밀장수	『대계』 7-3, 637-641
67	정만서와 농부	『대계』 7-3, 641-643
68	정만서와 아들 인경철이	『대계』 7-3, 643-644
69	대감속인 정간지	『대계』 7-6
70	정간지의 껌	『대계』 7-6, 321-324
71	임금 관 흠친 정간지	『대계』 7-6
72	정만서의 병어리 노릇	『대계』 7-9, 65-67
73	스님을 울린 정만서	『대계』 7-10, 45-49
74	인경을 치도록 한 정만서	『대계』 7-10, 49-51
75	공짜 술을 먹는 정만서	『대계』 7-10, 51-52
76	공짜 술을 먹는 정만서	『대계』 7-10, 52-53
77	정만서의 풀 사먹기	『대계』 7-10, 704-706
78	정만서의 외상과 돼지의 맞돈	『대계』 7-10, 706-707
79	정만서의 부부 싸움	『대계』 7-10, 708
80	정만수 이야기	『대계』 7-11, 430-437
81	감사를 놀린 정만서	『대계』 7-17, 107-109
82	담배장수를 골려준 정만서	『대계』 7-17, 110-111
83	통빨래가 된 정만서	『대계』 7-17, 111-112
84	주모를 골려준 정만서	『대계』 7-17, 112-113
85	영장이 되고 빨래가 된 정만서	『대계』 7-17, 113-114
86	외상술 주지 않아서 보복한 정만서	『대계』 8-4, 681-682
87	정만수 이야기	『대계』 8-6, 584-591
88	정만서	『대계』 8-10, 171-172
89	정만서	『대계』 8-10, 212-219

정만서 전설은 『대계』 총 89편이 전승되고 있다. 정만서 전설의 총 89편은 경상북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전승 현황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자면, 표 1번의 자료는 서울시에서 채록된 자료로 1편만이 전승되고 있다. 이 자료의 채록 상황을 설명한 사항을 참조하자면, 구연자인 김해식은 ‘야담책에서 본적이 있는 정만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면서 구연을 시작하였다고 한다.<sup>40)</sup> 야담집을 통해 정만서 이야기를 읽은 기억을 되새겨 구연해 준 자료로, 서울 지역에서 정만서 이야기가 채록된 것은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정만서는 김선달과 함께 20세기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야담집이나 재담집에 소개되어 출판되었던 점을 상기시켜준다.

40) 『대계』 1-1, 143-144쪽.

정만서는 경주를 대표하는 건달형 인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한다. 정만서가 경주 출신이며, 경주와 그 일대에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구연자에 따라서 정만서는 월성군 서면 출신<sup>41)</sup> 혹은 경주시 산내면 대현 출신<sup>42)</sup>이라고도 하지만, 월성군이나 산내면은 행정적으로 경주시에 해당된다.

정만서 전설은 월성군과 경주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가장 많은 자료가 전승되고 있는 곳은 경주의 외곽지역인 월성군이다. 표 2-47번까지가 월성군에서 채록된 자료로 총 46편이다. 경주는 표 48-68번까지이며 총 21편이다. 그 뒤로 표 73-79번의 봉화군에서 총 7편, 표 69-71번의 영덕군 총 3편, 표 72번 안동군 총 1편이 각각 채록되었다. 이를 통해서 정만서 설화는 경상북도 월성군이 전승 지역의 중심지라는 점을 채록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정만서 전설은 총 89편 중에서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는 자료는 <되지 맞돈>이다. 표 25, 35, 55, 65, 78, 83, 86, 87번으로 총 8편이 채록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채록된 자료는 <정만서의 부부싸움>이다. 표 18, 41, 47, 49, 79, 80, 89번으로 총 7편이 채록되었다. 그 다음의 채록 편수를 보이는 것은 총 5편인 <통서답>으로 표 57, 83, 85, 87, 88번이다.

### 3) 방학중 자료 현황

번호	제목	출처
1	하인 방학동이의 출세	『대계』 2-3, 133-138
2	나무장수 골린 방학중	『대계』 2-8, 732-734
3	방학중이 탄생과 행적	『대계』 7-6, 317-319
4	방학중이의 실수	『대계』 7-6, 324
5	떡 사먹은 방학중이	『대계』 7-6, 400-401
6	방학중이와 씹시게	『대계』 7-6, 401-402
7	방학중이와 순라꾼	『대계』 7-6, 416
8	방학중이와 떡보리	『대계』 7-6, 420-424
9	방학중이 똥을 누는데	『대계』 7-6, 598-600
10	말이 막힌 방학중	『대계』 7-7, 33-34
11	겨울에 삼베옷 입는 방학중	『대계』 7-7, 34
12	씹시개와 하던 자리	『대계』 7-7, 35-39
13	방학중의 담배 얻어피기	『대계』 7-7, 39-40

41) 『대계』 7-1, 90-95쪽.

42) 『대계』 7-1, 576-578쪽.

14	방학중과 떡보리	『대계』 7-7, 40-43
15	방학중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	『대계』 7-7, 44
16	방학중과 코 빠진 술	『대계』 7-7, 64
17	사또와 방학중의 하던 방식	『대계』 7-7, 64-65
18	담배 속에 들어가서 잔 방학중	『대계』 7-7, 66
19	방학중과 순라꾼	『대계』 7-7, 367-368
20	말이 막힌 방학중	『대계』 7-7, 368-369
21	청룡 황룡이 그려진 방학중의 집	『대계』 7-7, 369-370
22	방학중의 부부 싸움	『대계』 7-7, 370
23	방학중에게 봉변당한 담배장수	『대계』 7-7, 372-373
24	방학중의 똥 치기	『대계』 7-7, 373-374
25	방학중의 출생	『대계』 7-7, 374-375
26	이천냥에 변소를 빌린 방학중	『대계』 7-7, 375-377
27	소깍장수와 방학중	『대계』 7-7, 377-378
28	방학중의 통서답	『대계』 7-7, 411-412
29	방학중의 울음	『대계』 7-7, 412-413
30	겨울에 삼베옷 입는 방학중	『대계』 7-7, 413-414
31	방학중의 거문고	『대계』 7-7, 414-415
32	기생을 꺾어서 동침한 방학중	『대계』 7-7, 415-417
33	방학중과 떡보리	『대계』 7-7, 422-427
34	방학중의 울음	『대계』 7-7, 432-433
35	방학중의 외상과 돼지의 맞돈	『대계』 7-7, 433-435
36	청룡 황룡이 그려진 방학중의 집	『대계』 7-7, 489-490
37	겨울에 삼베옷 입는 방학중	『대계』 7-7, 529-530
38	방학중 하던 방식	『대계』 7-7, 530-531
39	말이 막힌 방학중	『대계』 7-7, 531-532
40	청룡 황룡이 그려진 방학중의 집	『대계』 7-7, 532-533
41	방학중의 외상과 돼지의 맞돈	『대계』 7-7, 533
42	방학중이 건넨 물	『대계』 7-7, 534
43	방학중의 입맞추기	『대계』 7-7, 534-535
44	방학중의 복수담	『대계』 7-7, 535-536
45	방학중과 공동묘지 말뚝 박기	『대계』 7-7, 536-537
46	방학중의 출생담과 가계	『대계』 7-7, 537-539
47	방학중에게 봉변당한 담배장수	『대계』 7-7, 539-540
48	방학중의 부부 싸움	『대계』 7-7, 540-541

49	방학중의 통서답	『대계』 7-7, 541-543
50	방학중과 떡보리	『대계』 7-7, 543-544
51	방학중이 건넌 물	『대계』 7-7, 544-545
52	팔도 것인 방학중	『대계』 7-7, 545-546
53	방학중의 외상과 돼지의 맞돈	『대계』 7-7, 546-547
54	방학중의 유연과 묘지	『대계』 7-7, 547-549
55	방학중의 부부 싸움	『대계』 7-7, 549
56	방학중의 하던 방석	『대계』 7-7, 549-551
57	방학중의 사는 형편	『대계』 7-7, 551
58	겨울에 삼베옷 입는 방학중	『대계』 7-7, 552
59	시불 똥 먹고 사는 방학중	『대계』 7-7, 552-553
60	방학중의 하던 방석	『대계』 7-7, 553-556
61	방학중의 울음	『대계』 7-7, 558-559
62	방학중의 하던 방석	『대계』 7-7, 588-589
63	방학중의 입맞추기	『대계』 7-7, 589-591
64	방학중의 떡보리	『대계』 7-7, 591-592
65	방학중의 도복	『대계』 7-7, 592-593
66	겨울에 삼베옷 입는 방학중	『대계』 7-7, 596
67	방학중과 정만서	『대계』 7-7, 685-687
68	방학중의 변소 사용	『대계』 7-7, 687-688
69	방학중과 담배장수	『대계』 7-7, 688-690
70	방학중의 기생 오입	『대계』 7-7, 690-692
71	방학중과 객주집 주인	『대계』 7-7, 692-694
72	방학중과 서울 사람	『대계』 7-7, 694-696
73	방학중이 담배 얻어 피는 방법	『대계』 7-7, 717-718
74	방학중이 떡을 공짜로 먹는 방법	『대계』 7-7, 718-719
75	방학중이 똥을 치는데	『대계』 7-7, 719-720
76	방학중이 공술 얻어먹는 방법	『대계』 7-7, 720-723
77	“내가 니 배를 타로 강을 건네 갔으니”	『대계』 7-7, 724-728
78	방학중이 무전여행하는 방법	『대계』 7-7, 728-730
79	방학중과 정만서	『대계』 7-7, 730-731
80	방학중과 바느질하는 여자	『대계』 7-7, 742-744
81	방학중이와 진자리꼭재기, 반찬 사건	『대계』 7-7, 761-762
82	방학중이와 진자리 꼭재기, 부채 사건	『대계』 7-7, 762
83	방학중이와 서울 잡보	『대계』 7-7, 763

84	방학중이와 아이 잃은 여자	『대계』 7-7, 763-764
85	방학중이 잡보질, 더 심한 이야기	『대계』 7-7, 764-766
86	방학중의 묘사 지내기	『대계』 7-9, 64-65
87	방학중의 외상과 돼지의 맞돈	『대계』 7-9, 73-74
88	방학중이 팔아 먹은 대추나무	『대계』 7-9, 688-690
89	비단 가게 주인을 속인 방학중	『대계』 7-9, 690-691
90	방학중에게 봉변당한 담배장수	『대계』 7-9, 691-692
91	방학중의 외상과 돼지의 맞돈	『대계』 7-9, 767-768
92	방학중의 잣 먹기	『대계』 7-9, 768-769
93	방학중의 '종이 두 권'	『대계』 7-9, 769
94	방학중의 '거문고'	『대계』 7-9, 770
95	비단 가게 주인을 속인 방학중	『대계』 7-9, 774-775
96	상전을 꿀러먹은 방학중	『대계』 7-9, 887-892
97	우는 여자를 웃긴 방학중	『대계』 7-9, 892-893
98	잣을 공짜로 먹은 방학중	『대계』 7-9, 893-894
99	똥을 새라고 속인 방학중	『대계』 7-9, 894
100	방학중과 떡보리	『대계』 7-9, 1077-1080
101	상전을 골러 준 방학중	『대계』 7-10, 38-40
102	상전을 골러 준 방학중	『대계』 7-10, 41-43
103	상전의 사위가 된 방학중	『대계』 7-10, 43-45
104	여자의 밑을 구경시킨 방학중	『대계』 7-10, 48-49
105	새끼 서 발로 색시 바꾼 방학중	『대계』 7-10, 614-617
106	方학준	『구전』 12, 45-48
107	方학준	『구전』 12, 48-49
108	方학준	『구전』 12, 49-50
109	방학중이야기(거문고+공짜술 먹는 방학중+방학중과 물의 깊이)	2013. 11. 29. 채록 자료
110	방학중과 주모(쌀뜯물 이야기)	2013. 11. 29. 채록 자료
111	방학중과 떡보리	2013. 11. 29. 채록 자료
112	방학중과 물의 깊이	2013. 11. 29. 채록 자료
113	남정면 원정리 지푸심골 방학중의 무덤 앞에서	2013. 11. 29. 채록 자료

방학중 설화는 『대계』 105편, 『구전』 3편, 개인채록 자료 5편으로 총 113편이다. 이 자료들의 전승 지역은 경상북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방학중은 영덕·영해 출신으로,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한 인물이라고 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방학중 전설은 영덕군을 중심으로 많은 자료가 전승되고 있다. 자료의 전승 현황은 『대계』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다.

『대계』를 기준으로 방학중 전설이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은 영덕군이다. 위의 표 3-85번까지의 83편 자료는 경북 영덕군에서 전승되고 있는 자료이다.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표 3-9번까지의 7편은 경북 영덕군 달산면에서 채록된 자료이며, 표 10-85번까지의 76편은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서 채록된 자료이다. 이러한 채록 사항은 방학중 전설의 전승 지역의 중심지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표 86-100번까지의 15편은 안동군, 표 101-105번까지의 5편은 봉화군, 표 1과 2번은 강원도 삼척군과 영월군에서 각각 1편씩이 전승 되고 있다.

『구전』은 경상북도편인 12권에 3편이 수록·전승되고 있다. 방학중이란 이름이 아닌 ‘方학중’이란 이름으로 전승되고 있다. 비록 3편만이 수록되고 있으나, 방학중 전설이 경상북도를 근거지로하여 전승된 자료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개인채록 자료 5편은 영덕 강구면과 남정면에서 본 연구자가 두 명의 제보자에게서 채록한 자료이다.<sup>43)</sup> 표 109-112번까지 4편의 자료는 박문태(2013년 기준 60세)<sup>44)</sup>제보자, 표 113번인 1편은 이태범<sup>45)</sup> 제보자에게서 채록하였다.

이로써 방학중 전설은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을 중심으로 해서 영덕군 달산, 남정면, 안동, 봉화원거리인 강원도 삼척군과 영월군까지 원심적으로 전승되고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방학중 전설에서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는 표 6, 12, 17, 38, 56, 60, 62, 80번 자료 <하던 방식>과 표 1, 8, 16, 96, 101, 102, 103, 106번 자료 <피쟁이 하인> 유형으로 각각 8편씩 채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표 14, 33, 50, 64, 100, 108, 111번 자료인 <떡보리>가 7편이 채록되었다. 특히 이 자료는 <피쟁이 하인>유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피쟁이 하인> 이야기의 중간 부분 서서의 삽화가 <떡보리> 자료이다.

43) 김현선의 도움으로 2013년 11월 29일에 5편의 자료를 채록하였다. 5편의 자료를 구연해준 두 제보자는 2013년 10월 24일에 개최한 <천하잡보 방학중의 해학과 풍자> 학술대회에서 한 차례에 만난 인연으로 인하여 이야기를 채록할 수 있었다.

44) 박문태는 흥미로운 제보자였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으며, 자신을 드러내며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편이었다. 어린 시절에 영화관 변사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당시 2013년 시의원으로서 출마할 예정이라고도 하였다. 그는 방학중의 이야기를 구연하는 내내 유쾌한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냈으며, 큰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연하였다.

45) 이태범은 박문태와는 상반된 제보자였다. 수더분하고 순박한 인상을 가진 분으로 당시에 어촌계장직을 맡고 있었다. 방학중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어놓았으며, 방학중을 칭할 때면 ‘방학중 선생’, ‘그 분’이라고 존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방학중의 이야기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주요 모티프만을 기억해내었을 뿐이었다. 이태범 제보자의 안내로 방학중의 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묘가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방학중 전설에서 <피쟁이 하인> 유형의 영향권 아래서 전승되고 있는 방학중 이야기는 8편 채록된 <피쟁이 하인> 유형과 7편 채록된 <떡보리> 자료를 포함하면 총 15편이나 된다. 이를 통해서 방학중과 <피쟁이 하인> 유형은 서로 대단한 친밀성을 가지며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정평구 자료 현황

번호	제목	출처
1	피쟁이 하인의 사기행각- 정평구 일화	『대계』 1-1, 513-522
2	김제 진평구 이야기	『대계』 5-1, 89-91
3	진평국 이야기	『대계』 5-2, 704-705
4	진평구 일화	『대계』 5-2, 792
5	진평구 일화	『대계』 5-2, 792-793
6	진평구 일화	『대계』 5-2, 793-794
7	진평구 일화	『대계』 5-2, 794
8	진평구 일화	『대계』 5-2, 794
9	진평구 일화	『대계』 5-2, 794-795
10	오랑캐를 세 번이나 혼낸 정평구	『대계』 5-3, 636-638
11	거짓말 잘한 진평구	『대계』 5-5, 319-320
12	진평구의 피	『대계』 5-7, 622-625
13	피 많은 진평구	『대계』 5-7, 631-636
14	대담(피많은 정평구가 유기장사 혼냈다.)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자료 <sup>46)</sup>
15	거짓말 잘하는 정평구	『구전』 1, 98-99
16	주인을 속이는 하인	『구전』 2, 59
17	이름난 거짓말장이	『벼골』 102-106
18	보물상자	『벼골』 107-109
19	물오리를 팔아 먹은 정평구	『벼골』 110-114
20	당산(堂山)에 쓴 명당(明堂)	『벼골』 115-120
21	골탕먹은 소금장수	『벼골』 121-125
22	제삿날 잡자다 벌 받은 아들	『벼골』 126-129
23	임진왜란 때 왜적을 박살 낸 이야기	『김제의 전통』 69
24	제주방죽 물오리 팔은 이야기	『김제의 전통』 69-70
25	당산에다 명당쓴 이야기	『김제의 전통』 70-71
26	시골양반 골탕먹인 이야기	『김제의 전통』 71-72
27	소금장수를 골탕먹인 이야기	『김제의 전통』 72-73

28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 친 정평구	2016. 6. 24. 채록 자료
29	거짓말 잘하는 정평구	2016. 6. 24. 채록 자료
30	오리 팔아먹은 정평구	2016. 6. 24. 채록 자료
31	아버지에게 혼나기 싫은 정평구	2016. 6. 24. 채록 자료

정평구 전설은 『대계』 13편,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1편, 『구전』 2편, 『벼골에 불던 바람』 4편과 『김제의 전통』 5편, 개인채록 자료 4편으로 총 31편이다.

정평구는 전북 김제 출신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정평구 설화는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까지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상세한 전승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계』 13편의 자료 역시 전승 지역이 전라북도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 다만, 표 1번의 자료는 서울시에서 채록된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의 구연자인 박경종은 전북 전주 출신이다. 서울로 이주한 지가 몇 해 안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서, 이 자료는 비록 서울에서 채록된 자료라 할지라도 전북 지역의 영향권 아래서 전승된 자료라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sup>47)</sup> 또한, 표 3-9번까지의 7편 자료는 전주, 표 2, 10, 11번은 각각 남원, 부안, 정주에서 채록되었으며, 표 12, 13번의 2편 자료는 정읍에서 채록되었다.

『구전』 2편의 자료인 표 15번은 전북지역에서 채록된 자료이며,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1편의 자료인 표 14번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채록된 이야기이다. 이 자료는 채록현황이나 제보자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충청북도에서 정평구의 이야기가 전해진 내력은 알 수 없다.

『김제의 전통』과 『벼골』의 자료는 표 17-27번까지이다. 11편의 자료는 김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채록된 자료라고 추정된다. 두 권의 자료집은 김제 문화원의 주도 아래 발행된 것으로 김제의 향토 문화를 수집하고 정리한 책이다. 두 자료집은 공통되게 정평구를 김제 출신의 인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김제의 전통』은 정평구 전설을 구비문학(口碑文學)의 전설(傳說) 항목에 수록하지 않고, 고장을 빛낸 역사적 인물 항목에 수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표 20-31번까지의 4편은 개인채록 자료로 김제시 요촌동에서 김태평(2016년 기준 71세)과 이근수(2016년 기준 69세)제보자에게서 채록한 자료이다.<sup>48)</sup>

46)

[http://yoksa.aks.ac.kr/jsp/um/List.jsp?um10no=msu\\_5212&um20no=1053\\_08\\_5212&keywords=%EC%A0%95%ED%8F%89%EA%B5%AC](http://yoksa.aks.ac.kr/jsp/um/List.jsp?um10no=msu_5212&um20no=1053_08_5212&keywords=%EC%A0%95%ED%8F%89%EA%B5%AC)

47) 박경종은 “고향이 전북 전주시 태평 1가동으로 서울 온 지는 몇 해 안된다.”고 한다. 『대계』 1-1, 222쪽.

48) 김태평과 이근수 제보자는 김제시 요촌동에 위치한 ‘장수노인정’에서 만난 분들이다. 처음 김태평 제보자에게 정평구의 이야기를 청하였는데, 이후에 이근수 제보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연하였다. 김태평 구연자는 짝막하게 줄거리 나열식으로 구연했다면, 이근수 제보자

한정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정평구 전설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김제, 전주, 남원, 정주와 원거리인 충청도까지의 전승 분포를 보인다.

총 30편의 정평구 전설 중에서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는 김선달 각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동강의 물 팔기>유형에 속하는 자료이다. <방죽 오리 팔기>로 표 1, 5, 12, 19, 24, 30번으로 6편이 채록되었다.

다음으로는 표 11, 15, 17, 26, 29번으로 5편이 채록된 <거짓말을 해봐라>이다. 또한, 표 1, 14, 21, 27번 자료인 <공짜 담배 주지 않아 골탕 주기>와 정평구의 임신왜란 활약담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인 표 10, 18, 24, 28번 자료인 <임신왜란 때 오랑캐를 혼낸 정평구>가 각각 4편씩 채록이 되었다.

### 5) 변인태 자료 현황

번호	제목	출처
1	서귀진 변인태(邊仁泰)	『대계』 9-1, 131-134
2	변인태(邊仁泰)(1)	『대계』 9-3, 82-96
3	변인태(邊仁泰)	『대계』 9-3, 129-135
4	변인태	『대계』 9-3, 390-391
5	변인태	『대계』 9-3, 407-410
6	변인태	『구전』 9, 210-214
7	서귀진(西歸鎭) 변인태(邊仁泰)	『제주도 전설』, 126-131
8	서귀진(西歸鎭) 변인태(邊仁泰)	『제주도 전설』, 131
9	변인태(邊仁泰)	『제주설화 집성 I』, 781-886
10	익살꾸러기 변인태	『제주도부락지 I』, 526-527
11	익살꾸러기 변인태	『백문어록』 5, 336-337
12	변인태 1	『백문어록』 7, 244-245
13	변인태 2	『백문어록』 7, 245
14	변인태 3	『백문어록』 7, 245
15	변인태 1	『백문어록』 9, 401-402
16	변인태 2	『백문어록』 9, 422-424
17	서귀진 변인태(1)	『남국의 민담』 104-113
18	서귀진 변인태(2)	『남국의 민담』 113-118

는 보다 활발하고 경쾌하게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이근수 제보자는 기존에 채록되지 않은 <아버지에게 혼나기 싫은 정평구>이야기를 구연해주었다. 또한, 자신이 김제문화원의 원장을 잘 안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19	변인태	『제주도 전설지』
20	변인태 이야기(봉화불에 고기 굽기)	2016. 4. 24. 채록 자료

변인태 전설은 『대계』 5편, 『구전』 1편, 『제주도 전설』 2편, 『제주설화 집성 I』 1편, 『제주도 부락지 I』 1편, 『백록어문 5』 1편, 『백록어문 7』 3편, 『백록어문 9』 2편, 『남국의 민담』 2편, 『학술조사보고서』 1편, 『제주민속문화』 1편, 개인채록 자료 1편으로 총 20편이다.

변인태 전설은 제주도 지역에서만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안에서도 상세한 지역적 분포를 살펴본다.

『대계』에서 표 1번 자료는 북제주군 서귀령 용두동에서 채록된 자료이다. 나머지 표 2-5번까지의 자료는 서귀포시 중문동과 영천동에서 각각 채록된 자료이다.

『구전』 자료인 표 6번은 제주시에 채록된 자료라는 점만이 기록되어 있으며, 『제주도 전설』 표 7, 8번 자료는 각각 서귀포시 성산면과 남원읍, 표 9번의 『제주설화 집성 I』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흥리, 『제주도부락지 I』 표 10번 자료는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서 채록되었다.

『백문어록 5, 7, 9』 표 11-16 자료는 각각 서귀포시 남원읍과 보목리,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에서 각각 채록되었으며 표 17, 18번의 『남국의 민담』 역시 서귀포시 성산면에서 채록된 자료이다.

표 20번은 개인채록 자료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서 만난 제보자 조남생(2016년 당시 69세)이 구연해준 이야기이다.<sup>49)</sup>

변인태 전설에서 변인태는 제주도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변인태는 서귀진 사람’, ‘서귀진 변인태’라고 인물을 칭한다. 자료들의 전승 현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변인태 전설은 서귀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채록·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전승력이 희미하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변인태 전설은 서귀포의 지역적 친연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며, 한정된 지역 안에서만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전승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변인태 전설에서 가장 많이 채록된 자료는 11편으로 <조방장의 고기를 봉화불에 굽기>이다. 그 다음으로 8편이 채록된 자료는 <거짓말을 해봐라>이며, 이 이야기는 정평구 설화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채록된 자료이기도 하다.

49) 제주도 서귀포에서 변인태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많이 어려웠다. 제보자 조남생은 위미 1리 마을회관 앞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위미리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젊은 시절에 전라남도 해남에서 막일을 하다가 40대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청년 시절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렵듯이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변인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으며, 중요 모티프 정도를 나열하는 수준의 구연이었다.

이상으로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정평구, 변인태의 자료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물별 주요 전승 지역에 따른 전승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각 인물별로 많이 채록된 이야기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 2. 건달형 인물 전설의 공통 삽화 및 단독 삽화

앞서 전승되는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정평구, 변인태의 전승 자료 현황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각 건달형 인물들의 이야기를 삽화별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총 130개의 삽화가 추출되었다.

건달형 인물 전설은 기존 전설과는 다르게 삽화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삽화는 서사적으로 독립된 완결성을 가진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이야기가 된다.<sup>50)</sup> 건달형 인물 전설은 단일한 삽화를 갖춘 이야기를 기본형으로 삼아서, 여러 삽화가 느슨하게 짜여진 구성을 갖춘 이야기로 확장형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건달형 인물 전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삽화별 정리와 검토가 필요하다.

130개의 삽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살펴본다. 먼저, 건달형 인물들이 함께 공유하며 전승시키는 삽화들을 공통 삽화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전승시키는 삽화들을 단독 삽화라고 명명하여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또한, 공통 삽화와 단독 삽화들의 전승 편수를 각 건달형 인물별로 함께 표기한다.

공통과 단독으로 삽화를 분류한 기준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이다. 공통 삽화를 통해 건달형 인물전설의 유형적 보편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건달형 인물들 간에 공유하는 삽화들을 주목하며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단독 삽화는 각 건달형 인물들의 개성적 특성과 그 경향성을 삽화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자료의 정리 기준과 방법론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각 건달형 인물들의 전승 삽화별 분포를 통해 보편성과 개성적인 지점을 점검해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공통 삽화와 단독 삽화의 자료 정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각 건달형 인물들이 공통 삽화의 교집합 수가 많은 삽화들로 순차적으로 도표로 제시한다. 제시한 도표를 바탕으로 교집합의 삽화가 많은 건달형 인물들 위주로 살펴본다. 단독 삽화 역시 삽화 수가 많은 자료들을 순차적으로 도표로 제시한 후에, 삽화들의 특성과 개성적 지점들 위주로 검토한다.

---

5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하, 국학자료원, 2006년, 134-136쪽.

## 1) 건달형 인물별 공통 삽화

공통 삽화는 건달형 인물들이 서로 교집합을 이루는 삽화이다. 이들 공통 삽화를 공유하는 건달형 인물들이 많은 수부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도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각 건달형 인물에게서 공통 삽화의 교집합이 다수에게서 전승되고 있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도표로 제시한다. 도표의 가로 축은 각 건달형 인물에게서 교집합의 공통 삽화의 제목과 그 편수를 표기한다. 세로 축은 교집합의 공통 삽화의 각 번호와 삽화의 총 편수를 표기한다.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정평구, 변인태 5인의 건달형 인물이 모두 함께 공유하는 공통 삽화는 없다. 4, 3, 2인의 건달형 인물의 공통 삽화가 정리되고 있다. 정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4인의 공통 삽화

4인의 공통 삽화는 변인태를 제외한 나머지 건달형 인물인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정평구가 삽화의 교집합을 이룬다. 총 2편의 삽화가 공통 삽화로 정리된다. 이를 정리한 도표는 다음과 같다.

번호	공통 삽화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정평구	변인태	합계
1	담배장수가 담배주지 않아서 누명 씌우기	1	3	5	3	·	12
2	공짜 담배 얻어 피우기	1	1	3	2	·	7

위의 도표 1과 2번 삽화는 <담배장수가 담배주지 않아서 누명 씌우기>와 <공짜 담배로 담배 얻어 피우기>로 두 삽화의 공통점은 담배를 매개로 사건이 발생된다는 점이다. 1번 삽화는 건달형 인물이 담배장수에게 담배를 요구하지만, 끝내 담배를 주지 않아 보복하고자 논에서 일하는 모르는 여성을 불러내서 입맞춤을 하고 담배장수에게 ‘형님, 얼른 오시오’라며 말하고 도망친다. 논에서 함께 일했던 남성들은 화가 나서 도망간 건달형 인물을 대신해서 담배장수를 때렸다는 내용이다.

2번 삽화는 건달형 인물이 젖은 혹은 바짝 마른 담배를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담배장수를 만나면 자신의 담배는 ‘젖어서 혹은 너무 말라서 못 피운다’는 수법으로 담배를 얻어 피우는 일에 성공하는 성공형과 실패해서 담배를 얻어 피우지 못하는 실패형으로 나뉘는 내용이다. 성공형과 실패형 중에서 성공형 삽화가 더 많은 편수를 차지한다.

1번 삽화는 2번 삽화 중 실패형 이야기의 확장형에 해당된다. 속임수의 계략이 실패

해서 담배를 얻어 피우지 못한 건달형 인물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건달형 인물에 대한 전승자들의 기대감과 호기심이 1번 삽화와 같이 보복의 속임수 서사로 확장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담배 모티프를 공유하는 위의 두 삽화는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정평구 4인의 건달형 인물에게 고르게 전승되고 있음을 도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두 삽화의 총합은 18편으로 단일 모티프로 이와 같이 다수의 건달형 인물들에게 고르게 채록된 것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담배는 조선 후기에 보편적인 기호품으로 대단한 유행을 했던 품목이다. 남녀노소, 상하층을 막론하고 전 연령층에서 담배의 소비는 보편화되어,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대도시, 촌락 및 장시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sup>51)</sup> 건달형 인물이야기에 담배를 소재로 한 삽화가 다수로 전승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달형 인물들에게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형성·전승되었던 당대의 시대상을 적극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담배를 소재로 한 삽화는 변인태에게서 한 편도 전승되고 있지 않다. 이야기 속 관청 노비라는 변인태의 신분과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담배 소재의 이야기가 형성 혹은 전승되는 점에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2) 3인의 공통 삽화

공통 삽화의 교집합을 이루는 건달형 인물들이 3인에 해당되는 자료이다. 이들 삽화는 총 14편이다.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정평구, 변인태 5인이 모두 공통 삽화의 교집합을 자신을 제외한 2인과 공통 삽화를 공유한다. 이를 정리한 사항을 아래의 도표를 통해 제시한다.

번호	공통 삽화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정평구	변인태	합계
3	대동강(물, 논, 오리) 팔기	15	1	·	6	·	22
4	돼지 맞돈 내고 먹는 줄 알았다고 하기	2	8	5	·	·	15
5	거짓말을 해보라고 해서 거짓말하기	·	2	·	5	8	15
6	순라군에게 영똥한 말로 상황모면하기	3	5	4	·	·	12
7	상전의 음식 빼앗아 먹기	·	1	8	·	2	11
8	여자에게 쌀 뜬 물 흐른다고 희롱하기	1	3	5	·	·	9

51) 이영학, 「담배의 사회학-조선 후기에서 일제기까지-」, 『역사비평』 12집, 역사문제연구소, 1991, 122-124쪽.

9	여자에게 음부가 둘이라며 음부 확인하기	6	2	1	·	·	9
10	상전의 말을 팔아버리기	·	1	4	3	·	8
11	따돌린 선비들을 성희롱범으로 누 명 씌우기	5	1	1	·	·	7
12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 풀 먹게 하기	·	3	2	1	·	6
13	변소 팔기	1	3	2	·	·	6
14	여자 속여서 입 맞추기	2	·	2	1	·	5
15	순라군에게 똥을 새라고 속여서 도망치기	1	1	2	·	·	4
16	외도한 부인 혼내주기	1	1	·	1	·	3

3번 <대동강(물, 논, 오리)팔기>삽화는 3인의 공통 삽화 중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선달 15편, 정만서 1편, 정평구 6편의 삽화가 각각 전승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동강(물, 논, 오리)팔기>는 김선달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앞서 김선달의 자료 현황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동강(물, 논, 오리)팔기>는 대동강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대동강의 물을 팔기’를 기본형 서사로 하여 ‘얼어붙은 대동강을 논이라고 속여 팔기’, ‘대동강의 야생 오리를 건달형 인물이 사육한 오리라며 팔기’의 이야기로 변주·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김선달이다. ‘대동강의 물을 팔기’ 12편, ‘얼어붙은 대동강을 논이라고 속여 팔기’ 3편, ‘대동강의 야생 오리를 건달형 인물이 사육한 오리라며 팔기’ 1편의 삽화가 각각 김선달에게서 전승되고 있다.

또한, <대동강 팔기>는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어 공간의 변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정만서는 서울의 한강, 정평구는 김제의 제주 방죽으로 화소가 변이되어 각각 전승되고 있다. 정만서는 1편의 삽화가 전승되고 있는데, 정만서 설화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에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음에도 서울의 한강 물을 판다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어서 다소 어색하다고 할 수 있다.

정평구는 6편의 삽화가 전승되고 있으며, <대동강 팔기>의 지역적 변이형(oico type)으로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6편의 삽화 모두 ‘대동강의 야생 오리를 사육한 오리라며 팔기’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건의 주 무대가 대동강에서 김제의 제주 방죽으로 공간이 옮겨진다. 공간의 변이를 통해 지역적 특색에 맞는 이야기로 변화되었고, 이를 통해 정평구 설화 중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번 <돼지 맞돈 내고 먹는 줄 알았다고 하기>삽화는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3인이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로, 총 15편의 삽화가 전승되고 있다. 건달형 인물이 주막집 주인에게 외상술을 요구하지만, 주막집 주인은 이를 거부한다. 그러자 건달형 인물은 심술이 발동하여 주인이 가게를 비운 사이에 주막집의 돼지들이 넣어놓은 술밥을 헤집거나, 먹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 각편에 따라서 주막집 주인이 술밥(두부)을 먹지 못하도록 돼지들을 감시해달라고 건달형 인물에게 부탁을 하거나, 건달형 인물이 일부러 돼지우리를 열어서 술밥을 헤집어 놓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주막집 주인이 이를 뒤늦게 보고서 건달형 인물을 원망하자, 건달형 인물은 외상술을 주지 않은 주막집 주인의 행동을 비꼬면서 ‘돼지는 돈을 내고 먹는 줄 알았다.’고 시치미를 댄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5번 <거짓말을 해보라고 해서 거짓말하기>삽화는 정만서, 정평구, 변인태, 3인이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며, 총 15편의 삽화가 전승되고 있다. 특히 이 삽화는 정평구 5편, 변인태 8편이 각각 전승되고 있어, 두 인물에게서 두드러지게 많은 편수가 전승되고 있다. 앞서, 전승 현황에서 <거짓말을 해보라고 해서 거짓말하기>삽화는 정평구와 변인태, 두 인물에게서 공통적으로 두 번째로 많이 채록된 자료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논(밭)에서 일하던 동네사람들은 마침 인군을 지나던 건달형 인물에게 거짓말을 해보라고 한다. 건달형 인물은 갈 길이 바쁘다며

거짓말을 해보라는 재촉에 이를 사양하자, 동네사람들은 왜 바쁘냐고 묻는다. 그러자 건달형 인물은 부자(富者) 혹은 양반이 구휼미(救恤米)를 준다고 하여 그것을 받으러 간다면서 바쁘게 움직인다. 건달형 인물의 말에 동네 사람들도 구휼미를 받으러 부자 혹은 양반에게 갔다가 그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고, 후에 건달형 인물에게 ‘왜 거짓말을 해서 낭패를 보게 하느냐’고 나무랬다. 그러자 건달형 인물은 ‘거짓말을 해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한 것 뿐’이라고 대답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각편에 따라 동네사람들은 가난한 촌의 양반으로 등장하여 양반이라는 신분을 앞세워 건달형 인물에게 거짓말해보라고 욕박을 질러, 보복하고자 구휼미를 받으러 간다는 거짓말을 한다. 그리하여 양반의 체통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도 구휼미를 받으러 간다면서 길을 나서는 양반의 모습이 희화화된다.

변인태의 경우는 지역적 특색에 따라 변이가 이루어진 삽화라 할 수 있다. 변인태의 거짓말은 ‘왜군이 쳐들어와서 봉화대에 불을 붙이러 간다’는 내용으로 변이한다. 그러므로 상대인물은 봉화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부인 혹은 무관인 강별장으로 변이가 되어 등장한다.

6번 <순라군에게 통서답이라고 외쳐 상황모면하기>삽화와 15번 <순라군에게 똥을 새라고 속여서 도망치기>삽화는 건달형 인물의 상대인물로 순라군이 등장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또한, 늦은 밤에 순라군을 만나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다는 것 역시 공통된 점이다. 순라군이 등장하는 이 삽화는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3인이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다. 6번 삽화는 늦은 밤에 순라군을 만난 건달형 인물은 벽에 붙어

양팔을 벌리고 서 있다. 그러자 순라군이 건달형 인물에게 무엇이냐고 묻자, 건달형 인물은 ‘통서답’이라고 외쳐서 위기를 모면한다는 내용이다. 정만서 4편의 삽화 중 1편은 땅바닥에 누워서 송장이라고 외쳤다는 것으로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15번 삽화는 길거리에서 변을 썩 건달형 인물이 자신을 향해 순라군이 오자, 모자로 변을 숨긴다. 그런 후 순라군에게 자신이 새를 잡아서 모자로 덮어 놓은 것이니, 새를 묶을 끈을 가지고 올 것이니 새가 날아가지 않도록 모자를 잡아 달라고 순라군에게 부탁하는 척 하며 도망가 버린다. 건달형 인물이 오지 않자, 순라군은 모자 속 새를 잡으려다가 손에 변을 묻히게 된다는 내용이다. 각편에 따라서 순라군이 일본 순사로 등장하기도 한다.

7번 <상전의 음식을 빼앗아 먹기>삽화와 10번 <상전의 말을 팔아버리기>삽화는 일명 ‘피쟁이 하인형’ 설화의 여러 삽화 중에서 서사 초·중반에 배치된 삽화들이다. 7번 삽화는 상전의 음식을 가져온 하인이 음식에 콧물이나 머릿니가 빠졌다고 거짓말을 해서, 상전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라는 내용이다. <상전의 음식을 빼앗아 먹기> 삽화는 정만서 1편, 방학중 8편, 변인태 1편의 삽화가 전승되고 있다. 정만서와 방학중은 7번 삽화가 ‘피쟁이 하인형’ 설화로 전승되고 있으며, 변인태는 단독 삽화로 전승되고 있다.

10번 삽화는 서울에 도착한 상전이 하인을 굶리려고 서울에서는 산 사람의 눈도 빠가는 곳이니 말(馬)을 잘 지키고 있으라 하며 외출을 한다. 그러자 하인은 말을 팔아 잘 먹고 놀다가 상전이 외출해서 돌아올 때에 눈을 감고 말고삐만 붙잡고 있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이 삽화는 정만서 1편, 방학중 4편, 정평구 3편이 전승되고 있다. ‘피쟁이 하인형’ 설화의 일부 삽화인 7번과 10번 삽화의 전승이 가장 활발한 인물은 방학중이며, ‘피쟁이 하인형’ 설화로 온전하게 이들 삽화가 전승되고 있는 것 역시 방학중이다.

8번 <여자에게 쌀 뜬 물 흐른다고 희롱하기>삽화는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3인의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다. 김선달 1편, 정만서 3편, 방학중 5편의 삽화가 각각 전승되고 있다. 건달형 인물은 주로 주막집 여주인으로 등장하는 상대인물이 쌀을 씻은 물을 자신이 지나가는 길 혹은 수챗구멍에 버리는 것을 보고, 주막집 주인에게 ‘그년 물도 많이 싼다.’라고 희롱을 한다. 그러자 주막집 주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건달형 인물을 향해 ‘물이 많아 벌써 아기가 나왔다.’며 건달형 인물을 무시하며 희롱해서, 오히려 건달형 인물이 여성에게 당했다는 내용이다.

9번 <여자에게 음부가 둘이라며 음부 확인하기>삽화는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3인의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다. 김선달이 총 6편의 삽화로 가장 많은 편수가 전승되고 있다. 건달형 인물은 빨래나 밭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관가에서 음부가 둘인 여자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고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여자는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엔 건달형 인물에게 음부가 둘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아랫도리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의 음담이다.

건달형 3인의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 중 그 편수가 많은 것을 위주로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위의 도표를 통해서도 확인 되듯이, 3인의 교집합으로 자주 묶여지는 공통 삽화의 건달형 인물은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3인이다. 또한, (2)항목에 분류된 공통 삽화가 가장 많은 인물은 정만서로 총 13편의 삽화이다. 그 다음으로는 방학중 11편, 김선달 10편, 정평구 6편의 삽화가 그 뒤를 잇는다. 반대로 가장 적은 편수의 공통 삽화가 분류된 인물은 총 2편의 삽화로 변인태이다.

### (3) 2인의 공통 삽화

건달형 인물 2인이 공통 삽화의 교집합을 보이는 자료이다.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정평구 4인이 모두 공통 삽화의 교집합을 자신을 제외한 1인과 삽화를 공유한다. 변인태는 공통 삽화의 교집합을 이루는 자료가 없다. 이를 정리한 사항을 아래의 도표를 통해 제시한다.

번호	공통 삽화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정평구	변인태	합계
17	떡보리 훑쳐 먹기	·	1	10	·	·	11
18	부부싸움하면서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기	·	7	3	·	·	10
19	바느질 하는 여성 희롱하기	2	·	8	·	·	10
20	검은 고를 거문고라고 하기	·	5	3	·	·	8
21	아기 잃어 우는 여자 웃기기	·	3	5	·	·	8
22	발가벗겨진 상황 모면하기	7	1	·	·	·	8
23	여자에게 속아 발가벗겨지기	6	1	·	·	·	7
24	다른 건달형 인물과 대결하기	·	3	3	·	·	6
25	꿀장수 속여 꿀 먹기	·	1	5	·	·	6
26	상전이 등에 쓴 편지 고치기	·	·	5	1	·	6
27	그저 먹으라고 해서 공짜로 음식 먹기	·	3	2	·	·	5
28	주막집 주인 자식에게 막말하고 도망가기	·	4	·	1	·	5
29	건너온 물의 깊이를 모른다고 하기	·	1	4	·	·	5
30	작두 고리로 무전취식하기	3	·	1	·	·	4
31	탄생에 관한 이야기	·	·	3	1	·	4
32	나무장수 속여서 땀감 얻기	1	·	2	·	·	3
33	조각난 벼루 전달하기	2	1	·	·	·	3

34	고발당한 사람 청탁으로 대신 관가에 잡혀가기	1	2	·	·	·	3
35	코 베어준다며 공짜 술 먹기	·	2	1	·	·	3
36	병에 걸린 척해서 벼슬 얻기	2	1	·	·	·	3
37	절름발이 속여서 자신이 살기	·	·	2	1	·	3
38	도와준다고 거짓말해서 농부에게 얻어먹기	·	2	1	·	·	3
39	닭을 봉이라고 해서 닭장수 속이기	1	1	·	·	·	2
40	담배 잎 더미 속에서 잠자기	·	1	1	·	·	2
41	여자 희롱하다가 개 취급받기	1	1	·	·	·	2
42	대추나무 팔기	1	·	1	·	·	2

위의 도표에서 건달형 인물 2인에게서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 중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갖는 삽화는 17번 <떡보리 훔쳐 먹기>삽화이다. 정만서와 방학중, 2인의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지만, 방학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수를 전승시키고 있다. 공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건달형 인물은 아이를 업고 떡 방아를 찧는 여성에게 도와준다 접근한다.
- ② 건달형 인물은 아이를 봐주면서 떡 찧는 것을 도와주며, 떡이 완성되기를 기다린다.
- ③ 건달형 인물은 떡이 다 찧어지자, 방아 고에 있는 떡은 가져가고 아이는 방아 고에 넣고 그냥 가버린다.

17번 삽화는 ‘피쟁이 하인형’ 설화의 여러 삽화 들 중에서 서사 중·후반에 해당된다. 특히 방학중에게서는 ‘피쟁이 하인형’설화 속의 삽화로써 전승되기도 하지만, 17번 삽화만을 7편이나 전승시키고 있다.

2인의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 중에서 이와 같이 ‘피쟁이 하인형’ 설화의 삽화로 분류되는 것은 위의 도표 25번 <꿀장수 속여 꿀 먹기>와 26번 <상전이 등에 쓴 편지 고치기>이다.

25번 삽화는 건달형 인물이 떡보리를 그릇모양으로 만들어 꿀장수에게 그곳에 꿀을 부어달라고 하고선, 꿀 값이 비싸다며 다시 꿀장수에게 꿀을 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결국 건달형 인물은 공짜로 떡에 꿀을 발라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삽화는 정만서와 방학중, 2인의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다.

26번 삽화는 상전이 ‘죽여라’라고 쓴 편지를 건달형 인물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딸과 혼인시켜라’라고 편지의 내용을 고친다는 이야기이다. 이 삽화는 방학중과 정평구, 2인의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다. 17번 <떡보리 훔쳐 먹기>삽화와 같이 25번 <꿀장

수 속여 꿀 먹기>, 26번 <상전이 등에 쓴 편지 고치기> 역시 방학중에게서 다수의 삽화가 전승된다.

‘피쟁이 하인형’ 설화는 ‘떠거리, 애뜩이, 막둥이’ 등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민담으로 하인과 상전의 신분 갈등 양상을 골계적으로 그려낸 이야기이다. 건달형 인물 전설에서 민담과의 유형적 복합 양상을 보이는 삽화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피쟁이 하인형’ 설화는 건달형 인물과 가장 밀착력을 갖고 활발하게 전승되는 이야기이다. 특히, 그 밀착력은 방학중과 가장 친연성을 갖고 전승되고 있다.

18번 <부부싸움하면서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기> 삽화와 19번 <바느질 하는 여성 희롱하기> 삽화로 총 10편이 전승되고 있다. 먼저, 18번의 삽화는 정만서와 방학중, 2인의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다. 가난으로 인해 건달형 인물의 집이 천장을 통해 빗물이 새서 방안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자, 부인이 잔소리를 퍼붓는다. 그러자 건달형 인물은 부인을 향해 ‘배만 있으면, 저 강을 건너서 사단을 낼 텐데...’라고 우스꽝스러운 말로 겸연쩍은 상황을 모면하였다는 내용이다.

그 다음으로 18번의 삽화는 김선달과 방학중, 2인의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다. 건달형 인물은 동행자들에게 바느질하고 있는 여성과 오입을 하고 오면 술과 음식을 실컷 사주겠다고 제안을 한다. 그리하여 건달형 인물은 여성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고향에서는 바늘을 ‘썩시개’, 방석은 ‘하던 방석’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나눈 후, 바늘을 방석 밑에 숨겨두고 동행자들을 향해 온다. 여성은 바늘을 찾아도 없자, 건달형 인물을 불러 바늘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어도 알아 듣지 못하니, ‘썩시개는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건달형 인물은 알아 듣는 척 하며 ‘하던 방석 밑에 있다’고 대답하여 동행자들과 여성을 속인다는 내용이다.

20번 <검은 고를 거문고라고 하기> 삽화, 21번 <아기 잃어 우는 여자 웃기기> 삽화와 22번 <발가벗겨진 상황 모면하기> 삽화가 각각 총 8편이 전승되고 있다. 20번 삽화와 21번 삽화는 정만서와 방학중, 2인의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며, 22번 삽화는 김선달과 정만서, 2인의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다. 20번 삽화는 건달형 인물이 기생에게 좋은 거문고를 가져다 준다면, 기생에게 돈을 받아 놓고서는 약속한 날짜에 거문고가 아니라 검은 고를 가져다 주었다는 내용의 언어 유희담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21번 삽화는 아들의 무덤에서 우는 여성을 웃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로 각편에 따라서 여성의 죽은 아들이 삼대독자 외동으로 표현되기도 하여 그녀의 슬픔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달형 인물은 슬픔에 잠긴 여성 옆에서 자신이 낳은 촌충이 죽어 슬프다며 대성통곡을 한다. 이를 본 여성이 황당해서 울음을 그치고 웃었다는 내용이다.

22번 삽화는 23번 <여자에게 속아 발가벗겨지기> 삽화와 함께 살펴볼 것이다. 23번 삽화는 총 7편이 전승되고 있으며, 22번 삽화와 함께 김선달과 정만서, 2인의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다. 22번 <발가벗겨진 상황 모면하기> 삽화와 23번 <여자에게 속아 발가벗겨지기> 삽화는 단독 삽화로 전승이 되기도 하고, 두 삽화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

결되어 전승되기도 한다. 두 삽화가 연결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통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건달형 인물은 여성에게 속아 발가벗겨진 상태로 쫓겨난다.
- ② 건달형 인물은 발가벗겨진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속임수를 계획한다.
- ③ 건달형 인물에게 속임을 당한 상대인물은 건달형 인물에게 옷과 여비를 준다.

①단락은 23번 <여자에게 속아 발가벗겨지기> 삽화에 해당된다. 건달형 인물을 속이는 상대인물로 기생, 여자 건달, 아낙네가 등장한다. 속임수의 방법은 상대 인물에 따라 달라진다. 기생과 여자 건달은 건달형 인물을 유혹해 집으로 끌어들여 발가벗겨버리고, 아낙네는 우물에서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반지를 찾아달라는 거짓부탁으로 건달형 인물의 옷을 벗긴다. 그리하여 기생은 기동서방이 왔다고 건달형 인물을 급히 집 밖으로 쫓아버리고, 아낙네는 우물가에 벗어놓은 건달형 인물의 옷을 모두 가지고 도망쳐 버린다. 22번 삽화에 해당되는 ①단락은 단독 삽화로는 전승되고 있지 않다. 단지, ①단락은 다음 서사로 이끄는 추동력의 역할을 할뿐이다.

②단락은 22번 <발가벗겨진 상황 모면하기> 삽화에 해당된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건달형 인물의 속임수가 나타난다. 그 속임수는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기생 혹은 여자 건달에게 속은 건달형 인물의 경우 ②-1, ②-2로 속임수 계획이 두 가지 이야기로 나뉜다. ②-1단락은 건달형 인물이 죽은 사람인 척 누워서, 순라군 혹은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약이 된다며 건달형 인물의 낭심을 자르려 하자, 아버지의 낭심을 자른 범인을 찾았다면서 소란을 피운다. ②-2단락은 건달형 인물이 하인을 추행하려는 상전의 행위에 약점을 삼는다. 그 다음으로 아낙에게 속임을 당한 건달형 인물은 ②-3단락에서 우물가에 온 다른 여성을 상대로 화가 난 용왕신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리하여 ③단락에서 건달형 인물에게 속은 상대인물들은 모두 건달형 인물에게 옷과 돈, 음식을 준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22번 삽화에 해당되는 ②단락은 단독 삽화만으로도 그 이야기가 전승된다. 또한, ①과 ②단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각편이라도 ①단락인 23번 삽화는 그 내용을 짧게 처리해 버린다.

24번 <다른 건달형 인물과 대결하기> 삽화는 다른 건달형 인물과 대결하는 내용으로 정만서와 방학중, 2인의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다. 그 대결은 ‘허풍을 떨기’, ‘담배 연어 피우기’, ‘건너온 물의 깊이 물어보기’이다. 특히 이 삽화에서 방학중은 정만서와의 대결이 주를 이루지만, 정만서의 경우는 백운학, 영천 거짓말쟁이 등 다양한 건달형 인물들과 겨루기를 한다는 점이 방학중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7번 ~29번 삽화까지는 각각 총 5편씩 전승된다. 먼저, 27번 <그저 먹으라고 해서 공짜로 음식 먹기> 삽화는 정만서와 방학중, 2인이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다. 이 삽화는 언어유희담에 속하는 이야기로, 공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달형 인물은 꽃감(수박,떡) 장수에게 '이것이 무엇이나', '어떻게 먹는 것이나' 등을 묻는다.

② 상인은 '그저 먹으면 된다'라고 대답한다.

③ 건달형 인물은 꽃감(수박,떡)을 먹고 그냥 가려하자, 꽃감 장수가 '돈을 내라'고 한다.

④ 건달형 인물은 '그저 먹으라고 해놓고 돈을 달라고 한다'며 그냥 가버린다.

28번 <주막집 주인 자식에게 막말하고 도망가기> 삽화는 정만서와 정평구, 2인이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다. 정만서 4편, 정평구 1편이 전승되고 있어, 정만서에게 더 많은 삽화가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달형 인물은 주막집에서 유숙을 하며 음식을 먹은 후, 주막집 주인의 딸에게 일부로 성희롱을 하여 주막집 주인의 화를 돋운다. 화가 난 주막집 주인이 건달형 인물을 혼내려고 달려들자, 건달형 인물은 주인을 피해 주막집에서 멀리 도망쳐 버림으로써 공짜 음식과 유숙을 하는 것에 성공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29번 <건너온 물의 깊이를 모른다고 하기> 삽화는 정만서와 방학중, 2인의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이다. 강을 건넌 건달형 인물에게 상대인물은 물의 깊이를 물어 본다. 건달형 인물은 '자신이 건너온 물은 벌써 밑으로 내려갔으니, 물의 깊이를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내용이다.

2인의 건달형 인물에게서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들 중 그 편수가 많은 것을 위주로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위의 도표에서도 확인되듯이, 공통 삽화의 교집합을 많이 공유하는 2인의 건달형 인물은 정만서와 방학중이다. 정만서와 방학중이 교집합을 이루는 공통 삽화는 11편이다. 그 다음으로는 김선달과 정만서이다. 이들의 교집합의 공통 삽화는 7편이다. 또한, (3)항목에 분류된 공통 삽화가 가장 많은 인물 정만서로 총 19편에 해당된다. 그 뒤로 방학중 16편, 김선달 총 10편, 정평구 총 4편이다. 단 한편의 공통 삽화도 분류되지 않은 인물은 변인태이다.

이상으로 건달형 인물들의 삽화 중 교집합을 보이는 공통 삽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공통 삽화의 교집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물은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이다. 그 중에서 정만서와 방학중은 공통 삽화의 교집합을 이루는 자료들이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것은 김선달과 정만서이다. 정평구는 김선달의 <대동강(물,논,오리)팔기> 삽화와 친연성 속에서 형성된 이야기가 도드라져 보인다. 그러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정평구는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에 비해 공통 삽화의 편수가 적은 편이지만, 모든 항목에서 다른 건달형 인물과 공통 삽화의 교집합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변인태는 자료의 편수가 적다는 점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공통 삽화의 편수가 얼마되지 않는다. 3인의 건달형 인물과 교집합의 공통 삽화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공통 삽화 역시 <거짓말을 해보라고 해서 거짓말하기> 삽화에 편중되어 있다.

## 2) 건달형 인물별 단독 삽화

단독 삽화는 건달형 인물 1인에게서만 전승되고 있는 삽화로 앞서 제시한 공통 삽화는 제외된다. 단독 삽화를 통해 건달형 인물별로의 개성적인 전승 양상과 성격을 도출할 수 있으며, 전승 과정에서 건달형 인물의 삽화가 민담화되는 양상 등을 함께 제시한다.

각 인물별로 삽화의 편수가 많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도표를 통해 제시한다.

### (1) 김선달 단독 삽화

김선달의 단독 삽화는 총 33편이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단독 삽화	각편 수
1	선 팔죽 팔기	4
2	객주집에서 다른 사람 행세하며 공짜 음식 먹기	3
3	맹인 잔치해서 돈 벌기	3
4	시주 받아 오는 중을 속여서 돈 빼앗기	2
5	중에게 똥을 싸서 골탕 먹이기	2
6	중을 속여 힘내기에서 이기기	2
7	동물에게 거짓 병을 주고 고쳐주는 척 하기	2
8	장님을 속여서 계란먹기	1
9	장님 속여서 곡식 망치기	1
10	장님 업고 재자리로 오기	1
11	양반인 척하며 일행들과 공짜 음식 먹기	1
12	아기 자는 이불에 똥 싸기	1
13	양반에게 방상시 시켜서 돈 벌기	1
14	중을 성적으로 모함하여 돈 빼앗기	1
15	장님의 음식 몰래 빼앗아 먹기	1
16	구경거리가 있는 척 속여서 돈 벌기	1
17	기생과 계획하여 서울 대감을 사기 치기	1
18	권세부리는 서울 대감 골탕 먹이기	1
19	개울을 건너려는 양반에게 돈 뺏기	1

20	시아버지에게 누명 씌워서 돈 빼앗기	1
21	과부의 애인 내쫓기	1
22	죽은 시체를 이용하여 과부에게서 돈 빼기	1
23	과부의 말을 소문내겠다며 협박해서 오입하기	1
24	돈 빌리고서는 죽은 척 하기	1
25	글자 풀이해서 선비 도와주기	1
26	적절한 사람에게 보은 받아 벼슬 얻기	1
27	붕이 김선달의 시	1
28	속곳 맡기고 상복 달라고 우기기	1
29	노부부 희롱하다가 따귀 맞기	1
30	흉경래인 척해서 평양부자들의 돈 빼기	1
31	집을 불태우누 재를 거름이라고 팔기	1
32	가난한 신세를 이용하여 선비에게 얻어먹기	1
33	사돈의 밥그릇 바꿔치기	1

김선달의 단독 삽화는 다른 건달형 인물들보다 많은 편수를 차지한다. 단독 삽화는 건달형 인물로써의 유형적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김선달의 공통 삽화들과도 이질적이지 않다. 이들 단독 삽화 중에서 편수가 많은 삽화부터해서 대표적 사례가 될 만한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겠다.

1번 <신 팔죽 팔기>삽화는 <대동강(물,논,오리)팔기>삽화와 함께 김선달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신 팔죽을 초를 친 팔죽이라며 판매했다는 내용으로 4편의 단독 삽화가 전승되고 있으며, 다른 건달형 인물들에게서는 전승되고 있지 않다.

2번 <객주집에서 다른 사람 행세하며 공짜 음식 먹기>삽화와 3번 <맹인 잔치해서 돈 벌기>삽화는 각각 3편씩의 단독 삽화가 전승되고 있다. 2번 삽화의 공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김선달은 같은 방을 쓰는 중 혹은 지체 높은 사람의 몰인정, 무례함에 보복하고자 속임수를 계책한다.

② 김선달은 늦은 밤에 몰래 나와서 중 혹은 지체 높은 사람인 척 행동하며 술집에서 술과 고기를 먹은 후 다음 날에 돈을 받으러 객주집으로 오라고 한다.

③ 술집주인이 중 혹은 지체 높은 사람에게 전날 먹은 음식값을 받으려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먹은 것이 아니라고 거부한다.

④ 그때 김선달은 음식값을 내지 않는다며, 중 혹은 지체 높은 사람을 뺨을 때린다.

3번 <맹인 잔치해서 돈 벌기>삽화는 김선달이 맹인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초대한다. 김선달은 맹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집이라며 앉혀 놓고, 못 먹는 식자재로 음식 냄새만 풍긴다. 결국에 김선달은 맹인들이 싸우도록 유도하여, 그들의 싸움으로 인해 오두막이 쓰러져버리게 만든다. 김선달은 맹인들에게 자신의 집이 부서졌다고 통곡을 하자, 맹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집값에 해당되는 돈을 주었다는 내용이다.

단독 삽화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난 점은 김선달에게 속임을 당하는 상대인물들이 상인이나 장사치를 비롯해 중, 맹인, 노부부 등의 등장인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13, 17, 18번 삽화와 같이 골계성이 드러나는 이야기들도 존재하지만 방학중, 정평구, 변인태에 비해 김선달 삽화들은 해학성이 좀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많은 편에 속한다.

## (2) 정만서 단독 삽화

정만서의 단독 삽화는 20편이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단독 삽화	각편 수
1	거짓 장례로 부조금 받기	4
2	아들 죽었다는 말에 엉뚱한 말하기	3
3	인경을 치게 만들어 골탕 먹이기	3
4	자신을 놀리려는 원님 골리기	3
5	그냥 가라고 해서 술값을 안 내고 가기	2
6	쌍둥이인 척해서 밀장수 속이기	2
7	자신이 죽었다는 말 혹은 아픈 처지에 대해 말장난하기	2
8	수박 놓으라고 해서 놓기	1
9	병어리 행세하여 여자들 놀라게 해서 음식 얻어먹기	1
10	장님인 척해서 목욕하는 여자 희롱하기	1
11	암캐 잡은 썸 치라며 개고기 공짜로 먹기	1
12	개장국 만드는 비법 알려준다는 거짓말로 공짜 음식 먹기	1
13	복어국 먹고 죽은 척하며 음식점 주인에게 돈 뺏기	1

14	자신을 욕한 붓장수에게 보복하기	1
15	모르는 무리 속에서 공짜 음식 먹고 도주하기	1
16	높은 사람에게 도라지를 산삼이라고 속이기	1
17	임금의 관을 훔쳐보라는 임금을 골리기	1
18	양반은 사람이 아냐	1
19	아들 부부에게 말장난하기	1
20	사방 가는 길이다	1

정만서의 단독 삽화는 유형적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민담과의 복합양상을 보이는 삽화들이 존재한다. 단독 삽화 중 편수가 많은 것부터 대표적 사례가 될 만한 것들과 복합양상을 보이는 삽화들도 함께 살펴보겠다.

1번 <거짓 장례로 부조금 받기>삽화는 4편이 전승되고 있으며, 정만서의 단독 삽화 중 그 편수가 가장 많다. 정만서는 자신이 죽었다고 하거나 혹은 각편에 따라 부인이 죽었다고 하여 거짓 장례를 치러 마을 사람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조금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2번 <아들이 죽었다는 말에 엉뚱한 말하기>삽화, 3번 <인경을 치게 만들어 골탕 먹이기>삽화와 4번 <자기 놀리려는 원님 골리기>삽화는 각각 3편이 전승되고 있는 단독 삽화들이다.

먼저, 2번 <아들이 죽었다는 말에 엉뚱한 말하기>삽화는 상대인물이 정만서에게 ‘범이가 죽으려고 한다’라고 하자, 정만서는 ‘어느 포수가 왜 범을 잡으려 하느냐’고 대답했다는 내용이다.

3번 <인경을 치게 만들어 골탕 먹이기>삽화는 언어유희담에 속하는 이야기로 공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상대인물은 정만서에게 인경(人定)을 치게 만들면 술을 한 잔 사겠다고 한다.
- ② 정만서는 인경직이 있는 곳을 지나면서 ‘인경 쳐라, 인경 쳐라’라고 소리를 치자, 인경직은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인경을 친다.
- ③ 동헌의 수령이 ‘왜 인경을 쳤느냐고’ 혼을 내자, 인경직은 인경을 치라고 해서 쳤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 ④ 관가에 잡혀 온 정만서에게 ‘왜 인경을 치라고 했느냐’고 추궁을 하자, 자신은 인경을 치라고 하지 않았으며 아들을 찾으려고 ‘인경철아, 인경철아’라고 아들의 이름을 부른 것뿐이라고 대답한다.

4번 <자신을 놀리려는 원님 골리기>삽화는 정만서가 아전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로, 세

편의 각기 다른 내용의 삽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편) ① 원님은 새벽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는 정만서의 도포 자락이 문틈에 낀 것을 골리려고, 정만서를 향해 ‘꼬리가 끼었다고 한다.

② 그러자 정만서는 ‘마구간의 문이 좁아서 끼었다’라고 되받아 친다.

각편) ① 원님은 조화에 정만서가 늦자, 다른 아전들에게 정만서가 오면 불을 때리라고 시킨다.

② 뒤늦게 온 정만서의 불을 옆자리의 아전이 때린다.

③ 그러자 정만서는 원님 쪽에 앉은 다른 옆자리의 아전의 뺨을 때리며, 줄뺨을 때리라고 시킨다.

각편) ① 원님은 정만서가 오면 아전들에게 몸을 꿈틀거리며 달걀을 낳은 것과 같이 행동하라고 시킨다.

② 아전들은 정만서가 들어오자 원님이 시키는대로 하였고, 이를 본 정만서는 무릎을 딱 치며 ‘꼬꼬’라고 소리를 낸 후 자신은 ‘장닭’이라고 말한다.

위의 세 편의 삽화는 상전이나 원님을 골탕 먹이는 낮은 신분의 인물이 등장하는 일련의 민담과 맥을 달고 있는 이야기이다. 다른 건달형 인물도 민담과 결합되어 유형적 복합 양상을 드러내는 삽화들이 존재한다. 김선달의 단독 삽화 중 맹인이 등장하는 일부 삽화들도 이러한 경향에 속하며, 방학중과 정평구의 단독 삽화들에서도 이러한 양상들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민담과의 결합 양상은 무엇보다도 건달형 인물과 밀착력을 갖고 전승되어 이야기 목록을 풍성하게 만드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이들 유형적 복합 양상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자신을 놀리려는 원님 골리기>삽화는 한 명의 구연자에게서만 세 편이 채록되고 있어서, 구연자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이례적 사항이 아닌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삽화를 제외한 다른 삽화들에서 정만서는 아전과 같은 중인 계급으로 형상화되고 있지 않다. 삽화 속 정만서는 대부분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반면, 위의 삽화에서는 예외적으로 아전 신분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17번 <임금의 관을 훔쳐보라는 임금을 골리기>삽화 역시 유형적 복합 양상이 나타난다. 임금과의 내기에서 정만서가 임금의 관을 훔치는 일에 성공하여 임금이 정만서에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없는 곳에서 훔쳐먹지 말고, 먹고 남는 곳에 가서 훔쳐 먹고 살아라’라고 그의 행동 양식을 지시·규정해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 삽화는 정만서가 남다른 인물이라는 점과 기득권을 상대로 속임수를 계획하는 소영웅적 인물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건달형 인물 전설은 골계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지배 계층을 집중적 대상으로 삼

지 않는다. 건달형 인물과 갈등을 맺는 상대인물은 인간적 욕망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상적 인물들이다. 그들과의 갈등과 대결 역시 일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일상에서 있을 법한 재치와 꾀로 속임수를 계책한다. 그러나 17번 삽화의 상대인물은 비밀상적 존재에 가까운 인물이며,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 역시 비밀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민담적 세계관을 질게 드러내고 있다.

4번과 17번 삽화는 민담과의 복합 양상을 나타내는 이야기들로, 두 이야기 모두 한 제보자에게서 채록된 이야기로 구연자 개인의 독자적 창작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개별 삽화들의 유형적 복합의 원인은 전승력이 소멸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만서 전설의 본래 면모는 잊어지고 인물의 성격과 특성의 일부 분만을 기억하여, 유사한 성격의 민담을 끌어와 이야기를 직조한 것이다. 이러한 복합 양상은 정만서 전설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물의 특성이 희석되어 본래적 재미를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

복합 유형 양상의 두 삽화를 제외한 정만서의 개별 삽화 18편은 전형적인 건달형 인물 이야기로 유형적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는 삽화들이다. 정만서의 다른 공통 삽화들과도 역시 이질적이지 않다.

### (3) 방학중 단독 삽화

방학중의 단독 삽화는 18편이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단독 삽화	각편 수
1	겨울에 삼베옷 입기	6
2	꿀떡보리 탐내는 인물 망하게 하기	5
3	집에 청룡황룡 그림이 있다고 속이기	5
4	죽이려는 상전을 물에 빠뜨려 죽이기	3
5	똥을 작대기로 치기	3
6	웃이오, 잣이오	2
7	용꿈을 꿴다며 기생과 동침하기	2
8	비단가게 주인 속이기	2
9	사돈을 훑리려다가 당하기	2
10	종이 두 권 준다며 음식 얻어먹기	1
11	상가집에서 공짜 술 얻어먹기	1
12	성기에 불을 붙여달라고 하기	1

13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복수하기	1
14	묘지에 말뚝 박고 오라고 시키기	1
15	똥을 먹고 산다고해서 얻어먹기	1
16	속곳을 도복이라고 하기	1
17	새끼 서발로 혼인하기	1
18	조밥으로 제사 지내기	1

방학중 자료는 II-1에서 확인했듯이 총 113편이었으며, 다른 건달형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학중의 단독 삽화는 18편만이 정리되고 있어서, 건달형 인물들 중에서 단독 삽화의 비율이 가장 적은 인물이 방학중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방학중 삽화들은 대부분 유형화된 건달형 삽화들로 이루어진 셈이다.

방학중의 단독 삽화 역시 그 편수가 많은 것을 위주로 해서 살펴볼 것이며, 아울러 민담과의 복합양상이 드러나는 삽화들도 있어 그 양상들도 함께 살펴보겠다.

방학중의 단독 삽화 중에서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1번 <겨울에 삼베옷 입기>삽화로 6편이 전승된다. 방학중은 겨울에는 추운 바람이 옷 속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삼베옷을 입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에 옷 속에 머무르라고 솜옷을 입는다는 내용이다.

2번 <꿀떡보리 탐내는 인물 망하게 하기>삽화는 상대인물이 방학중이 나눠준 꿀떡보리를 먹은 후 꿀떡보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방학중은 상대인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솥에 넣고 끓이면 된다고 알려 준다는 내용이다. 방학중의 상대인물로는 중, 상주(喪主), 옹기장수가 등장하는데, 방학중은 그들에게 절의 부처상, 상복과 지팡이, 옹기들을 부셔서 꿀떡보리를 만들라고 한다. 이 삽화는 단일 삽화로 존재하지 않으며, 앞서 2-(3)의 17번 <떡보리 훔쳐 먹기>삽화와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로 전승된다.

3번 <집에 청룡황룡 그림이 있다고 속이기>삽화는 방학중은 집에 비가 새서 벽에 얼룩덜룩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자신의 집에 '청룡 황룡이 그려져 있다'고 말한다는 내용이다. 각편에 따라 '청룡 황룡이 그려져 있다'는 이 말로 기생이나 여성들을 꼬셔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는 내용도 있다.

4번 <죽이려는 상전을 물에 빠뜨려 주기>삽화는 방학중을 죽이려고 한 상전에게 용왕 구경하도 하고 재물도 얻었다고 거짓말에 상전이 욕심을 내자, 용왕 구경시켜 준다면 상전과 그의 가족들을 물속에 수장시킨다는 내용이다. 이 삽화는 '괴쟁이 하인형' 설화의 여러 삽화 중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 삽화이다.

5번 <똥을 잣대기로 치기>삽화는 언어유희적 측면을 갖는 이야기이다. 공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방학중은 대변이 급해서 똥자리 장수에게 숨겨달라고 거짓말로 부탁하여 똥자리 속에서 대변을 썬다.
- ② 화가 난 똥자리 장수는 '대변을 치라'라고 하자, 방학중은 잣대기로 대변을 슬쩍슬쩍 친다.

방학중의 단일 삽화 중 전승 편수가 많은 것을 위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단일 삽화들은 건달형 인물 전설의 유형적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방학중의 공통 삽화들과도 이질적이지 않다. 다만, 민담과의 유형적 복합 양상을 보이는 이야기가 있다. 위의 표 17번 <새끼 서발로 혼인하기>삽화는 <새끼 서발>유형의 설화로 이야기 속 주인공이 방학중으로만 변이되었을 뿐, 이야기는 같다. 이 이야기는 한 구연자에게 채록된 것으로 구연자 한 개인의 독자적 창작물이라 할 수 있다.

#### (4) 정평구 단독 삽화

정평구의 단독 삽화는 총 7편이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단독 삽화	정평구
1	폭탄을 보물이라고 속여서 왜군 죽이기	4
2	가난한 친구의 조상 똥자리 마련해주기	2
3	왜군의 진(陣)에 맨 몸으로 침입하기	1
4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뺨 때리기	1
5	제사상 정성 부족하다고 혼낸 혼령	1
6	주인 있는 돼지 팔기	1
7	다른 사람의 밥을 빼앗아 먹기	1
8	아버지에게 혼나기 싫은 정평구	1

정평구의 단독 삽화는 유형화된 건달형 삽화라고 볼 수 없는 자료들이 많다. 위의 도표에서 1-5번 삽화까지가 건달형 삽화라 볼 수 없으며, 전승 지역에서 정평구의 실제적 행적에 설화적 상상력이 첨가된 삽화들이라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나머지 6과 7삽화는 유형화된 건달형 삽화이다. 정평구의 단독 삽화는 1-5번 삽화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양상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1번 <폭탄을 보물이라고 속여서 오랑캐 죽이기>삽화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왜군을

물리치는 정평구의 활약이 담긴 삽화이다. 공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평구는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수십 개의 상자를 만들어 무주로 간다.
- ② 정평구는 왜군이 오는 길목에 비단 보자를 찢은 상자들과 금가락지 두어 개를 함께 놓아 둔다.
- ③ 왜군은 길에 놓은 상자가 보물 상자인 줄 알고 앞 다투어 상자를 열었는데, 그 속에서 벌들이 나와 벌에 쏘인 왜군들 다치고 죽은 자가 많았다.
- ④ 진평구는 다시 지름길로 앞서 가서 왜군들이 오는 좁은 골짜기 작은 길에 다시 상자들을 늘어 놓았다.
- ⑤ 왜군들은 작은 길에 놓은 상자들이 벌통이라고 판단하여 불을 질러버렸는데, 그 상자에는 화약이 가득 들어있었으므로 폭탄이 터져서 왜군은 몰살하고 만다.

건달형 인물전설은 조선 후기의 발랄한 시정(市井)적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한다면, 1번 삽화는 이야기 형성에 있어서 그 시대적 배경이 상당히 다르다. <폭탄을 보물이라고 속여서 오랑캐 죽이기>삽화는 실제 정평구의 역사적 행적과 연계 속에서 형성된 이야기라 판단된다. 이후에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2번 <가난한 친구 밋자리 마련해주기>삽화는 청렴하고 바른 선비 친구를 돕기 위해 명당을 마련해 준다는 내용으로 공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평구는 행실이 바른 가난한 선비를 위해 풍수지리가 밝은 도사에게 명당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다.
- ② 도사는 당산이 명당이라고 알려주며, 정평구의 수단이 궁금해 한다. 정평구는 당산을 밋자리를 마련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한다.
- ③ 정평구는 선비와 의논하여 당산에 봉분을 만들지 않고 암장을 하고선, 서울 어느 대감이 마을 당산이 명당이라 장사(葬事)를 지내려 한다는 소문을 낸다.
- ④ 마을 촌로들은 정평구에게 찾아가서 묘안을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 ⑤ 정평구는 마을 촌로들에게 거짓 봉분을 지으면, 아무리 고관대작이라도 남의 묘를 허물고 자신의 묘를 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 ⑥ 그리하여 촌로들은 정평구가 암장한 묘위에다가 봉분을 크게 쌓아 놓는다.
- ⑦ 결국 정평구는 선비의 명당도 마련해주고, 돈도 들지 않고 봉분까지 멋지게 만들었다.

3번 <왜군의 진(陣)에 맨 몸으로 침입하기>삽화는 단독 삽화로 전승되지 않고 1번 <오랑캐를 혼낸 정평구>삽화와 함께 전승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쟁이 발생했음에도 정평구가 신분이 미천하다하여 군대에 넣어 주지 않는다.
- ② 왜군이 진(陣)을 치면서 노략질이 심해졌다.
- ③ 정평구는 왜군의 진으로 들어가서, 도술로써 그들을 농락하다가 진문(陳門)에 오줌을 싸

고 도망간다.

④ 왜군은 도사가 자신의 자지만도 못하다고 비웃으려고 자신들의 진(陳)에 오줌을 싼 것이 라며, 그 패기에 놀려 진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 삽화는 1번 삽화 앞부분에 배치되어 왜군들이 다른 진(陳)을 찾기 위해 이동하도록 유도하여, 이후에 정평구가 상자를 이용하여 왜군을 섬멸한다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역할을 한다.

4번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뺨 때리기>삽화는 임진왜란 때 정평구가 중앙청에 올라 가서 삼일 만에 전쟁을 평정할 수 있으니, 관직을 달라는 말에 대감은 ‘너는 쌍놈이다’ 라고 하며 뺨을 때렸다. 그러자 정평구는 ‘줄뺨이로구나’라고 외치며 대감의 뺨을 때렸다는 내용이다. 이 삽화 역시 1번 삽화 함께 정평구의 실제 역사적 행적과 연관된 이야기로 이후에 자세히 논의한다.

5번 <제사상 정성 부족하다고 혼낸 혼령 정평구>삽화는 <제사상 차린 정성 부족하다고 해 끼친 혼령>유형에 속하는 내용으로 유형적 복합 양상의 이야기이다. 5번 삽화는 민담과의 복합 양상으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다른 삽화들과 함께 상당히 이질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한 개인의 독자적 창작물이라고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이 삽화를 둘러싼 전승 지역과 그 의미를 살펴 볼 여지가 존재한다.

8번 <아버지에게 혼나기 싫은 정평구>삽화는 새롭게 채록된 자료이다. 아버지에게 혼이 나기 싫은 정평구가 자신을 혼을 내려고 따라오는 아버지를 향해 땅을 선을 긋고, 이 선을 넘어보면 자신의 아들라고 엉뚱한 말로 위기를 모면해보려 했다는 정평구 이야기이다.

### (5) 변인태 단독 삽화

변인태의 단독 삽화는 총 9편이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단독 삽화	각편 수
1	봉화불에 고기 굽기	11
2	조방장의 음식 빼앗아 먹기	6
3	조방장이 ‘뺨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모르는 척 하기	5
4	조방장의 부인과 오입하기	5
5	짚신의 크기 똑같이 만들기	2
6	상전에게 쇠방석이 뜨겁다고 하기	2
7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 요구하는 상전을 혼계하기	1

8	원님의 순력을 나무라기	1
9	성주를 속여서 절 받기	1

변인태는 자료의 편수가 가장 적었음에도 다른 건달형 인물들에 비해 단독 삽화가 많은 편이다. 변인태의 공통 삽화는 <거짓말을 해보라고 해서 거짓말하기>와 <상전의 음식 빼앗아 먹기>삽화 총 2편만이 존재한다. 변인태의 삽화는 다른 건달형 인물과의 교집합을 이루는 삽화보다는 차집합을 보이는 삽화가 대다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변인태의 단독 삽화는 2편 이상의 편수를 보유한 삽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도표 1번 <봉화불에 고기 굽기>삽화는 변인태의 단독 삽화 중에서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이다. 11편이나 전승되고 있어서 변인태의 대표적 이야기라고 할 만하다. 공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변인태는 조방장의 반찬으로 고기를 일부러 까맣게 태워서 가져간다.
- ② 조방장은 고기가 너무 타서 먹을 수가 없다면서, 다음부터 고기는 불에서 멀리 구우라고 시킨다.
- ③ 저녁에 변인태는 고기를 양손을 들고 멀리 봉화불을 향해 서 있다.
- ④ 조방장이 '무엇을 하느냐'문자, 변인태는 '고기를 먼 불에서 구우라고 해서, 봉화불에 고기를 굽고 있다'고 대답한다.

2번 <조방장의 음식 빼앗아 먹기>삽화는 1번 삽화와 같이 조방장의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내용의 이야기로 공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조방장은 변인태에게 닭을 삶아서 고스란히 가져오라고 한다.
- ② 변인태는 닭의 배를 살짝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 낸 후 쌀을 넣어서 삶는다.
- ③ 조방장은 삶은 닭을 아무리보아도 배에서 내장을 꺼낸 흔적이 없자, 변인태에게 '닭을 어떻게 삶았냐'고 묻는다.
- ④ 변인태는 '고스란히 삶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자, 조방장은 내장을 꺼내지 않고 삶은 줄 알고 '너나 먹으라'라고 하면서 닭을 변인태에게 쥐버린다.

3번 <조방장이 '씹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모르는 척 하기>삽화와 4번 <조방장의 부인과 오입하기>삽화를 함께 정리한다. 이들 두 삽화는 연결되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조방장은 부인의 길잡이로 변인태를 삼으려고, 변인태를 불러 '씹을 아느냐'고 묻는다.
- ② 변인태는 일부러 '그것이 무엇이냐' 물으며 눈과 코를 가리키며 그것이 씹이냐고 묻는다.

③ 조방장은 안심하고 부인을 목안에 있는 집까지 길 안내꾼을 하라며 변인태와 부인을 함께 보낸다.

④ 변인태는 일부러 한라산을 넘을 때 시간을 끌어서 산 속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변인태는 부인을 은근히 유혹하여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된다.

⑤ 변인태는 조방장에게 말해야 하지 않느냐고 일부러 바보스럽게 행동하자, 부인은 비단과 돈을 주면서 변인태의 입을 막으려 한다.

3번 삽화는 ①과 ②에 해당된다. 이 삽화의 백미는 ‘씹을 모른다’는 변인태가 눈과 콧구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능청을 부리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조방장은 어리석게 변인태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부인의 길잡이로 변인태를 함께 보낸다. 그리하여 4번 삽화는 ③~⑤에 해당된다. 각편에 따라 변인태가 짐승 소리를 내는 등 조방장의 부인을 유혹하려는 여러 수단과 방법들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5번 <짚신의 크기 똑같이 만들기>삽화는 제주 목사가 제주도를 순력(巡歷)을 할 때, 변인태는 순력에 따르는 사람들의 짚신을 만들어서 교체해 주는 역할 맡았다. 그런데, 변인태는 여러 사람들의 발 크기에 모두 맞춰서 짚신을 만들기가 힘들어 짚신의 크기를 모두 똑같이 만들어버렸다는 내용이다.

6번 <상전에게 쇠방석이 뜨겁다고 하기>삽화의 공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목사가 정방폭포를 구경할 때, 쇠방석을 미리 따뜻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② 그런데 따뜻한 쇠방석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가 도착하자, 변인태는 쇠방석이 너무 뜨거워서 식힌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한다.

③ 변인태는 급히 쇠방석을 데워서 목사에게 가져간다.

이상으로 변인태의 단독 삽화들은 건달형 인물전설의 유형적 특징과 다소 거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건달형 인물전설의 주된 공간적 배경은 저자거리나 길 위에서 낯선 사람 혹은 동행인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내용이다. 또한, 풍자나 골계적 대상이 다양한 인물군상이 등장한다. 그러나 변인태의 단독 삽화에서 변인태는 관에 소속된 인물로 공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며, 풍자와 골계적 대상으로 목사나 조방장 등 특정계층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후 Ⅲ장에서 변인태가 건달형 인물전설로써의 유형적 동질성에 관한 논의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다. 이 장에서는 개별 삽화에서 드러나는 변인태의 단독적인 성격만을 정리한다.

### Ⅲ. 건달형 인물전설의 개성과 전승 지역의 특징

앞 장에서는 건달형 인물인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정평구, 변인태의 전승 지역과 삽화별 분류를 통해 자료들의 종합적·개별적인 검토를 했다. 그 결과 건달형 인물전설은 두 가지의 개성적인 전승 양상이 드러났다. 하나는 뚜렷한 전승 지역을 구심점으로 건달형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전승 삽화들은 유형적 동질성을 갖으나, 삽화별로 건달형 인물들의 개성적 면모를 드러낼 만한 전승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본장은 다섯 명의 건달형 인물들의 개성적 면모를 각각의 전승되어 온 지역적 특징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평양: 도외지의 사기꾼- 김선달

김선달은 건달형 인물들 중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인물이다. 그러나 대중적 인지도에 비해 실제적인 연구 대상으로 논의한 축적된 결과는 미흡하다. 또한, 김선달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지라도 유형적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건달형 인물로써의 보편적 성격을 논의한 것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김선달의 개성적 면모를 포착하고자 한 논의는 단편적으로나마 존재한다. 가장 먼저 김선달을 언급한 인물은 해양어부이다. 해양어부는 일제 강점기에 출판된 재담집 『영터리들』<sup>52)</sup>의 저자이다. 책의 마지막 장에 “중양절국화켓테서 해양어부 귀록”<sup>53)</sup>이라는 표현이 있어, 해양어부는 필명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해양어부는 『영터리들』의 서문에 김봉이(김선달)와 정만쇠(정만서)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두 인물은 ‘거짓말 같은 참일’을 하는 일물로, 다른 점이 발견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김봉이의일은 자귀가문저 연구한뒤에 실행한형적을 볼것시오 정만쇠의 일은 자귀가문저 실행한뒤에 남으로하여금 연구하게하는 영향을 주는것이다 그러면 하나는 지식을 가졌스며 하나는 지식을못가졌다는것이 이덤에서 드러난다 다시말하면김봉이는 리지적(理智的)이오 정만쇠는감정적(感情的)이다.<sup>54)</sup>

이 서문은 해양어부가 김봉이와 정만쇠의 재담을 수록하기 전에 인물들에 대한 논평

52) 해양어부, 『영터리들』, 우문관서회, 발행년도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53) 위의 책, 54쪽.

54) 위의 책, 5-6쪽.

이 이루어진 단락이다. 김봉이와 정만쇠의 성격이 각각 다름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선달은 자기가 먼저 연구한 뒤에 실행한 행적으로 이지적(理智的)면모가 드러나고, 정만쇠는 자기가 먼저 실행한 뒤에 남으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는 감정적(感情的)인 면모가 드러난다고 한다. 해양어부의 인물평 이후에 다른 연구자들도 짙막한 논평을 이어간다. 김헌선은 김선달을 ‘심사숙고형’<sup>55)</sup>, 나수호는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월등히 많다.’<sup>56)</sup>라고 평한다. 해양어부를 포함한 두 연구자의 인물평은 김선달의 대표적인 이야기인 <대동강 물 팔기>에 드러난 행위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대동강 물 팔기>의 서두부분에 해당되는 단락이다.

가만히 보니까 그 대동강에서 개인이 물들을 다 저 갔대거덩요. 저다가 전부 식수로 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이용을 해서 (중략) 자기가 돈을 좀 마련해 가주구 물 저가는 사람들에 댕김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을 한번 저가는데 얼마큼씩 돈을 이렇게 나눠줬단 말예요. 그래구선, “내가 앉았을테니까, 물값을 받으라고 앉았을테니까 저 갈적에 내가 준 돈을 도루 다오”이거지. 자기가 돈을 주고 산게 아니라 자기가 미리 갖다 다 준 거라 먼저 댕김. 아 이렇게 며칠 계속 했단 말여.(중략)<sup>57)</sup>

이 단락은 김선달이 대동강의 물을 팔기 위해서 속임수를 계획하는 내용이다. 김선달의 속임수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이후에 행동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자신이 준비한 돈을 이용해서 대동강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연계하여 마치 김선달, 그 자신이 대동강의 주인인 척 거짓 행세를 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김선달의 주도면밀한 계획성은 다른 이야기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객주집에서 다른 사람 행세하며 공짜 음식 먹기>와 <맹인 잔치해서 돈 벌기>이다. 두 이야기 모두 김선달의 단독 삽화로 분류된 자료이다. <객주집에서 다른 사람 행세하며 공짜 음식 먹기>에서 김선달은 객주집 주인을 속이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에 벌어진 상황까지 미리 예상하고 계획을 세운 후 객주집의 다른 손님으로 가장(假裝)해서 거짓 행동을 하고, <맹인 잔치에서 돈 벌기>에서도 맹인을 속이기 위해서 상황을 완벽하게 연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준비한다.

이래가주 인제 가디만 뭐, 참 이 집끝오만 저 삽직거리다 가마이 보이께네, 지동(柱)을 인제 마 네개를 갖고 원두막 곁이 마 이래 집을 짓는데, 짓고 인제, 한 쪽 지동을 막, 썩어 자빠진 걸 갖다 다 마 고만 건드리면 넘어가는 이런 걸 세와놓고, 집을 지놓고는, 그 인제 김선달이 환갑 잔치한다 카미 인제, 평양, 인제 그 저, 장님(盲人)들, 봉사는 인제 계(契)가 있다누만, 거는 가만 아무라도 돈을 못 냈어요. 돈은 거 마이( 많이)있는데. 이래가주고 거 인제 돈을 훔킬라고 인제 그래

55) 김헌선, 앞의 논문, 134쪽.

56) 나수호, 앞의 논문, 46쪽.

57) <봉이 김선달 이야기>, 『대계』1-2, 463-464쪽.

수작을 끼미고(중략)<sup>58)</sup>

김선달은 돈 많은 맹인들을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해보고자 하는 욕망에 속임수를 강구한다. 맹인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푼다는 명목으로 초대한다면서, 기둥이 썩은 원두막, 병들어 버려진 죽은 닭들과 원두막 아래에 놓을 깨진 옹기들을 미리 준비한다. 기둥이 썩은 원두막은 김선달의 집이라며 초대될 공간으로, 병들어 죽은 닭들은 음식냄새를 풍겨 맹인들의 기분을 흥겹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원두막 아래의 깨진 옹기들은 맹인들을 일부러 몸싸움을 만들게 해놓고 원두막이 무너졌을 때의 충격을 청각적으로 더 배가하기 위한 방도로써 준비한 것들이다. 속임의 대상이 맹인이라는 약점을 십분 활용한 계책이라 하겠다.

<맹인 잔치해서 돈 벌기>는 <대동강 물 팔기>와 속임수의 계책에서 또 다른 공통점이 발견된다. 김선달이 완벽하게 장악한 공간 안으로 상대인물을 끌어들인 후 속임수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대동강과 잔치가 벌어진 공간은 물건들을 비롯한 인력들까지 김선달의 계획 아래 준비된 것들이다. 그 공간은 김선달의 치밀한 계획 아래 통제가 이루어진 곳이라 할 수 있다.

해양어부를 비롯한 두 연구자는 문면에 드러나는 속임수의 방법에 집중해서 김선달을 평하고 있다. ‘이지적’, ‘심사숙고’, ‘계획적’이라는 서로 다른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으나, 그 의미하는 바는 같다.

또한, <맹인 잔치해서 돈 벌기>와 <대동강 물 팔기>에서 김선달은 높은 금액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대동강을 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그 금액은 상당했을 것이라 짐작이 가능하다. 맹인을 속여서 얻은 금전적 이득은 다음과 같이 구연자에 의해 서술된다, ‘옛날에 이 삼천원이면 큰 돈이지요.’<sup>59)</sup>, ‘오백냥 물리주지요’<sup>60)</sup>, ‘수탄 돈을 모아서 주었다’<sup>61)</sup>라고 서로 다른 각편의 세 구연자들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세 구연자의 공통된 인식은 맹인을 속인 후 김선달이 얻은 금전적 이득은 상당한 액수라는 것이다.

건달형 인물전설의 129편의 삽화 중에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꾀하는 내용의 삽화는 총 22편이다. 이 삽화들에서 김선달 16편, 정만서 6편, 방학중 5편, 정평구 2편, 변인태 0편의 삽화가 분류된다. 다른 건달형 인물들과 비교해보아도 김선달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꾀하는 삽화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문면에 드러나는 김선달의 면모를 통해 그 인물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김선달의 속임수 방법에 초점을 둔 논의에서 벗어나, 김선달이 상대

58) <붕이 김선달>, 『대계』7-11, 328-340쪽.

59) 김철희 구연자, <맹인 잔치해서 돈 벌기>, 『대계』1-9, 601-607쪽.

60) 김동구 구연자, <붕이 김선달>, 『대계』7-11, 328-340쪽.

61) 이명혁 구연자, <김선달 장님을 울귀먹다>, 『구전』, 322-323쪽.

를 속이기 위한 ‘속임수의 발상(idea)’에 더 집중하여 그 의미를 논의해야 한다.

<대동강 물 팔기>에서 김선달은 대동강의 ‘물’을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했다는 사고이다. 이 이야기가 형성된 시기가 조선 후기 사회였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물을 판매할 수 있는 상업적인 상품으로 인식한 김선달의 사고는 그야말로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다. 조선 사회에 물장수라는 직업이 존재하였지만, 물을 상품으로 인식한 직업군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육체노동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직업군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물장수는 물을 소비자에게 배달해주는 행위로 돈을 벌지만, 김선달은 소비자가 직접 대동강의 물을 가져가면서 물을 소비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속임수를 계획한다. 즉, 김선달의 사고에서 물을 상품으로 보는 인식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오늘날에도 물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보편적 인식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선달의 발상은 기발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김선달은 상대인물의 욕망을 자극하여 이득을 취하는데, 욕망의 자극은 김선달의 판매 전략의 계획이다. 상대인물에게 대동강만 소유한다면 손쉽게 지속가능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판매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김선달의 면모는 다른 이야기에서도 드러난다.

장꾼들이 들어와선 팔죽을 달라니께? 여자가 포장을 들고서,  
“초 친 팔죽을 드리리까, 초 안친 팔죽을 드리리까?”  
김선달이 하는 말이,  
“아 이런 사람들이 초 친 팔죽을 먹느냐? 사람 봐 가면서 그런 소리를 하라.”고.  
이래니까 그래 사람들이 화가 나니께.  
“왜 우린 초친 팔죽을 못 먹느냐?”(중략)<sup>62)</sup>

위의 인용문은 김선달의 단독 삽화인 <선 팔죽 팔기>이다. 김선달이 선 팔죽을 초를 친 팔죽이라며, 판매하는 부분이다. 선 팔죽을 판매한 행동이 주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 전략의 발상을 주안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김선달은 선 팔죽을 오히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역발상을 한다. 팔죽에 식초를 첨가했다는 거짓 이유로 ‘초 친 죽은 석냥이구 초 안 친 죽은 두냥이니’<sup>63)</sup>라고 한다. 선 팔죽이 특별한 음식인 마냥 허위 포장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판매 전략으로 상대인물의 과시성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

각편에 따라 상대인물은 장꾼, 촌양반, 촌사람이 등장하는데, 김선달은 이들에게 초 친 팔죽을 모른다며 일부러 무시해 버리는 전략을 취한다. 이 전략은 초 친 팔죽이 특별한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음식을 모르는 것은 즉, 촌스러운 사람이

62) <붕이 김선달>, 『대계』 3-1, 213-217쪽.

63) <붕이 김선달>, 『대계』 1-7, 744-745쪽.

라는 공식을 성립시켜 주변인으로 등장하는 상대인물의 열등감을 자극한다. 결국 상대 인물은 김선달의 전략에 속아 신 팔죽을 시다면서 억지로 먹어야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까지 내몰린다.<sup>64)</sup>

이와 같이 김선달의 속임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고의 기저(基底)는 상품화폐 경제관에서 비롯된다. 김선달은 노동력을 포함하지 않은 물 그 자체와 신 팔죽을 상품으로 둔갑시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판매자의 입장에서 상대인물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자 그들의 욕망을 이용하는 전략은 시장 경제 체제에 능숙한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김선달의 면모는 그의 이야기가 평양을 지역적 기반을 두고 형성·전승되었다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평양은 18세기에 이르러 국내외의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사신 접대를 위해 비축된 많은 전곡이 상업 자본으로 이용되면서 서울과 개성에 버금가는 상업 도시의 중심지를 이루는<sup>65)</sup> 곳이었다.

당시 평양의 모습이 '배와 수레가 통하고 화물이 모이는 곳이라서 식리사업으로 살아가며 부를 쌓기가 매우 쉽지만 어지럽도록 화려하고 멋대로 놀아나서 얽어져 망하는 것도 또한 쉽다' 하였고<sup>66)</sup> 라고 1822년 淸南 암행어사의 전언이 기록될 정도이다. 경제적 번영과 이를 바탕으로 변화한 시정적 분위기가 김선달의 이야기를 형성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조선 후기 야담집 『청구야담』에서 수록된 자료들에서 평양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경제 행위에 관한 주제 의식을 바탕으로 상품독점과 교역을 통해 치부(致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안동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은 주로 입신양명, 가족과 혼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67)</sup>는 점이 대조된다.

당대 역사적 기록물과 야담집 속 평양의 이미지를 통해서, 김선달은 주 전승지의 지역적 풍토를 닮은 인물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자본의 생리와 상품화폐의 경제관을 바탕으로 속임수를 꾀하며, 치부(致富)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하는 사기꾼의 면모를 짙게 풍기는 인물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과거시험을 통해 입신양명의 뜻을 품은 인물로도 형상화되고 있기도 하다. 먼저, 김선달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선달(先達)은 문

---

64) 그 뭐 오죽이나 했 올라구. 자, 먹어보니깐 이 싹놈의 죽이 [웃음]먹을 수가 있나? 자, 그렇다 구 먹다 냉(남)길 수도 없구. 이걸 억지루다 먹구서.[웃음][조사자:촌놈소리 들을 수 없구.] 그렇지.[웃음]할 수 없이 석 낭 줘서...

『대계』1-7, 위의 자료

65) 오수창, 「조선후기 평양과 그 인식의 변화」, 정만조·한충희·김인걸 외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2002, 848-849쪽.

66) 박래겸, 『西繻錄』, 4월6일(규장각도서 고4790-29): 오수창 앞의 글, 845-846쪽, 재인용.

67) 오수창, 「<<청구야담>>에 나타난 조선 후기 평양 인식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2007, 83-92쪽.

무과에 급제했으면서도 아직 벼슬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신분적으로 양반계층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선달이라는 호칭은 불려지기 어렵다.

건달형 인물들 중에서 과거 시험이나 벼슬을 구하고자 하는 화소가 등장하는 삽화를 다수 전승시키는 인물은 김선달이다. 방학중, 정평구, 변인태는 한 편도 전승되고 있지 않다. 정만서의 경우 1편<sup>68)</sup>만이 전승되고 있다.

전승 자료 중 <적선한 부원군을 만나 영화 누린 김선달>은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을 하여, 후에 보은을 받아 김선달이 오관문 도대장이라는 벼슬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김선달은 매관매직을 하려고 3년간 서울 대감집에서 돈만 쓰고 관직에 오르지 못해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2) 김선달은 주막집에서 수심이 가득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 그 연유를 묻자, 아기를 낳은 부인을 위해 쌀과 미역을 살 돈이 없다고 대답한다. 김선달은 자신이 가진 돈을 그 남자에게 준다.

3) 김선달은 주막집에서 배불리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상주(喪主)의 옷을 몰래 입고 기생집에서 외상 음식을 먹은 후, 아침에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한다.

4) 다음날 아침 상주에게 돈을 받으러 온 기생에게 자신은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하자, 김선달은 상주에게 호통을 치며 혼을 내자 어쩔 수 없이 상주는 돈을 지불한다.

5) 기생은 전날 자신과 놀던 상주가 김선달임을 알아보고는 김선달에게 자신의 기동서방이 되어 달라고 하며, 서울 대감에게 가서 매관매직을 다시 하라고 돈을 준다.

6) 김선달은 서울 대감 집에서 관상쟁이에게 오관문 도대장을 하게 될 관상이라고 하자, 화가 나서 관상쟁이의 따귀를 때린다.

7) 부원군의 빈객인 관상쟁이를 때린 김선달은 부원군에게 잡혀가게 된다.

8) 부원군은 김선달이 오래 전에 자신을 도와준 은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은혜를 갚기 위해 김선달에게 오관문 도대장이란 벼슬을 내린다.

위의 이야기는 세 개의 삽화가 느슨하게 연결된 구성을 갖추고 있다. 1) ~ 2)와 6) ~ 8)은 중심 내용에 해당되는 적선과 보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단락이다. 3) ~ 5)는 주변부 내용이지만, 서사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는 단락이다.

1)단락은 김선달이 3년 동안 매관매직의 기회를 엿보았지만, 결국 관직을 얻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하는 내용이다. 이 단락에서 매관매직 화소는 세태를 풍자하는 기능도 갖지만, 무엇보다 당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하여 상품화폐로 권력과 재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의 반영이다. 또한, 매관매직을 통해 관직을 얻어 보려 했던 평양 출신의 김선달은 당시 관서지방에 대해 암암리에 자행되었던 인재등용의 차별적 정책이

68) <정만서가 과거한 이야기>, 『대계』, 636-637쪽.

이야기 속에 투영된 그늘진 모습이기도 하다.<sup>69)</sup>

2)은 김선달이 주막집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적선의 행위가 나타나는 내용으로, 후에 이루어지는 보은의 이유가 등장하는 단락이다. 김선달은 주막집에서 우연히 만난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을 한다. 김선달은 해산(解産)한 부인에 쌀밥과 미역국을 먹일 수 없어 수심이 가득한 가난한 가장(家狀)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그에게 준다. 김선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치부의 욕망을 품은 사기꾼의 형상과는 다른 측은지심의 인간애를 드러내는 또 다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3), 4)와 5)단락은 단일 삽화로도 전승되는 김선달의 단독 삽화이다. 3), 4)는 <객주집에서 다른 사람 행세하며 공짜 음식 먹기>삽화이다. 이 삽화는 2)단락의 적선 행위로 인해 빈털터리가 된 김선달이 건달의 행위로 공짜 음식을 먹게 된다는 서사적 연결을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 또한, 5)단락과의 서사적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5)단락에서 김선달의 건달의 행위에 감복한 기생이 김선달이 매관매직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자처한다. 기생의 조력으로 김선달은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후에 보은의 서사로 전개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단락이 된다.

6) ~ 8)은 보은담에 해당되는 단락이다. 먼저 6), 7)은 극적 결말을 위한 흥미와 재미를 돋우는 복선의 장치를 갖는 단락이다. 이 두 단락의 김선달은 관직에 오를 관상이라는 관상쟁이의 점사에 마치 자신의 처지를 분풀이하듯이 관상쟁이의 뺨을 때린다. 그런데, 관상쟁이가 부원군의 빈객에 손찌검을 했다는 이유로 부원군에 의해 잡혀가게 된다는 내용으로 극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8)은 부원군이 이전에 김선달이 적선했던 사람이라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극적 긴장감이 해소되는 단락이다. 그리고 보은의 맺가로 김선달은 관상쟁이의 점사와 같이 오관문도대장이라는 관직을 얻게 된다.

<적선했던 부원군을 만나 영화 누린 김선달>은 치부의 욕망을 품은 사기꾼의 형상을 갖는 김선달의 모습과는 그 결이 다소 다른 이야기이다. 3), 4)단락에서 건달의 행적을 전하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보은을 통해 관직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이 핵심 내용이 전하는 의미는 측은지심을 갖춘 품성으로 인하여 관직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품성이 바로 관직자의 덕목임을 강조하는 향유의식도 엿볼 수 있다.

---

69) 관서지역에서 인재가 수습(收拾)되어야 한다고 가장 많이 말하지만, 건아(健兒)들이 대부분 누락되었다는 한탄이 있고, 함경도의 인물을 여러 차례 불러들인 바 있으나 참량이 되어 육품에 오르는 단계에서 멈출 뿐이다. 개성사람(松人)은 무슨 혐의할 것이 있어 의망(擬望)하지 아니하며, 강화사람(沈人)은 재능이 있는데도 시험해 보지 않는다. 正祖, 『弘齊全書』 卷32, 한국문집총간, 532쪽.

“關河最云收拾, 而健兒多漏萬之歎: 豐沛屢勤延訪, 而寢郎止陞六之階, 松人何嫌而不擬, 沁人有才而莫試.”- 관서지역을 비롯해 관북지역 출신들이 관직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달리 김선달의 건달적 행위와 함께 과거시험과 매관매직의 화소를 해학과 골계미로 풀어낸 이야기들이 또한 전승되고 있다. <병에 걸린 척해서 벼슬 얻기>와 <기생과 계획하여 서울 대감을 사기 치기>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병에 걸린 척해서 벼슬 얻기>의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 단락이다. 김선달이 계획한 속임수가 성공하여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내용이다.

다른 선배들을 모시 두루막이에다가 영- 회호리밤글이 해가주고 오는데 붕이 김선달은 밍지 바지저고리에다가 이- 예전 남바우 말이지. 이 비 덮어씨는 남바우를 떡 썬고 거 떡- 가이, [강조해서]유명한 사람이 안 되겠어.

“저 선배는 왜 저래냐?”

“아이고 아이올시다.”

“뭘라 어째?”

“오다가 윤감한, 장질부사를 일컫는다. 집에 자다가 윤감이 들렀습니다.”

그러니 이 온유월이라도 [웃으면서]윤감은 땀을 내야 되거던. [큰 소리로] 아이, 시관이 생각해 보이 그사래 입짐(입김)만 들어서면 병이 번식된단 말이야.

“[꾸짖듯이]야! 이놈아 과거보러 왔거던 저 멀리 가 앉아라!” 입짐 안 들오도록 하느라꼬.

“그럼 니 거가서 글을 보아라.”

보고, 아 저놈이 책은 여겼는데 저가 오는데 그저 입이 들썩들썩 그이[정중:웃음][큰 소리]로아 그 소리 듣도록 하마 저놈 입짐이 오까봐 겁이 나그던. 입짐이 아 오는데 가서 보이 일렁일렁거면서[웃으면서]아, 글을 열매나 잘 오노(외우노)?

“에이 이놈 급제조라!”<sup>70)</sup>

위의 이야기에서 김선달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로 형상화된다. 각편마다 공통적으로 하급 관리를 뽑는 송과(誦科)<sup>71)</sup>에 응시한다고 서술하면서, 김선달이 송과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연유를 지역적 차별<sup>72)</sup>이라고 언급한다. 평양 출신이라는 김선달의 형상은 지역적 풍토나 정치적 함의가 이야기의 형성과 전승에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다시 확인 한다.

과거 시험에 응시한다는 김선달 역시 주도면밀한 계획성을 바탕으로 속임수를 꾀하는

70) <김선달의 과거길과 과거 급제한 내력>, 『대계』 7-17, 168-177쪽.

71) 송과(誦科)에 대한 구연자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송경(誦經)이라고, 송경은 인제, 글을 인제 읽어가주고 인제, 그 과계를 보이는데, 그때 송경 과계를 보이는데 그래 가다가..(중략)”-김동구 구연자, <붕이 김선달>, 『대계』 7-11, 328-340쪽.

“이북은 송과(誦科)래. 그 책을 다 외우는 사람이래야. 강급제야.....(중략)”-정윤창 구연자, 위의 자료.

72) “예전에 이북이라는데 평양으로는 우리 이 참 이태조 이후에 비슬을 안 줘습니다. 그런데 비슬을 주는데는 또 안 줄라꼬 어떤 규정을 했는거 아이래.....(중략)”-정윤창 구연자, 위의 자료.

면모를 보인다. 시험장 안에서 시험 관리관을 상대로 속임수를 피하기 위해서 솜옷을 빌려서 미리 준비해 놓고, 시험관을 상대로 속임수를 계획한다. 김선달의 속임수의 계획은 암송을 하는 시험 방식의 허점을 노린 것과 동시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계획이었다.

결국 시험 날 김선달은 시험 관리관에 의해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배치가 되어 시험을 치르게 됨으로써, 속임수의 행위가 드러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된다. 암송 시험을 본다며 열심히 입만 뵙긱 뵙긱거리는 김선달과 그런 김선달의 입만을 쳐다보며 무어라 말하는지 열심히 살펴보는 시험 관리관과의 묘한 극적 긴장감이 웃음을 발생시킨다.

시험장은 공적 시스템에 의한 규칙과 공정성을 상징하는 엄숙한 공간이다. 그런데 김선달의 속임수 행위와 시험 관리관이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삼시간에 시험장은 정반대적 속성을 갖는 공간으로 뒤집어져서 희화화되어 버린다.

다음은 <기생과 계획하여 서울 대감을 사기 치기>이다. 이 이야기는 기생의 조력으로 김선달이 매관매직을 하고자 서울 대감을 찾아가는 것으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된다. 서울 대감은 욕망에 충실한 인물로 묘사된다. 결국 서울 대감은 김선달의 돈만 탐할 뿐, 어떠한 관직도 주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기생의 주도 아래 김선달과 함께 서울 대감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로 계획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기생과 김선달이 서울 대감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부분으로 결말에 해당되는 단락이다.

대감이 가만 생각해 보니 대감이 보기에는 저놈이 죽었다면 저거 마누라를 내가 차지할텐데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저거 큰 걱정거리거든. 그 동안에 마누라를(알선이) 후릴라고 하는데 후리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래 얼마 더 있다가,

“자네 그 장사 또 하고 싶나.”

“그저 또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대저 삼천 냥만 주면 좋겠는데.”

삼천 냥에 구천 냥이면 그게 얼마야. 글썽 그게 대감이 구천 냥이 없어서 대감들끼리 구천 냥을 구해가지구서 구천 냥을 떡 주니 이놈은 또 가지고 경상도에 내려가서 자기 집에 잔뜩이 뒤 두고는 또 한 달 후에 와서 또 도둑놈을 만났다고 한단 말야.

“인제는 장사도 자네는 못하겠네.”

“아이고, 이제는 돈 있어도 장사는 안하겠읍니다. 이계는 집에 내려 가겠읍니다. 경상도 가겠읍니다. 대감님 전 내려 갈테니 조금도 말리지 마십시오.”

대감이 저놈을 어떻게 붙들긴 붙잡아야 마누라를(알선이) 자기가 한번 욕망을 채울텐데 암만 연구를 해도 안되겠단 말이야.

“그래 그러지 말고 자네를 쫓고만 내가 고을원이라도 하나 줄 테니 경상도로 내려가게.”

그레 고을원을 떡 따가지고 내려 왔단 말야.<sup>73)</sup>

서울 대감을 상대로 진행되는 속임수는 기생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어, 김선달은 다소 수동적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서울 대감을 속여서 골탕도 먹이고, 금전적 이득과 관직도 취해보자는 욕망을 함께 공유하며 속임수를 계획하고 함께 실행하고 있다.

김선달의 부인으로 분(扮)한 기생은 서울 대감을 유혹하는 속임수를 꾀하여, 서울 대감이 김선달을 멀리 떠나보내기 위해 김선달이 요구하는 장삿돈을 쾌척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이 속임수는 다음의 더 큰 이익을 꾀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다. 기생은 일부러 서울 대감의 욕망을 최고조에 이르게 만들고, 이때에 김선달이 장삿돈을 모두 도둑맞았다면서 돌아와 부인과 고향으로 내려가겠노라는 단호한 결심을 피력하여, 서울 대감의 애간장을 끓게 만든다.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힌 서울 대감은 김선달을 먼 곳으로 내쫓아 버리기 위해서 고을 원이라는 관직을 얻도록 해준다.

그래서, 다음에 그 대감이 빨강등이가 돼서 그러니 대감이 그 알선이를 자기 집에서 안 그려고 판집에서 가 그 빨간등이 만들어 노냈으니 얼마나 그 챙피한 일이요. 그레 다시는 돈, 어쩔 연구도 못하고 고을 원까지 주고 돈까지 몇 천 냥 뺏기더라 말야.<sup>74)</sup>

김선달과 기생에게 속아 육체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벌거숭이가 되어버린 서울 대감은 매관매직을 한다며 남의 돈이나 탐하고, 심지어는 남의 부인마저(비록 기생이 부녀자로 분하기는 했지만) 탐하고자하는 그의 추악한 욕망이 일시에 폭로된다.

매관매직과 벼슬 얻기 화소가 나타나는 3편의 각편 속에서 김선달은 매관매직마저도 녹록치가 않은 인물로 그려진다. 각편들에서 김선달은 한미한 가문의 가난한 선비로 묘사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역적 차별마저 받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속된 우연과 보은을 통한 행운 혹은 상대방의 욕망이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속임수를 꾀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직을 얻게 된다는 논리로 서사화된다. 이와 같은 서사는 김선달과 같은 인물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던 당대의 현실 논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대부분의 전승 자료에서 발견되는 김선달의 주된 형상은 치부의 욕망을 품은 사기꾼의 모습이다. 그러나 선달(先達)이란 이름과 그 명칭의 의미로 인해 한미한 가문의 선비 형상을 한 이야기가 함께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김선달의 형상은 평양 출신의 양반들이 정치적 차별로 인해 문반 관인이거나 무사로 진출하지 못하여 상업에 종사한 이들이 많았다<sup>75)</sup>는 역사적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73) <김선달과 평양 기생>, 『대계』2-9, 302-307쪽.

74) 위의 자료.

75)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2002, 140쪽.

## 2. 경주와 영덕·영해: 잡보- 정만서와 방학중

건달형 인물전설 중에서 한 지역권에 두 인물 이상의 이야기가 활발하게 전승·향유되고 있는 사례는 정만서와 방학중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정만서와 방학중에 관한 이야기는 경상북도 권역을 중심으로 다수 전승되고 있다.

정만서는 경주를 방학중은 영덕·영해를 중심 근거지로 해서 각각 안동, 영덕, 봉화 등의 인근 지역까지 그들의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정만서와 방학중은 같은 권역에서 함께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어서, 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정만서 혹은 방학중의 이야기라고 굳게 믿으며 전승·향유하고 있다.

정만서와 방학중은 전승지역의 특징을 비롯한 인물의 성격에서 유사한 부분이 드러난다. 경상북도는 조선시대에 성리학의 본고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명문가를 중심으로 한 사족세력이 완강한 곳으로 보수적 색채가 짙은 지역이었다. 경주는 옛 신라의 수도로써 역사와 문화에 대한 명성에 걸맞게 잘 정비된 도시의 모습과 유교의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도시로 조선시대의 많은 문인들을 불러들였던 곳이었다.<sup>76)</sup> 영해<sup>77)</sup>지역 역시 ‘小安東’이라 할 정도로 명문가들이 터를 잡은 반촌이 산재하였다. 영해읍성을 중심으로 반경 10리 이내에 밀집하여 사족간의 사회적 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전개하며 서쪽으로는 안동과 청송, 북쪽으로 강릉, 삼척, 울진 그리고 남쪽으로 연일, 경주 등지와 연결되어 지방 사족들을 비롯한 다양한 세력의 인적교류와 정치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곳이었다.<sup>78)</sup> 정만서와 방학중은 상층세력과 그들의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고장에서 산출된 인물전설이라는 점이 공통분모를 이룬다.

경북지역은 역사적 인물을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영웅, 학식이나 덕망이 높은 인물전설이 많이 전승되는 곳이다. 경주는 특히나 신라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가 많이 전승되는 지역이며<sup>79)</sup>, 이에 못지않게 영덕·영해 역시 김부대왕, 남

76) 오상욱, 「조선시대 경주지역 유람과 遊記의 특징 고찰」, 『동방어문학』 71, 동방어문학회, 402쪽.

77) 현재는 행정 구역상 ‘경북 영덕군 영해면’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동해안 일대의 중심지가 영해였다. 그러다가 1914년 영해군이 영덕군에 폐합되면서 중심지가 영해에서 영덕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영해는 士夫鄉이라고 불리는 곳이어서 당시 영덕과의 통·폐합에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과거에는 방학중은 영해의 인물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영덕·영해의 인물이라고 부른다.

: 박진태, 「盈德郡寧海地方의 口碑文學現地調査報告書」, 『인문과학연구』 1,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291쪽.

78) 이수환, 「조선후기 영해지역 재지사족의 향촌 지배」, 『울릉도·독도, 동해안 주민의 생활구조와 그 변천·발전』, 영남대출판부, 2003, 172쪽.

이창언, 「동해안지역 정기시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영덕군 영해장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536-537쪽.

79) 이인경, 「경주지역의 전승설화의 성격과 의미-역사 인물전설과 ‘孝不孝’說話를 중심으로-」, 『경주문화연구』 3,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2000, 77-81쪽.

사고, 우탁, 신돌석 등의 다양한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가 전승<sup>80)</sup>되고 있는 곳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이야기가 왕성하게 전승되는 두 고장에서 미천한 인물로 남을 속이고 돌아다니는 건달의 행적을 전하는 이야기가 인물전설의 목록에 올라 왕성하게 전승·향유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정만서와 방학중은 김선달과 달리 하층민의 형상을 하고 있다. 김선달은 치부(致富)를 목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속임수를 꾀하지만, 정만서와 방학중은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꾀하는 자들이다. 건달형 인물전설에서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꾀하는 내용의 삽화는 총 22편이다. 이 삽화들에서 정만서 13편, 방학중 11편, 김선달 5편, 정평구 3편, 변인태 0편의 삽화가 분류된다. 다른 건달형 인물과 비교해보아도 정만서와 방학중은 눈앞에 닥친 식(食)의 욕망을 해소하는 일에 관심을 둔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만서와 방학중은 같은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며 전승시키고 있으므로 각각의 개성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없으리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전승 자료를 둘러싼 내적·외적 요소들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이들 인물들 간의 변별되는 개성적 지점이 발견된다.

먼저, 정만서와 방학중의 전승 자료에서 가시적으로 가장 먼저 구분되는 것은 <피쟁이 하인>유형의 전승 분포이다. 이 유형을 정만서 1편, 방학중 15편, 정평구 3편, 변인태 1편이 전승되고 있다. 방학중이 가장 많은 편수의 자료가 전승시키고 있으면서도 이야기의 완결성 면에서도 방학중이 월등하다.

정만서의 경우 1편의 <피쟁이 하인>유형이 전하는데, 과연 정만서와 강한 밀착력을 갖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존재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당시의 구연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석춘: 거기야 말이 그르치. 이야기가 그르치, 거기야 택이 있나?

박동준: 어이(이석춘의 말을 부정하는 말) .

이석춘: 어차피 안에서 가 가장 오드로 고 고대해가 있지. 거기 어 그게 말이 될라 그리 글치, 그 택이 있나?

박동준: 그래[말을 이으려 했지만, 이석춘이 계속 참견을 하므로 중단되었다.]

이석춘: 그 종놈카안 지낼 택이 있는가?

박동준: 그래가주 있다가,

이석춘: 정만서도 욕을 여자 있는데 싯컨 얻어 먹드라는데

박동준: 정만서 이야기하면 앞산 범이 범이, 그래가주고 정만서가[이석춘이 정만서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박동준도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한다. 이때 이석춘이 다시 박동준을 가로막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 (중략)<sup>81)</sup>

80) 조동일, 앞의 책.

81) <양반주인을 골려준 정만서, 처음으로 욕을 먹은 정만서>, 『대계』 7-2, 114-115쪽.

박동준 제보자가 <피쟁이 하인> 유형의 이야기를 구연하고 있는 도중에 이석춘 제보자가 정만서는 ‘종놈를 지낼 턱이 없다.’,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강한 의견을 피력하며 박동준 제보자의 구연을 막아버린다. 이석춘 제보자의 의견에 박동준 제보자가 시원스럽게 맞받아치지 못하여, 이야기판의 주도권이 이석춘 제보자에게로 넘어가버리고 만다.

전설은 증거물을 통해 이야기 내용의 진실성과 역사성을 갖는다. 인물 전설은 역사적 인물이나, 한 지역의 잘 알려진 인물들이므로 특히 구연 현장은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박동준 제보자와 이석춘 제보자 간에 이야기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둘러싼 전승자 간의 이질적인 태도는 처음부터 정만서의 인물평이 같았기 때문이다. 박동준 제보자는 ‘남의 종으로 있어 그렇지 대인’이라고 하였으며, 이석춘 제보자는 ‘한량’이라고 각각 정만서의 인물평을 하고<sup>82)</sup>, 이를 바탕으로 <피쟁이 하인> 유형에 구연에 있어서 논쟁적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싱겁게도 이석춘 제보자의 강한 자기 확신에 의해 단박에 박동준 제보자를 제압하였고, 이야기판에서도 어떠한 이견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에 이석춘 제보자는 정만서의 이야기를 두 편이나 구연하였다.

채록자였던 ‘조동일, 임재해, 조건상, 정억수’는 당시 상황을 ‘정만서가 종이였다는 말은 조사자가 처음 듣는 사실이므로 다시 물어보니(중략), 결국 박동준은 하인 막대이, 이석춘은 정만서 이야기를 한 셈이다.’<sup>83)</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석춘 제보자의 강한 자기 확신은 자신이 정만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 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제보자 간의 짧은 논쟁은 단편적 양상이지만, 이를 통해 정만서와 <피쟁이 하인> 유형과 결부되어 구연되는 것이 상당히 이질적이어서 전승자에게 보편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연 도중에 중단되어버린 위의 자료 이외에는 정만서의 전승 자료에서 <피쟁이 하인> 유형의 이야기는 채록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방학중의 경우에는 <피쟁이 하인> 유형과 대단한 밀착력을 갖고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전승 자료에서 방학중은 하인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상전을 깎듯이 모시지만, 상전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다음은 II장에서 정리한 삽화들을 <피쟁이 하인> 유형의 완결형<sup>84)</sup>에 해당되는 서사구조에 입각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한 것이다. 이들 삽화들을 전승시키는 다른 건달형 인물들과 함께 전승 양상을 함께 살펴본다.

- ① 상전의 음식을 빼앗아 먹기
- ② 상전의 말을 팔아버리기

82) <양반주인을 골려준 정만서, 처음으로 욕을 먹은 정만서>, 『대계』 7-2, 114쪽.

83) <양반주인을 골려준 정만서, 처음으로 욕을 먹은 정만서>, 『대계』 7-2, 114쪽.

84) 신동훈, 「신분갈등 설화의 형상화 방식과 문제 해결 양상」, 『서사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 소명, 2009, 151-153쪽 참조.

- ③ 떡보리 훑쳐먹기
- ④ 꿀장수 속여 꿀 먹기
- ⑤ 떡보리 탐내는 인물 망하게 하기
- ⑥ 상전이 등에 쓴 편지 고치기
- ⑦ 죽이려는 상전을 물에 빠뜨려 죽이기

①과 ②삽화는 상전과 하인의 서울행로에서 대립과 갈등이 촉발되는 부분이다. ①삽화 하인이 음식에 콧물이나 눈곱이 들어갔다는 거짓말로 상전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내용으로 방학중 8편, 정만서와 변인태는 각각 1편만이 전승되고 있다. 변인태의 경우는 <피쟁이 하인>유형의 삽화 중 오직 ①삽화만이 전승되고 있다.

②삽화는 상전이 ‘서울은 눈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곳’이라며 말(馬)을 잘 지키고 있다는 당부에도 하인이 말을 팔아버리고서 모르는 척 능청을 부리자, 화가 난 상전이 하인의 등에 ‘죽여라’는 편지를 써서 고향으로 내려 보낸다는 내용이다. 이 삽화는 방학중 4편, 정평구 3편, 정만서 1편이 각각 전승되고 있다. 정평구는 <피쟁이 하인>유형의 삽화 중에서 ②삽화를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다.

③과 ④삽화는 하인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여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길에서 만난 상대인물과의 주된 갈등은 공짜 음식을 빼앗아 먹으려는 하인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③삽화는 아이를 업고 떡보리를 찢는 여인을 속여서 방아 고에 아이를 넣고, 떡보리를 빼앗아 간다는 내용으로 방학중 10편, 정만서는 1편의 삽화가 전승되고 있다. ④삽화는 꿀장수를 속여서 ③삽화에서 빼앗은 떡보리에 꿀을 묻혀서 먹었다는 내용으로 방학중 5편, 정만서 1편의 삽화가 전승되고 있다. 특히 방학중은 ③삽화가 가장 많은 편수가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일 삽화의 이야기로 ③삽화만이 전승되기도 하고, ③과 ④의 두 삽화만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기으로도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⑤삽화는 떡보리 화소의 이야기인 ③과 ④삽화의 연장선에서 확장된 서사로, 꿀을 묻힌 떡보리를 맛본 상주(喪主)나 중이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는 물음에 하인은 상주에게는 장례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부셔버리고, 중은 절에 있는 모든 불상을 부셔서 끓는 물에 넣어서 만들면 된다는 극단적 대답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삽화는 ③과 ④삽화의 활발한 전승 양상 속에서 확장된 형태의 이야기이므로 방학중만이 5편을 전승시키고 있다.

⑥삽화는 ②삽화에서 상전이 ‘죽여라’라는 편지를 하인이 상대인물의 도움으로 편지의 내용을 ‘사위로 삼아라’라고 고쳐서, 상전의 딸과 혼인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삽화는 방학중 5편, 정평구 1편이 전승되고 있다.

⑦삽화는 자신의 딸과 결혼한 것에 화가 난 상전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시 살아 돌아와 혼인한 부인을 제외한 상전과 그 식구들에게 용궁구경 시켜주겠다는 속임수로 물속에 빠뜨려 죽인다는 내용이다. 이 삽화는 방학중 3편, 정평구 1편이 전승되고

있다. 방학중의 경우2편은 상전의 죽음으로 결말이 맺는 기본형에 해당되는 자료이며, 나머지 1편은 부인의 도움으로 하인이 신분 상승에 성공하여 상전과 화해한다는 변이형에 해당되는 결말의 자료이다. 정평구 1편은 죽음으로 내몰았던 상전의 집으로 하인이 다시 찾아 돌아오는 것으로 결말이 맺어지고 있어, 서사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건달형 인물별로 <피쟁이 하인>유형의 삽화별 전승을 서사 구조에 입각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정만서: ①+②+③+④
- 나. 방학중: ①+②+③+④+⑤+⑥+⑦
- 다. 정평구: ②+⑤+⑥
- 라. 변인태: ①

가. 정만서는 ①-④까지의 삽화가 나타난다. 이 자료는 제보자 간의 논쟁이 발생되어 구연이 중단된 이야기이다. 이 자료 이외에는 <피쟁이 하인>유형의 이야기는 채록되고 있지 않다.

나. 방학중은 <피쟁이 하인>유형의 완결형에 해당되는 ①-⑦까지의 모든 삽화가 나타난다. 또한, ③,④,⑤의 삽화들은 단일 혹은 복합 삽화로 총 7편이 독립적인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다.

다. 정평구는 ①,③,④삽화는 나타나지 않고, ②,⑤,⑥의 삽화만이 나타나고 있다. <피쟁이 하인>유형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②+⑤+⑥의 서사 구조를 갖춘 자료 1편, ②의 단일 삽화만 갖춘 자료 2편이 전승되고 있어서, 서사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의 변인태는 ①삽화 1편만을 전승시키고 있다.

이처럼 방학중의 자료가 건달형 인물 전설 중에서 <피쟁이 하인>유형의 각편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영덕·영해의 방학중 전승자가 이 유형의 이야기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경주의 정만서 전승자와는 다르게 어떠한 반감(反感)이나 논쟁 없이 방학중의 이야기라는 보편적 공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승자가 설화를 구연하고 정취하면서 이야기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는가하는 점은 설화의 정체성과 의미를 살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85)</sup>

그 다음은 단독 삽화의 전승 양상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정만서와 달리 방학중은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희화화시키는 이야기들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단독 삽화는 총 6편이 전승되는 <겨울에 삼베옷 입기>이다.

85) 신동훈, 「신분갈등 설화의 형상화 방식과 문제 해결 양상」, 『서사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 소명, 2009, 159쪽.

“이 삼동에 칩지도 안하나? 베옷을 입고 땡기노?”

이래이.

“앗다! 그것도 아입니다. 나는 삼동에 베옷이는 원을 해가 입고 땡기는데. 왜냐 하면, 삼동에는 베옷을 입으며는 바람이 건네 나갔분 때문에 안춥고, 여름에는 또- 나는 헛옷(흠옷)을 입는다고.”

“왜 그래, 여름에는 헛옷을 입느냐?”

“여름에 헛옷을 입으면 바람이 헛옷 속에 싸에가(사이어서) 자연지 선은(시원한) 그 관계로서, 그래 여름에는 인제 그 삼동옷을 입고 땡긴다.”

그래 인제 참, 그게 참말로 방학주이라.[웃음]<sup>86)</sup>

방학중이 겨울에 삼베옷을 입고 돌아다니자, 상대인물은 계절에 맞지 않게 ‘삼동에 왜 베옷을 입고 다니느냐’고 물으면, 방학중은 ‘삼베옷은 바람이 머물지 않아 따뜻하고, 솜옷은 바람이 옷 속에 머물기 때문에 시원하다.’라는 이상스러운 논리의 어긋난 대답을 한다는 내용의 짤막한 이야기이다.

의복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추위나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계절에 맞는 의복을 착용한다. 그러나 방학중의 행색은 이와는 정반대적 상황이다. 겨울에 얼기 설기 직조된 보온에 취약한 삼베옷을 여름에는 무더위를 더 심화시키는 솜옷을 입고 다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방학중은 이상한 논리로 자신의 복장을 예찬하며, 거리낌 없는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방학중의 당당한 태도는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낙천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가난한 처지로 인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행색이지만, 자신만의 논리로 상황을 재치있게 역전시켜 웃음으로써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sup>87)</sup>

아래의 인용문은 <겨울에 삼베옷 입기>의 구연이 마친 후, 청중들의 웃음과 짧은 담소로 이야기의 여운을 즐기는 모습을 기록한 부분이다.

일동: 폭소

청중: 방학중이가 저울근(저울에는) 삼베옷을 입었다.

청중: 아이, 삼베옷 입잖에. 원천칸(원낙) 없이어.....<sup>88)</sup>

제보자의 구연이 마치자 그 자리에 함께 한 청중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리며, 방학중의 논리에 공감을 드러낸다. 청중들은 방학중이 가난해서 남루한 옷, 즉 삼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방학중의 이

86) <겨울에 삼베옷 입는 방학중(4)>, 『대계』7-7, 596쪽.

87) 김난경, 앞의 논문, 113-114쪽.

88) <겨울에 삼베옷 입은 방학중(3)>, 『대계』7-7, 552쪽.

이야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전승자의 이러한 태도는 영덕·영해의 전승자 집단의 현실적 삶을 희극적으로 가미한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남루한 삶을 웃음의 소재로 삼아 희화화시킴으로써 삶을 관조하는 낙천적 태도를 방학중에게 투영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똥을 먹고 산다고 해서 얻어먹기>와 <집에 청룡황룡 그림이 있다고 속이기> 삽화 역시 방학중의 단독 삽화 중 가난한 처지를 희화화시키는 이야기들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지역 권역에서 하층민의 형상을 한 정만서와 방학중의 이야기는 마치 같은 인물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전승 자료에서 이와 같이 구분되는 지점들이 발견된다. <피쟁이 하인>유형과 가난을 희화화시킨 <겨울에 삼베옷 입기>삽화가 방학중에게서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점에서 방학중의 형상은 정만서보다 곡진한 하층민의 그림자가 더욱 깊게 드리워져 있다 할 수 있다. 방학중이 갖는 짙은 하층민의 형상과 전승자 집단의 정서는 <피쟁이 하인>유형과 같이 상전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골계적 성격이 강한 이야기를 활발하게 전승시키게 하는 원동력 중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작품 외적 상황에서도 정만서와 방학중의 형국이 같린다. 인물전설의 주인공인 정만서와 방학중은 그들 자신이 증거물으로써 이야기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갖는다. 이들의 역사적 행적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유형화된 건달의 이야기가 실제의 행적이라고 믿으며 전승되는 것이 건달형 인물전설의 특징이다.

그런데, 실존인물으로써 정만서와 방학중의 무덤이 전승지역에 존재한다. 정만서는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군시방 골짜기에 조성되어 있다. 1838년 정만서의 둘째 아들인 정재선(관명은 在奎)이 아버지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고, 앞면에는 ‘증가선대부동래정공지묘(贈嘉善大夫東來鄭公之墓)’라고 새기고 비석 뒷면에는 실제 생애를 기록하였다.

비문(碑文)에 기록된 정만서의 실제 생애는 전설의 행적과는 물론 다르다. 만서(萬瑞)는 자(字)이며, 실제 이름은 용서(容瑞)이다. 그는 호협하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며, 항상 해학이 넘쳐흘러서 그의 언변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전혀 막힘이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고종 때인 1892년에 현릉참봉으로 임명되었다가 나중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추증 받았다고 한다. 일생을 마친 때는 1896년 설달스무하루였으며, 향년은 예순한 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89)</sup>

정만서 무덤의 비석(碑石)과 비문(碑文)을 비롯한 상석(床石) 등이 잘 조성되어 있는 면모를 통해 양반의 형세가 느껴진다. 물론 아들인 정재선은 궁내부 수옥헌(水玉軒)의 주정(主政)으로 있다가 사직단 참봉직<sup>90)</sup>인 말단 관직을 얻었다고 하니, 한미한 지방 사족의 가문이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정만서는 후손 덕분에 그의 실제 행적이 문면에 기

89) 김주석, 「정만서의 비문」, 『거꾸로 본, 정만서 세상』, 글누림, 330-333쪽.

90) 위의 책, 332쪽.

록되는 영광을 누렸다.

그러나, 방학중은 이야기 속 방학중의 형상과 일치하는 면모를 보인다. 그의 무덤은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지푸심골<sup>91)</sup>에 있다. 무덤의 행색은 봉분조차 없으며, 마치 무연고의 묘지와 같아보였다. 이태범 구연자에 의하면 현재 방학중의 무덤은 그 옆에 있는 무덤의 후손이 별초하러 올 때 함께 별초도 해준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방학중은 정만서와 같이 후손을 잘 두지 못한 탓인지, 실제 방학중과 이야기 속 방학중의 모습이 일치되어 보이기까지 한다. 정만서는 대구 감영(監營)에 포졸을 했다<sup>92)</sup>는 실제 행적에 대해 전해지는 바가 있지만, 방학중은 하찮은 관직이나 미천한 양반의 행색이었다는 등의 어떠한 실제 행적에 대해 전해지는 바가 없다. 두 인물의 이야기 모두 하층민의 형상을 한 건달의 행적을 전한다지만, 정만서보다 방학중이 전승되는 이야기의 안, 밖에서 하층민의 정서가 더욱 짙게 베어 나온다.

정만서와 방학중이 함께 이야기 속에 등장해서 서로 대거리를 하는 내용의 삽화가 전승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자료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도 두 인물의 형체가 구분되는 지점이 발견된다.

아래의 인용문은 방학중과 정만서가 처음 만나 통성명을 하는 내용의 자료이다.

방학중이와 정만서가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정만서가 “나는 어너리없는 정가요”하니, 방학중이가 “나는 문지방 안에 방가요.”라더란다.<sup>93)</sup>

두 인물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전승자의 호기심과 발랄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들의 통성명은 일반적인 통성명이 아니다. 영덕·영해의 방학중이 또는 경주의 정만서가 얼마나 말재주가 좋고 수단이 좋은지 서로를 탐색하기 위한 통성명이고, 이를 통해 기싸움을 해보자는 것이다. 정만서가 자신을 ‘에누리없는 정가’라고 한 수(手)를 놓자, 방학중도 이에 굴하지 않고 ‘문지방 안에 방가’라고 응수한다. 이들의 대결에는 승자는 없으며, 서로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점을 확인할 뿐이다.

다음의 두 인물이 등장하여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이야기다. 서사는 다음과 같다.

1) 경주의 정만서가 영덕의 방학중이 어떤 위인인지 궁금해서 남천을 건너 영덕으로 가려고 한다.

2) 그때에 방학중이 남천을 건너와서 버선과 단님을 정돈하고 있는데 정만서는 방학중인지도 모르고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방학중은 ‘건너온 물은 이미 떠내려가서 모르겠

91) 2013년 11월 29일 이태범의 도움으로 방학중의 묘지를 확인하였다.

92) 해양어부, 앞의 책, 33쪽.

93) 조동일, <방학중과 정만서>,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253쪽.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상원동 옷번개, 이휘교(40, 현재 대구 거주), 1977. 9.19. 연구실에 돌아와서

다.’라고 대답한다.

3) 정만서가 ‘누구냐’고 물으니, 방학중도 ‘누구냐’라고 되묻는다.

4) 정만서가 ‘경주의 정만서’라고 통성명을 하자, 방학중도 ‘하저의 방학중’이라고 알린다.

5) 방학중은 정만서에게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 경주에 가서 함께 놀아보자’라고 하여 함께 경주로 간다.<sup>94)</sup>

정만서가 방학중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확인하고자 영덕으로 간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영덕·영해의 작은 고장에 사는 건달이 유명해서 대도시에 해당되는 경주에까지 그 소문이 이르렀다는 설정은 방학중을 우위에 두고 서사가 진행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만서는 남천을 건너려는데 방학중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물의 깊이를 묻지만, 방학중은 정만서인 줄을 알아보고 ‘건너온 물은 이미 떠내려가서 모른다.’는 말장난의 농(弄)을 친다. 방학중에게 말로써 당하고만 정만서는 그제서야 방학중을 알아보고 그에게 통성명을 하는 것으로 방학중이 우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후에 방학중의 주도 아래 경주에 가서 함께 놀았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는다.

방학중을 정만서보다 우위에 둔 이 이야기의 전승지는 방학중의 고장인 영덕·영해이다. 또한 앞서 통성명을 통해 대결을 한 ‘에누리 없는 정가, 문지방 안에 방가’라고 한 이야기 역시 방학중의 전승지역에서 채록·향유된 자료이다. 정만서를 의식하고 두 이야기가 형성·향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만서의 자료에서도 건달과의 대결 구도를 갖춘 이야기가 있으나, 상대 건달로 ‘영천의 거짓말쟁이’, ‘서만서’, ‘백운학’이 등장하는 것에 반해, 방학중은 상대 건달로 ‘정만서’가 압도적으로 등장하여 서사화되어 전승·향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중심부와 주변부의 지역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열등감과 이와 반대되는 자부심의 양가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자료에서 방학중을 찾아 온 정만서의 이야기를 구연한 구연자는 ‘그 때쯤 경주는 큰 도시고, 영덕은 쪼매는 고장이지.’<sup>95)</sup>라고 이야기 말미에 덧붙였다. 경주와 영덕·영해간의 경제·문화적 차이를 인식한 것으로 영덕·영해가 지역적으로 주변부에 속하는 곳이라고 언급한 것이다.<sup>96)</sup>

정만서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출판의 세례를 여러 차례 받아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 일찍이 해양어부는 ‘경주삼괴팔괴라는 명물가온대 정만쇠라는인물을 더-집어너흐려 한다.’<sup>97)</sup>라며 정만서를 경주의 명물로 소개하였으며, ‘나는 서선(西鮮)의 김봉이와 남선(南鮮)의정만쇠와를 반도인물의 쌍벽(雙璧)이라한다.’<sup>98)</sup>라고 김선달과 어깨를

94) <방학중과 정만서>, 『대계』7-7, 685-687쪽.

95) 서두석 구연자, <방학중과 정만서>, 『대계』7-7, 687쪽.

96) 김난경, 앞의 논문, 121-122쪽.

97) 해양어부, 앞의 책, 34쪽.

98) 해양어부, 위의 책, 6쪽.

나란히 하는 인물이 정만서임을 평가하였다. 해방 후에도 정만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재담집에 수록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방학중은 그렇지 못했다. 조동일이 1970년대 영덕·영해 지역을 현지조사 할 당시에 전승자들이 ‘방학중이를 이야기한 분들은 언젠가 정만서는 텔레비전에도 소개되었더라고 하면서 방학중이가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은 것이 불만스러운 처사라고 했다.’<sup>99)</sup>라는 서술에서도 중심부에 대한 주변부인의 열등의식이 확인된다. 이러한 열등의식이 정만서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고향에서 유명한 방학중을 추켜세우는 이야기들을 형성·전승시키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다. 유명세를 가진 중심부의 인물이 유명세도 없고 주변부에서만 머무르는 ‘방학중을 찾아 가거나, 방학중이 속임수에서도 한 치의 밀리는 법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 설정에서 정만서는 방학중을 돋보이게 하는 보조적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sup>100)</sup>

그러나 주변부인의 열등의식만으로 방학중을 우위에 두고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형성·전승시킨 것만은 아니다. 아래의 인용문은 정만서와 방학중이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로, 정만서와의 대결에서 방학중이 패배했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방학중이 이야기 아인겨. 방학중이 이야기지. 그래다가 정만세 있는데 뺏게뿌렸다 그래. 정만세인데.

“녹아 못피울다.” 그이,  
 “나는 녹은 거도 없다.” 카고,  
 “그거 좀 도고. 내푼다.”  
 카고. 그 뺏게뿌렸다는데.<sup>101)</sup>

이 이야기는 건달형 인물이 담배를 얻어 피운다는 내용의 실패형에 해당된다. 담배가 너무 젖어서 피울 수 없다며 담배를 얻어 피울 속셈으로 속임수를 자행하는 자는 방학중이고, 방학중에게 속임을 당해야 하는 인물은 정만서이다. 그러나 정만서는 방학중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은 ‘녹은 담배도 없다.’며 오히려 방학중의 담배를 빼앗아 피어버려서, 결국 방학중이 정만서에게 당하고 말았다는 내용이다.

방학중이 정만서에게 패배한 이야기는 주변부인의 열등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반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영덕·영해의 방학중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에서 형성·전승 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전승자는 자신들의 고향을 대표하는 건달인 방학중이 정만서에게 진다고해서 정만서보다 못한 인물이 되어서 그 위상이 깎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방학중은 정만서에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의 논리는

주변부인의 열등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99) 조동일, 앞의 책, 257쪽.

100) 김난경, 앞의 논문, 122쪽.

101) <방학중과 정만서>, 『대계』7-7, 730-731쪽.

가능하다. 경주의 정만서에 비해 영덕·영해의 방학중은 비록 작은 고장의 출신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인물이라는 애정과 자긍심에서 패배를 할 수 있는 친근한 인물로 방학중을 형상화하였고 그 근거에는 관조적 사고의 여유와 해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02)</sup>

또한, 영덕·영해의 전승지에서만 정만서가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으며, 전승자들 역시 정만서를 익히 잘 알고서 방학중과 견주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의 인용문은 방학중의 구연자가 방학중과 정만서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다.

정만서는 영일 사람이고, 그 사람도 잡보래요. 방학중이는 하지 사람인데, 그 동시 사람일 거래요. 혹자는 방학중이를 좀 우에 있다고 하고, 정만서를 우에 있다고 보는데. 정만서는 자기가 용해서 응큼한 이런 사람이고, 방학중이는 다 같이 잡놈 소리를 듣고.....(중략)<sup>103)</sup>

구연자는 정만서를 영일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지역적 오류가 발생되고 있으나, 정만서를 방학중과 함께 잡놈 소리를 듣는 건달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구연자의 언급은 정만서란 인물을 이전부터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방학중의 전승지에서 정만서에 대한 인물평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정만서의 전승지에서는 방학중에 대한 언급이나 인물평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방학중 전설이 정만서 전설보다 늦은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증이다. 정만서의 이야기가 경북지역 권내에서 광범위하게 전승 혹은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에 형성시기가 늦었던 방학중 전설에 정만서가 상대인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04)</sup>

경주의 정만서와 영덕·영해의 방학중은 같은 경북권 안에서 하층민의 형상을 한 건달형 인물이다. 두 인물은 약 90%정도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전승 자료와 전승지에 실제한 두 인물의 무덤을 둘러싼 담론들을 통해 방학중에게서 하층민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방학중 전설이 정만서 전설에 비해 늦은 시기에 형성되었음을 밝히며, 경주에 비해 영덕·영해가 경제·문화적으로 주변부에 속하게 되는 전승자들의 열등의식의 표출과 극복의 양상들을 논의하며, 정만서와 방학중을 둘러싼 전승 자료의 내적·외적 요소들의 다양한 담론들을 논의하며 두 인물의 개성적 지점들을 살펴보았다.

경북지역권을 대표하는 정만서와 방학중의 공통된 인물의 성격과 행동 양상은 평양의 김선달과 크게 비교된다. 정만서와 방학중의 주된 결핍은 식(食)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꾀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속임수의 계책 역시 김선달과 달리 두 인물은 즉흥적인 재치에 의존한 말장난이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정만서와 방학중의 이야기에

102) 김난경, 앞의 논문, 122쪽.

103) 조동일, <방학중과 정만서>,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224-225쪽, 영해면 성내 4동 못골 신유석(79), 1977.8.13.경노당에서.

104) 김난경, 앞의 논문, 15-16쪽.

서는 언어유희적 요소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음 아래의 인용문은 <코 베어준다며 공짜 술 먹기>삽화로 정만서와 방학중 자료에 서만 전승되는 이야기이다.

방학중인데 속아서는 안되다 인제 속지말자 그리고 또 인제 술을 묵으로(먹으로) 왔는거야 (@조사자: 웃음) 왔는데 오늘은 돈을 안주면 코를 베어 버려라 칼을 가져와고 코를 베라 이러던 데 오늘 내 코를 안베며는 가지 않겠다. 그래 술을 건아하게 먹고 그래서 모 술을 실컷 먹고는 인제 내 코를 베야겠다. 돈은 없다 도마하고 칼하고 가져 온나 그래가 이 방학중이 앞에 놓고, 놓고(웃으며 반박자 쉬면서) 자 이제 코 벤다 그래 코를 횡 풀어가고(코를 푸는 시늉을 하면서)(@. @1조사자: 웃음) 도마 위에 탁 올려 놓고 칼을 가지고 코를 확 베버리는 거야(@, @1조사자: 웃음) 그러니깐 이거 말입니다. 그래 코를 벤거는 맞자나요.(@조사자: 웃음)그쵸? 그래서 또 모면을 해갔고 왔는겁니다.(@조사자: 웃음)<sup>105)</sup>

방학중이 ‘이번에도 공짜 술을 먹으면 코를 베어 준다.’는 말로 술집 주인을 안심시키 고서는 결국에는 술을 실컷 먹은 후에 자신의 코를 베어준다며, 도마 위에 콧물을 풀고 칼로 베어버리는 시늉을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칼 가 오너라.”

칼을 턱 도마 위에 얹어 놓고는

“정만서 코 빈다.”

코를 흥- ! 풀어가 [웃으면서] 도마에 턱 놓고는 복판을 딱 갈러 가

“자- ! 이건 니 술값이다. 요건 내 코다.”

[일동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계속 폭소를 터뜨린다. 제보자도 웃음을 겨우 참아가면서 이 야기를 계속한다.]<sup>106)</sup>

위의 방학중 각편과 같이 정만서 각편에서도 속임수가 드러나는 ‘콧물을 베어준다.’ 결 말부분은 이야기판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트리며는 장면이기도 하다. 구연자를 비롯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짓는 것은 정만서와 방학중 의 속임수가 폭로되는 말장난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언어유희의 만족감에서 발생된다.

정만서와 방학중은 ‘콧물’을 ‘코’라고도 부르는 언어의 관습성을 속임수의 계책으로 삼은 것으로 실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언어의 관습성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 예로 우리는 미용실에 머리카락을 자르러 갈 때, ‘머리 자르러 간다.’라는 말을 더 사용하지 ‘머리카락 자르러 간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표준어와 문장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105) 제보자: 박문태, 조사일시: 2013. 11. 29, 조사장소: 박문태 자택(강구면 50번지 나비산길60) 청중: 0명, 조사자: 김현선(@), 김난경(@1)

106) <정만서의 코베어 팔기>, 『대계』7-2, 731-732쪽.

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습관이다. 그런데 정만서와 방학중의 <코 베어준다며 공짜 술 먹기>삽화는 관습성이 갖는 고정적 사고의 틀을 깨뜨림으로써 발생하는 언어유희로 일상적 언어관습까지도 반추하게 만든다.

아래의 인용문은 <검은 고를 거문고라고 하기>삽화이다.

끓어 빠고, 실실 시크멍게 꺼질랐다. 끄질라 가주고 [일동:웃음] 둘러미고, 떡 올라갔다. 올라가이, 그 정만수가 떡 올라가이, 하 이거, 거문고 구해 왔다고, 좋다고, 기생이,

“거문고 구해 왔느냐고?” 이래이,

“에 거 거문고 구해 왔지.”

“거문고는 어떤 것을 어 구해 왔소.”

“이 너거 저 여 전부 앉거라. 너 거문 고 할래 흰 고 할래?”(정만서는 거문고를 “검은 고” 즉 검게 그슬린 방아고로 고의로 오해했다.)

그[일동:웃음] 썩 내놓고, [일동:웃음] 검은 것 하나 내놓고, 흰 것 하나 내놓고, “검은 고 할래 흰 고 할래?” 이카이, 아 마 뒤로 탁 자빠지거 던, 기생들이. 그래,

“와 자빠지노?” 하이,

“그러면 그카지. 그것을 거문고로 카이. 검은 고 구한다고.”[일동 웃음]

쌩 애로 먹었지. [일동:웃음] 예끼 이 놈, 그래 돈 오십 냥 띠목고.<sup>107)</sup>

정만서 각편으로 정만서의 속임수 계책이 드러나면서 상대인물인 기생이 정만서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결말 부분으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 장면이다. 정만서는 기생에게 ‘거문고’를 가져다 준다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여 술과 음식으로 돈을 탕진한 후에 검에 칠한 방아고를 매어주고 기생에게 찾아와서 ‘검은 고’를 가져 왔노라고 한다. ‘거문고’가 ‘검은 고’로 둔갑하는 순간 정만서의 유음어의어를 활용한 속임수 계책이 드러나면서 언어유희의 웃음이 유발되는 지점이다.

<검은 고를 거문고라고 하기>와 <코 베어준다며 공짜 술 먹기>삽화는 정만서와 방학중의 속임수 계책이 서사 말미에 드러난다는 점이 공통점을 갖는다. 이와 같은 서사 구조 방식은 서사 초·중반에 정만서와 방학중이 코를 베어준다며 술을 먹거나, 거문고를 가져다준다며 기생에게 술값을 가져가는 행위에 앞으로 전개될 서사에 흥미와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두 인물이 갖는 개성적 성격(character)으로 인한 것으로 이후에 드러날 속임수 계책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흥미와 기대감이 주는 긴장감 마치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서사 말미에 속임수 계책이 드러나면서 그 긴장감은 한 순간에 해소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긴장감의 고조와 해소의 낙차가 클수록 웃음 유발의 진폭이 크며, 두 삽화가 이에 부합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정만서와 방학중의 <그저 먹으라고 해서 공짜 음식 먹기>삽화의 공통 서사 구조이다.

107) <정만서와 기생>, 『대계』7-1, 576-578쪽.

- 1) 건달형 인물은 상인에게 음식을 가리켜 ‘어떻게 먹느냐’고 묻는다.
- 2) 상인은 그 ‘저 먹으면 된다.’는 대답에 다시 건달형 인물은 ‘끓여먹느냐’고 다시 묻자, 상인은 ‘그저 먹는 거’라고 다시 대답해준다.
- 3) 건달형 인물은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상인이 돈을 내라고 한다.
- 4) 건달형 인물은 상인에게 ‘그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이라고 대답한다.

1), 2)와 같이 건달형 인물은 상대인물에게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속임수의 계책을 피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3)과 같이 상대인물이 재전송한 메시지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해 버림으로써 4)의 식(食)의 결핍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이를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왜곡된 메시지 전송 → 메시지 재전송 → 전송된 메시지 왜곡되게 해석

정만서와 방학중은 상대인물인 상인에게 ‘곶감, 떡, 오이’등을 마치 처음 본 음식인 것처럼 거짓된 행동과 ‘어떻게 먹느냐’는 말을 통해 왜곡된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나 상인은 왜곡된 메시지인지를 알지 못한 채, 전송된 메시지의 표면적 의미 그대로를 이해하고 ‘그저 먹지요’라고 대답한다. 상인의 ‘그저’라는 대답의 말은 의미하는 범위가 넓어서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그 의미가 해석되기 마련이다. 정만서와 방학중은 ‘그저’라는 부사어가 갖는 언어의 중의성을 이용하여 상인이 재전송한 메시지인 ‘그저 먹지요’의 ‘그저’를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대로 왜곡시며 ‘무료로 먹어라’로 해석해 버린 것이다.

이와 같이 상황을 주도하여 즉흥적인 말장난으로 속임수를 피하는 이야기는 정만서보다 방학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더 잦다. 대표적으로 방학중의 단독 삽화인 <웃이오, 잣이오>와 <종이 두 권 준다며 음식 얻어먹기> 삽화이다.

“오시오(웃이오)”  
 [웃으면서]그래 나갔그던. 갔는데, 그 다음엔 또 잣을 짚으니,  
 “이게 뭐요?” 그이.  
 “자시오(잣이오)”  
 그래. 실컷 먹었던 말이라. 먹고 또 다음엔 갓을 짚으니.  
 “이게 뭐로?” 그이,  
 “가시오(갓이오)”<sup>108)</sup>

위의 인용문은 <웃이오, 잣이오>삽화이다. 이 이야기 역시 <그저 먹으라고 해서 공짜 음식 먹기>삽화와 같이 왜곡된 메시지를 상대인물에게 보내서 방학중이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으로 속임수를 계책한다. 방학중이 ‘웃, 잣, 갓’을 가리키며 ‘무엇이냐’고

108) <방학중의 잣 먹기>, 『대계』7-9, 768-769쪽.

상인에게 물어, 상인이 ‘옷이요’, ‘젓이요’, ‘갓이요’라는 대답을 ‘오시오’, ‘자시오’, ‘가시오’라고 일부러 동음이의어를 이용해서 왜곡되게 해석해서 공짜 음식을 먹는 것에 성공하게 되는 내용이다.

방학중의 단독 삽화인 <종이 두 권 준다며 음식 얻어먹기>삽화는 유음이의어(類音異義語)를 이용하여 속임수를 계책한 이야기이다. 방학중이 음식점 주인에게 밥 값 대신에 현물로 취급 가능한 ‘종이 두 권’을 주겠다고 하지만, 식(食)의 결핍을 해소 한 후에 ‘종이 두 권’을 내밀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방학중의 단독 삽화에서도 말장난을 이용한 속임수 계책의 목적이 식(食)의 결핍에 집중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정만서는 그렇지 않다. 정만서는 상황을 전복하거나 희롱하기 위해서 말장난의 속임수를 피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정만서 단독 삽화로 <아들 죽었다는 말에 엉뚱한 말하기>이다.

정만서의 단독 삽화 <아들이 죽었다는 말에 엉뚱한 말하기>삽화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말장난이 나타나는 내용이다. 아래와 같다.

그 정만서 아들이 이름이 범이든 모양이다.  
“범이가 죽었다고 가가지고 하라(말하라).”  
이카그던, 그래 이웃 집 늙은이가 인자 그 주막에 찾아갔어요.  
“만서 아저씨 여기 계시는교?”  
“그래 우에(어째서) 찾습니까?”  
[아주 낭패가 난 어투로] “아이고 답답해라, 범이가 죽었심니다이.”  
“오, 그래? 어데 포수가 와 잡았다 말이고?” [일동: 웃음]<sup>109)</sup>

정만서나 방학중과 같은 건달형 인물들은 집 안에 머무르지 않고 매일 집 밖을 나돌아다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집 안의 사정은 알지 못하며, 가끔 집 안에 머무르는 일이 생기면 <부부싸움하면서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기>삽화의 내용과 같이 정만서와 방학중은 집안일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집에 빚물이 새서 부인의 원망이나 듣게 된다. 위의 이야기에서도 정만서는 주막에서 술이나 먹으며 놀다가 이웃집 노인에게 의해 ‘범이가 죽었다.’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고(訃告) 소식을 듣게 된다. 청천벽력(靑天霹靂)같은 소식에 정만서는 ‘어떤 포수가 와서 범을 잡았느냐’는 말장난으로 충격적인 슬픈 상황을 단번에 전복시켜버린다. 이러한 전복의 언어유희는 아들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만서만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슬픔과 고통을 객관화시켜 견딜 수 있는 크기의 아픔으로 전환하고자 한 말이다.

이와 같이 정만서와 방학중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언어유희는 정상적으로 쓰이는 말의 의미에서 벗어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의미로 바뀌어져 수용자(전승자)에게 일상적

109) <정만서 아들 죽었다는 이야기>, 『대계』7-1, 123-124쪽.

이고 당연한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언어적 파격성에서 오는 당혹감을 경험하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두 인물에게서 다른 건달들과 비교해 언어유희의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전승지역과 인물들의 형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경상북도 권역을 대표하는 건달인 정만서와 방학중을 배출한 경주와 영덕·영해는 공간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두 지역은 완강한 상층 문화가 존재한 공간이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이며 옥산서원을 비롯해서 최치원·송중돈·이항·송시열 등의 선현의 사당을 참배하는 조선 유학의 도통연원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인식<sup>110)</sup>하였다. 영덕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안동’이라고 불리며 한동안 영남학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던 공간이다.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라 물질·인적 자원에 유입되기에 적당한 공간이기도 하였다. 사방이 열린 출입형태를 갖는 경주는 북쪽으로 영덕·포항이 인접하고, 서쪽으로 건천을 지나 영천·대구로 이어지며, 동쪽으로는 동해를 거쳐 포항장기·울산, 남쪽으로는 언양·부산으로 이어지고 있어서<sup>111)</sup>,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문화가 맞물리는 곳이었다. 영해 역시 서쪽으로 안동과 청송, 북쪽으로 강릉·삼척, 울진, 남쪽으로 연일, 경주 등지와 연결된 열린 공간이다. 특히 영해는 동해안의 해안지역에서 생산한 물품들이 안동과 영주와 같은 영남 내륙지역에 공급하게 되는 물산의 집산지로서 생산과 유통의 역할을 해서 풍족한 물질 기반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영해 일대에는 장시들이 활발하게 열렸다.<sup>112)</sup> 이를 통해서 경주와 영해는 보수성과 상업 활동이 기반으로 하는 진보성이 충돌·공존하는 공간이 된다.

이들 지역은 보수성에 대응하는 탈춤과 같이 상층 계층을 풍자하는 하층의 문화가 성행했던 분위기 속에서 정만서와 방학중과 같이 하층민의 형상을 한 건달의 이야기의 형성에 밑거름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두 인물의 이야기를 형성하게 한 추동력은 상품경제의 기반인 장시의 활성화로 인한 자유분방한 진보성이다. 완강한 보수적 색채를 갖은 지역에서 욕망을 긍정하고 속임수를 꾀하는 건달의 형상을 평양의 김선달과 같이 미천한 가문일지라고 양반의 형상화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정만서와 방학중은 당시 새로운 시장경제 사회의 주연에 해당되는 인물들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상을 적극 받아들여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이지만, 세상을 부유(浮遊)하는 하층민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

110) 오상욱, 앞의 논문, 422-424쪽.

111) 오상욱, 앞의 논문, 420쪽.

112) 이창언, 앞의 논문, 536-537쪽.

### 3. 김제: 민중 영웅- 정평구

김제의 정평구는 II의 삽화별 분류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유형화된 건달형 삽화와 전혀 다른 유형의 삽화인 임진왜란 활약담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정평구는 역사적 행적을 남긴 인물로 오랫동안 김제의 지역민들에게 회자되고, 또한 설화 속 주인공으로 임진왜란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게 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현재 전북 김제 문화원 차원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디지털 작업한 『디지털김제문화대전』<sup>113)</sup>에서 정평구를 하급 무관이며, 임진왜란 당시에 비차(飛車)를 만들어 이역기 장군을 도운 인물<sup>114)</sup>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정평구의 실제적 행적을 전하는 20세기 이전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제 지역에서 정평구의 담론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sup>115)</sup> 첫 번째는 구비 역사적 차원에서 ‘정평구가 비차를 발명해서 진주성 싸움에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다. 역사적 사실의 전달에 주안점을 두고 전승되고 있다. 두 번째는 정평구가 홀로 왜군을 물리친 내용으로 사실적 요소와 설화적 허구성이 얽힌 이야기로 설화 전승자들의 역사 인식이 담긴 전설이다. 세 번째는 설화의 허구적 운색이 강화되어 유형화된 이야기로 흥미와 재미 중심의 이야기인 건달 정평구의 행적을 전하는 건달형 인물 전설이다. 정평구에 관한 세 가지 담론의 이야기는 전승 지역에서 혼재되어 구비 전승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평구 전설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정평구의 임진왜란 활약담 속의 형상과 정평구와 비차에 관한 20세기 이후의 신문 매체에 기록된 정평구의 형상을 살펴 본 후 정평구를 둘러싼 다양한 인식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건달 정평구의 전승 양상과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본다.

다음은 정평구의 역사적 행적과 연관된 정평구 전설이라 할 수 있다.

- 가) ① <탄생에 관한 이야기>
- ②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뺨 때리기>
- ③ <왜군의 진(陳)에 맨 몸으로 침입하기>
- ④ <폭탄을 보물이라고 속여서 왜군 죽이기>

113) 김제시, gimje.grandculture.net.

114)

[http://gimje.grandculture.net/Contents?local=gimje&dataType=98&callFunc=goSearch\(%3B&keyword=%EC%A0%95%ED%8F%89%EA%B5%AC](http://gimje.grandculture.net/Contents?local=gimje&dataType=98&callFunc=goSearch(%3B&keyword=%EC%A0%95%ED%8F%89%EA%B5%AC)

115) 신동훈, 『역사인물 이야기 연구』, 집문당, 2002, 149-234쪽, 신동훈은 역사인물담을 서술방식과 전승자들의 인식에 따라 사화, 전설, 민담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사화는 역사적 사실 중심의 이야기로 설명위주의 서술방식으로 전승자들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식한다. 두 번째, 전설은 사실적 요소와 허구적 요소가 얽힌 이야기. 셋째, 민담은 흥미중심으로 이야기를 향유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정평구의 담론을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⑤ <제사상 정성 부족하다고 혼넨 혼령 정평구>

가) ①과 ②자료는 정평구의 출생과 신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이며, 가) ③과 ④자료는 정평구의 임진왜란 활약담을 전하는 이야기이다. 반면에 가) ⑤자료는 <제사 차린 정성 부족하다고 해 끼친 혼령>유형으로 정평구 전설과는 이질적인 이야기이다. 이 자료는 신문 매체를 통해 소개된 정평구의 담론과 형상 등을 살펴보면서 함께 견주어 논의하도록 하겠다.

위의 가) ①,②자료는 정평구의 출생과 신분을 전하는 이야기라 하였다. 정평구 전설의 전승지역인 김제의 전승자들이 정평구에 대한 인식과 전설 속 정평구의 형상 등을 알 수 있다. 먼저 가) ①은 정평구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삽화이다.

옛날 한 대감이 계신데 꿈을 꾸니깐 달이 입으루 넘어가. 이것이 태몽꿈이거던. 물론 마누래하구 교제를 하면은 큰 놈을 낳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누래를 가서 겁탈을 할라니 마누래가 입태(入胎)를 했다 그 말이여. 그러니 좋은 꿈을 그대루 할 수두 없구 꿈을 꾸면은 그 꿈을 그걸 내우간에 교접을 허구 말을 하는 것이라누만. 그냥 말 않는 것이라야. 그래서 헐 수 없이 자기 밑에 있는 그 종을 가서 그대루 했단 말이여. 히여가지고 그 애를 낳는데 남자여.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대감이 정대감인데 정평구로 이름을 졌어.(중략)<sup>116)</sup>

정평구의 아버지인 정대감이 범상치 않은 태몽을 꾸 후에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으므로 잠자리를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여종을 범하여 정평구를 낳았다는 내용으로 정평구를 서자 출신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김제 현지 조사 당시에도 정평구가 서자 출신이라고 언급하는 분들도 다수 있었다. 건달형 인물 중에서 탄생담에서 서자 출신으로 형상화된 인물은 정평구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방학중도 정평구와 함께 탄생담을 전승시키고 있지만, 정평구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방학중의 출생담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중영감의 모친이 학중영감 태상(태생)할 직에, 이 이봇개가 한 열 바리(마리)쯤 마다아(마당에)씩 들오드라누만. 드가는데, 확 비켜가 드가는데, 태새(태생)이 아들이라. 그래서 사람이 이상 이(이상하니),<sup>117)</sup>

방학중이 태어날 적에 이웃집 개(犬)들이 방학중의 집 앞 마당으로 들어왔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이 출생담은 방학중이 개처럼 사방을 돌아다니며, 이상스러운 행적을 남긴 인물이 태어날 적에 이와 같은 징조와 암시가 있었다라는 것이다. 다음의 방학중의 탄생담을 전하는 다른 각편에서는 또 다른 연유를 전한다.

116) <괴쟁이 하인의 사기행각-鄭平九일화->, 『대계』1-1, 513-522쪽.

117) <방학중의 출생담과 가계>, 『대계』7-7, 537-539쪽.

공주(공중)에서 인제 머가 참 호(혼)이 날라가며,

“니는 안그래마[주]이웃에서 여자가 나쁜 말을 하지 않았으면 대인이 될텐데, 이웃에서 여자가 말을 잘못해가주고 니가 천하 잡놈 지하 잡놈 될꺼라고.”<sup>118)</sup>

위의 각편은 방학중이 태어날 적에 이웃집 여자의 부정(不淨)한 말 때문에 ‘천하잡놈, 지하잡놈’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방학중이 원래는 대인(大人)이 될 만한 인물인데, 출생 당시에 부정을 타서 건달이 되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방학중이 대인이 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승시키는 것은 아니다. 방학중은 대인과 같은 풍모를 지닌 건달이라는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방학중의 출생담을 전하는 두 편은 공통적으로 건달 행위의 당위성과 희화화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평구는 그렇지 않다. 정평구의 탄생담 가) ①자료는 서자 출신인 정평구란 인물이 갖는 신분적 제약을 갖은 인물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진행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정평구의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가) ②자료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진평구라는 사람은 원래 김제군 용진면(全北 金堤郡 龍津面)이란 데가 평구(平九)란데가 있어요. 평구란데가 지금 현재 사창산인데, 사창산 줄기를 타고 났대서, 평구, 진평구를, 진자(陳字)를 빼버리고 평구라 했대요. (중략) 그 사람이 임진왜란 당시에 자기가 뭐라고 하니, 지금 말하면 중앙청까지 올라간 모양이에요. [청중: 아이구!] 올라가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내가 삼일(三日)만에 평정(平定)을 할 수가 있다. 전부 평정을 할 테니까 벼슬을 하나 주십사!”했어. 그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청중: 대답하네.] 암, 턱 헛개로,

“너는 쌍놈이여!”

하고 턱 때린단 그 말이여. 턱 때린개,

“아, 줄뺨(뺨)이로구나!”(중략)<sup>119)</sup>

위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인다. 정평구의 탄생과 관련된 정보와 임진왜란 당시의 정평구의 일화이다. 먼저, 정평구가 산의 정기를 받아 태어난 인물이라는 점이 짙막하게 구연되고 있다. 실제로 김제군 용진면 일대는 조선시대까지 평고현<sup>120)</sup>이란 지명으로 불렸다. 정평구는 평고현에 위치한 ‘사창산(社倉山)<sup>121)</sup>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인물’

118) <방학중의 출생>, 『대계』7-7, 375-375쪽.

119) <김제 진평구이야기>, 『대계』5-1, 89-91쪽.

120) 김제군 용진면 일대는 옛 평고현에 속하는 곳이다. 신라 757년(경덕왕 16)에 모든 행정 지명을 중국식 한자 지명으로 고치면서 수동산현에서 평고현으로 개칭되었다. 고려 중기 이후에도 평고현 지명은 이어져 내려온다. :

<디지털김제문화대전>, <http://gimje.grandculture.net/?local=gimje>.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한국학중앙연구원.

121) 용진면 구암리에 있는 산이며, 조선시대에 인근 지방이었던 개토, 모촌, 금굴, 공동, 회포.

이라고 하여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평구의 출생담을 전하는 두 편의 이야기에서 정평구는 서자출신 혹은 명산의 정기를 받아 태어난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고전문학에서 비범한 인물의 탄생을 서술하는 전형적인 문학적 클리셰(cliché)이다. 비범한 인물의 신분적 제약이라는 이질적 결합은 결국 좌절과 실패를 겪는 인물임을 암시하는 문학적 수사로 이는 민중 영웅의 형상화 방식과 같다.

그 다음으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정평구의 일화이다. 정평구는 왜군을 물리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임에도 중앙 관리의 무시와 발언으로 상징되는 신분 차별이란 높은 장벽에 좌절되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정평구는 중앙 관리에게 ‘쌍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뺨까지 맞는 인격적 수모를 겪게 되지만, 이후의 서사는 현실적 장벽의 좌절과 그 비루함 보다는 해학과 골계의 방식으로 서사화 된다. 정평구는 자신의 뺨을 때린 중앙 관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보복을 한다. 능청스럽게 ‘줄뺨’이라고 외치며, 중앙 관리의 뺨을 때려버린다. 정평구의 행위는 자신을 무시한 중앙 관리에 대한 보복의 행위이며, 국난이라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상황 속에서도 관념에 매몰되어 있는 무능한 지배계층과 신분제도의 모순점을 비판하고자한 이면적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줄뺨’은 비판의식의 직접적 형상화로 능청스러운 정평구의 행위가 복합되어 서사 속 해학과 골계미를 극대화시키는 모티프이다.<sup>122)</sup>

설화 속 정평구는 미천한 인물이라 신분적 제약을 지니고 태어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역사 속 정평구 역시 설화 속 정평구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정평구의 동향(同鄕)으로 김제의 조선 말기 유학자인 유재 송기면은 자신의 문집인 『유재집』에 「정평구전」을 남겼다. 그의 글을 통해 실존 인물인 정평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평구는 호남 김제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말에는 본래 이름은 철(鐵)이었는데 그가 일찍이 구주(九州: 天下)를 평정한다 하여 이름을 평구(平九)로 바꾸어 불렀다 하며, 어떤 사람의 말에는 김제에 예부터 평고창(平阜倉)이 있었는데 일찍이 그곳 창고지기였다.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해서 평구라 했다 하니 이는 평고(平阜)의 전음(轉音)이다. (중략)

평구는 문벌이 낮음으로써 학문을 배우지 않아 그의 행위를 일컬어 말할 만한 것은 없으나 그의 권모(權謀)와 임기응변은 간혹 취할 만한 게 있다. (중략)<sup>123)</sup>

인정 기술과 논란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유재 송기면은 민간에서 이야기되는 정평구의 다양한 신상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정평구는

---

연산, 백석 등 7개 면의 국가 상환곡을 보관했던 사창이 있어서 유래한 지명이다. ‘사창산’은 ‘수동산’으로도 불리던 곳으로 통일 신라통일신라 때에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쌀과 군량미를 보관하던 장소이기도 하였다.

122) 김난경, 앞의 논문, 217쪽.

123) 송기면, 박완식 엮, 『유재집』, 이회문화사, 2000.

호남 김제군 사람이며 본명이 ‘철’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구’라고 불리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민간에 서로 다르게 증언하는 바를 고스란히 수록하고 있다. 유재 송기면은 민간에서 이야기되는 엇갈린 증언에 ‘평구는 평고(平阜)의 전음(轉音)’이 되었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유재 송기면의 이와 같은 지적과 함께 정평구의 고향이 평고현이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평구’는 정씨 성을 가진 평고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일종의 택호(宅號)가 아니었는지 추정해본다. 두 번째 인용문은 정평구의 신분이 서술되어 있다. ‘문벌이 낮고 학문을 배우지 않아’라고 기술하고 있어서 정평구가 미천한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956년에 발행한 『김제군읍지』의 「고적(古蹟)」조<sup>124</sup>에서도 ‘정평구는 부량면 제월리의 한미한 가문에서 출생’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으며, 『디지털김제문화대전』<sup>125</sup>에서도 정평구를 하급 무관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들 기록물들은 정평구가 신분적 제약을 갖고 있는 인물임을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설화 전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평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가) ③<왜군의 진(陳)에 맨 몸으로 침입하기>과 가) ④<폭탄을 보물이라고 속여서 왜군 죽이기> 자료는 정평구가 왜군을 몰아낸 이야기이다. 정평구의 역사적 행적과 연관된 이야기이지만, 이들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허구적 윤색이 가미된 설화이다. 두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정평구의 비범한 영웅적 면모가 나타나지만, 다소 우습게 혹은 평범하고 일상적 차원에 가까운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또한, 역사 속 정평구의 발명품으로 알려져 있는 비차(飛車)는 설화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

가) ③<왜군의 진(陳)에 맨 몸으로 침입하기>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병자호란이 호위병(胡兵)이 발생해 가지고서 그냥 한국을 조선을 망치는 판이란 말여. 그도 평구가 쌍놈이라, 뭐지 8년 통징(平戰)을 8일 통징<sup>126</sup>으로 해 줄라고 해도 써주들 안혀.

“촌놈이 어디 군대에 나가느냐?”

고 써주들 안혀. 그런게 시골이 문쳐 가지고서 농업도 못하고 건달생활로 이렇게 세상을 사는다. 그때에 호위병이 진을 치고서 막 물밀 듯이 밀어닥친단 말여. 그러니 갑자기 그래 군병을 일으켜서 그 호위병을 막을 재간이 있들 안혀. 근게 와 가지고서 이놈들이 팽랑질(노략질)을 하고 와서 이지랄들을 하는다. 어찌기 가올래야(막을래야) 가올 수가 없거든. 그런게 평구가 헐 수 없이 정부, 뭐시냐 허락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쫓아 들어 간단 말여. 그 진(陣)으로 진으로 쫓아들어 가던게, 하이간 이놈들은 진을 쳐 놓고서 조선 사람이, 그 근방 어렵도 없는 사람이라고 다 잡아다가 진종일 거기다 놓고, 참 지금으로 하면 고문 마냥으로 뭐 말을 묻는다든

124) 정평구는 부량면 제월리 한미(寒微)한 가문의 출생으로 골계(滑稽)가 아주 뛰어났고 사물을 다양하게 볼 줄 알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 중에 속이는 일을 하게되면 모두를 감쪽같이 깨닫지 못하게 속이곤 했고, 계미(癸未)왜란에 벼이 진주성에 포위되었는데 비기(飛機)를 이용해서 성에 들어가서 구출하였다.: 黃熙景 編, 『金堤郡誌』, 金堤鄉教, 1956년.

125) <디지털김제문화대전>, <http://gimje.grandculture.net/?local=gimje>

126) 平戰, 전쟁을 끝낸다. 진평구가 8일만에 난리를 평정하겠다고 한 말.

지 야단을 떠단 말여. 그 당시에 평구가 떡 당하닌게,

“저놈 잡아라.”

한단 말여. 그냥 진친 그밖으로 도망하면서 자꾸 부해 지르는 것마냥, 이놈이 빙글빙글 하면서 자꾸 도망한단 말여. 도망하면서 그냥 진문(陣門)에다가 다리를 걸고서 오줌 척척 싸면서 도망한단 말여. 그러니,

“저놈이 고약한 놈여. 조선에 인자가 있다는디 그놈이 인자여.”

저런놈을 잡어서 죽어야 하닌게,

“저놈을 잡아라.”

아, 그 문에 문 지키는 군사가 저 대장한테 그 연유를 고하닌게, 그 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아, 이것이 우리가 불미한 짓이었다. 이놈이 인자는 인잔디(인자인데, 道士인데) 친 것을 보고는 지 자지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비교를 우리 진했어. 허니께, 여기 있다가 우리가 큰 패기(敗氣)를 하닌게, 다른데로 윙겨(웁겨) 가자.”(중략)<sup>127)</sup>

역사 속 정평구는 임진왜란 때에 활약한 인물인데, 위의 자료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시간적 배경이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 때의 일로 바뀐다고 해서 위의 자료인 정평구 전설이 갖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일반 민중에게는 모두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전쟁이었으므로 시간적 배경의 중요성보다는 전설적 기억이 더 중요하다.

위의 이야기에서도 정평구는 능력보다는 신분의 위계만을 강조하는 관리에게 ‘쌍놈, 촌놈’이라는 멸시를 받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가) ①, ②와 함께 가) ③자료에서도 정평구의 비범성과 신분적 제약이라는 부조화로 인해 세계와 장벽에 장애를 겪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맞닥뜨린 장벽에 대응하는 정평구의 방식도 흥미롭게 형상화되고 있다. 정평구는 신분차별로 인해 군입대를 할 수 없어서, 결국 혈혈단신으로 호위병과 대결하여 그들을 몰아내는 것에 성공하게 되어 탁월한 능력을 드러낸다. 멸시당한 정평구가 정평구를 멸시한 관리로 대변되는 지배계층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이다. 호군을 몰아낸 정평구의 비범성을 설화 속에서 정평구의 큰 성기로 상징화하고 있다. 호군들은 정평구가 홀로 진(陳)을 쳐들어와서 진문(陣門)에 오줌을 싸며 자신들을 희롱하는 모습에 ‘지 자지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비교를 우린 진했어.’라며, 정평구의 큰 성기로 인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진(陣)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설화 속 주인공의 비범한 영웅성은 도술적 능력이나 군사적 위용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정평구 전설은 이 모든 것을 축소·희화화시켜버린다. 도술적 능력은 적군의 한 가운데로 홀로 침입하여 ‘빙글빙글’돌아다니며 호군을 희롱하는 형상으로, 군사적 위용은 신체적 우월성 혹은 특별함을 그 상징적 징표로 드러내는데 정평구는 커다란

127) <오랑캐를 세 번이나 혼낸 정평구>, 『대계』5-3, 636-638쪽.

성기로써 우월성과 비범성의 징표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평구의 인물 형상화는 단순히 그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비하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다. 평범성의 반대항에 서 있는 비범성이란 특별함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평구의 희화화된 인물 형상은 평범한 사람, 즉 범인(凡人)의 패기(霸氣)를 역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신분이 아니라하여 천대받던 정평구가 홀로 적진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호군을 몰아낸 정평구의 비범한 행위는 '쌍놈, 촌놈'의 큰 성기를 갖춘 범인의 패기이다.

지배계층은 신분과 계급은 특별한 자신들의 전유물이라 여기며, 이를 통해 세상을 차별적 의식을 갖는다. 정평구를 멸시한 것도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자만이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는 고루한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이 지배계층이다. 그러나 김제의 정평구 전설의 전승자는 정평구로 대변되는 평범한 이들의 패기가 더 특별한 비범성이며, 그것이 오히려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가) ④<폭탄을 보물이라고 속여서 왜군 죽이기>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략) 정평구는 가지고 간 상자들을 왜적이 진격해 오는 앞길에 비단으로 싼 상자를 늘여 놓고, 그 곁에 금가락지 두어 개를 떨어뜨려 놓았다. 왜적들은 보물 상자인 줄 알고 상자를 열어 보았으나 그 안에 별들이 있어서 왜군들은 큰 피해를 보았다. 왜적은 다시 진격을 시작하였고, 정평구는 숨어서 지켜보다가 지름길로 앞서가서 다시 상자들을 놓았다. 이를 본 왜적들은 얽박한 피라며 크게 비웃으며 상자들을 불 질렀다. 그러나 그 상자 안에는 화약이 가득 들어 있어서, 화약이 터져 왜군들이 몰살했다.<sup>128)</sup>

위의 인용문은 <폭탄을 보물이라고 속여서 왜군 죽이기>중에서 정평구가 왜군을 섬멸하는 활약상이 그려진 부분이다. 이 이야기에서도 정평구는 특별한 도술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지 않는다. 지혜를 활용한 속임수로 왜군에 대항하며, 그 속임수 역시 일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평구는 왜군을 섬멸하고자 평범하고 흔한 물건인 상자를 이용하여 두 가지의 속임수를 꾀한다. 먼저 유인책을 위한 속임수 꾀한다. 정평구는 왜군이 진격해 오는 길목에 별 상자들을 보물 상자들로 속이기 위해서 상자 주위에 패물들을 놓아두어 그들을 유인한다. 또한, 이 별 상자는 이후에 두 번째 속임수를 꾀할 때 활용되는데, 왜군이 화약 상자를 별 상자로 착각하게 만들어 스스로 화약 상자에 불을 질러 자멸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는 침략자의 탐욕과 오만함을 이용한 속임수를 꾀한다. 정평구는 별 상자 주위에 비단과 패물 등을 적절하게 배치시켜 놓아서 침략자인 왜군들의 탐욕을 자

128) <임진왜란 때 왜적을 박살낸 이야기>, 『김제』, 69쪽, <보물상자>, 『벼골』, 107-109쪽,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친 정평구>, 개인채록자료.

극시켜, 그들이 현상적인 것에 현혹되어 스스로 별 상자를 열게 만든다. 또한 한 차례 별 공격을 받은 왜군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진격해 오는 길목에 다시 앞선 별 상자와 같은 상자에 화약을 넣어두었지만, 그들이 이전에 당했던 별 상자 일 것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해 버리게 유인한다. 왜군의 성급한 판단은 정평구의 속임수 계책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속임을 당한 근본적 원인은 오만함이다. 왜군은 자신들 앞에 놓은 화약상자가 별 상자라고 단언하며, 알뜰한 꾀라며 크게 비웃고는 화약상자에 스스로 불을 질러 자멸하고 만다. 정평구는 상자, 별, 패물, 화약 등의 일상적 도구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지혜와 지략으로 침략자인 왜군과 대항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즉 정평구의 속임수는 약자의 힘이며, 그 약자의 힘은 지혜이다.<sup>129)</sup>

이와 같이 정평구 전설 속에서 정평구는 비범성을 내제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정평구의 출생담은 전형적인 비범한 인물의 탄생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서자 출신으로 정평구를 형상화한 이야기는 민중 영웅이 미천한 혈통을 지닌 인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정평구의 영웅적 행적은 일상성과 평범성(범인, 凡人)의 차원에서 형상화되고 있다. 전설 속 정평구는 대단한 힘이나 신비로운 증표를 가진 인물은 아니지만, 일상적 도구들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와 우스꽝스러운 행위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있다. 이러한 정평구의 모습은 비범한 영웅보다는 국난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민중들의 모습에 더 가까운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역사 속 정평구는 비차(飛車)라는 시대를 앞선 발명품을 만들어 진주성 싸움의 승리를 도운 인물이지만, 설화 속 정평구는 민중 영웅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그 영웅적 행위는 평범한 민중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실존했던 정평구의 행적과 형상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화 속 정평구의 형상과 대비해 보고자 한다. 정평구는 임진왜란 때 비차(飛車)를 만들어서 전쟁에 공(公)을 세운 인물이라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공식적인 역사서에는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정평구가 비차를 만들어서 전쟁 때 일정한 공을 세웠다는 내용도 구비 역사적 차원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은 『여암전서(旅菴全書)』의 「책차제(策車制)」와 이규경(李圭景, 1788~?)도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비거변증설(飛車辨證說)」<sup>130)</sup>에 ‘비차가 영남 읍성이 왜군에 포위되었을 때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라는 관련된 역사 기술은 있으나, 정평구가 비차를 만들었다는 등의

129) 김난경, 앞의 논문, 220쪽.

130) 신경준, 『여암전서』, 景仁문화사, 1979, 영인본, 권8, 차제책' 88-92쪽.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상, 권, “비거변증설(비차변증설) 상, 명문당, 1982, 34쪽.

:박성래, 「尹達圭의 飛車: 韓國 飛行機의 前史」, 『역사문화연구』 1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3, 6-7쪽, 재인용.

정평구와의 연계성에 대한 기술은 없다.

본격적으로 정평구가 임진왜란 때 비차를 발명한 인물로 기술되기 시작한 때는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이다. 주로 신문 매체의 기사에 실렸으며, 당시 여타의 건달형 인물들은 야담이나 재담집에 이름과 행적이 실리는 경우와 크게 다르다. 정평구는 주로 조선의 여러 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름과 행적이 소개된다. 일제강점기에 근대계몽을 선전하는 신문 기사 소재로 정평구와 비차가 소개되고 있다.

일찍이 정평구를 소개한 기사는 191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미교포들이 발행한 『신한민보』이다.

정평구이란이는 기이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사방까지 초동목수까지도 그 연행을 이야기 삼아 전하거나 이 사람이 진주에서 나는 수레를 지어 타고서 먼 곳까지 날아갔단 말이 전하니<sup>131)</sup>

기사는 정평구를 ‘기이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그의 행적을 글을 모르고 식견이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이야기를 나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평구의 행적을 설화적 허구화가 된 건달 행위의 이야기와 구비 역사적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정평구와 비차에 관한 일이 함께 구비 연행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정평구가 진주성 싸움에서의 비차 사용에 관한 기술을 하면서도 이 신문 기사는 이와 같은 정평구의 행적이 ‘말로 전해지고 있다.’며, 그 기사의 출처가 구비 전승 역사임을 밝히고 있다.

정평구에 대한 매체의 기사 논조는 1920년대 들어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기사화가 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진다.

다음은 『동아일보』에서 최남선이 <조선역사강화>를 연재한 칼럼이다. 최남선은 임진왜란을 이겨낸 역량은 조선인의 독창성이 발휘된 까닭이라고 지적하며, 그 중심에 정평구를 소개하고 있다.

임진란은 국민적으로 공전한 자국민만큼 조선인의 독창성이 가장 만하이 전역을 통하여 발휘되니 이순신의 귀선(龜船) 이하 여러 해전구와 정평구의 제작으로 전하는 진주성의 비차(飛車)의 외에도 경주의 역에는 장손의 창제한 비격진천뢰라는 공성구를 써서 기공을 거두니 이는 세계에 있는 박격포의 효시이오 호남 소모사변이중은 화차란 것을 창제하여 야전에 쓰고 권을 행주의 첩을 힘을 크게 입으니 화차는 ‘탱크’의 조(祖)라 할 것이다.<sup>132)</sup>

최남선은 임진왜란의 원인을 조정의 무능이라고 보았으며, 반대로 그 전쟁을 종식시킨 것은 조선인의 역량이 하나 둘씩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인의 역량은 독창성이며, 그 독창성의 산물은 이순신의 거북선, 정평구의 비차, 이장손의 비격

131) 「비행기를 처음만든 자는 조선 사람이라」, 『신한민보』, 1918. 01. 17.

132) 최남선 撰, 「朝鮮歷史講話 (21)」, 『동아일보』, 1930. 02. 04.

진천뢰 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음의 기사는 계몽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과학 지식 보급을 위해 발명학회에서 기고한 칼럼이다.

세종대왕은 우리글을 창안 발명하시었고 측우기를 만들어 우량을 측정하는데에 사용하게 되었고 이순신은 거북선을 발명하였으며 정평구는 비차를 발명하고 변이중은 화차를 발명하였으며 이장손은 비격진천뢰를 발명하였음은 과거조선에 발명적 천재가 불소(不少)하였든 바를 여실히 증명하거나 당시에는 이러한 발명가를 선양(宣揚)하며 발명을 보호장려할 마오 수단방법도 쓰지 아니한 까닭에 발명가가 발명가로 행세를 못하고 발명품이 발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었다.<sup>133)</sup>

이 글의 요지는 과학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선의 발명가와 발명품으로 세종대왕의 한글과 측우기, 이순신의 거북선, 정평구의 비차, 변이중의 화차, 이장손의 비격진천뢰 등과 같은 상당히 높은 업적이 있음에도 발명가와 발명품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또 그들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이 근대화에서 멀어지게 된 원인이라고 비판적 진단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발행된 신문 매체 속에서 정평구는 일본에 국토를 강탈당했던 100년 전 임진왜란과 당시의 상황을 중첩시켜 비차의 발명가이며, 전쟁 극복의 원동력이었던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이전 시기까지는 정평구와 비차와 관련된 이야기는 구비 역사적 차원에서 구비 전승되어 왔으며, 공식적인 역사서에서 그의 활동 내력을 기록한 자료는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시대적 차원의 요청에 정평구는 비차를 만든 문화 영웅으로 해석되며, 해방 이후에도 정평구는 문화영웅, 시대를 앞선 발명가라는 수식어가 강화·고착되며 TV, 도서 등 다양한 매체에 오늘날까지 소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평구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인식한 시각에서 전승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정평구 전승 자료로 가) ⑤자료인 <제사상 정성 부족하다고 혼낸 혼령 정평구>이다. 이 이야기는 정평구 전승 자료 중에서 가장 이질적 유형에 속한다.

- 1) 정평구는 아들에게 재산을 넉넉히 남기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상을 떠났다.
- 2) 아들은 아버지인 정평구의 제삿날 음식을 차려놓고 잠이 들었다.
- 3) 아들의 꿈 속에 나타난 정평구는 새벽이 되어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며 꾸짖으며, 찢값으로 손자를 데려 가겠다고 하였다.
- 4) 아들은 새벽 닭 울음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 막둥이를 찾아보니, 막둥이가 모닥불 곁에서 재가 되어 죽어 있었다.

133) 김용관, 「과학조선건국운동의 과거급(及) 현재」, 『동아일보』, 1935. 04. 19.

5) 이런 일이 있는 후에 정평구의 후손들은 제사를 더욱 정성껏 지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제사 차린 정성 부족하다고 해 끼친 혼령>유형에 속하는 자료이다. 제사를 정성껏 지내지 않는다고 하여 죽은 조상의 혼령이 어린 후손에게 해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주로 이야기 말미에는 후손들에게 제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야기가 끝을 맺는다. 제사는 유교적 윤리와 규범적 가치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사를 강조한 이야기는 유교적 윤리와 규범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전설 속 정평구와 앞으로 보게 될 건달 정평구의 이야기는 중세적 이념을 지향하는 보수적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반중세적 이념을 지향하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이야기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는데, <제사상 정성 부족하다고 혼낸 혼령 정평구>는 정반대적 성격을 갖는 이야기와 유형적 결합이 이루어진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김제의 전승자들은 이 이야기가 정평구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 예로 지역 문화원에서 발행한 설화집과 디지털김제문화대전<sup>134)</sup>에서도 정평구의 이야기라며 <제사상 정성 부족하다고 혼낸 혼령 정평구>가 수록되어 있다.

디지털김제문화대에 이 이야기를 채록·수집한 상황과 내력을 기록한 글이 있어 흥미롭다. ‘이 유형의 이야기는 동래정씨 문중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sup>135)</sup>라고 설명되어 있다. 정평구 후손들인 혈연 집단 안에서 정평구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제사상 정성 부족하다고 혼낸 혼령 정평구>의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평구 후손인 김제의 동래정씨 혈연집단이 언제부터 정평구의 제사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승시켰는지는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동래정씨 문중에서 정평구에 대한 인식은 일제 강점기부터 신문매체들에 의해 강화되었던 비차 발명가 정평구인 문화 영웅이란 평가에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추정케 한다. 또한, “금계 서손이라고 하든, 그 손들이 거시가 안 좋게 생각혀. 화를 내서 막 서손이 아니라고, 금계 서손이라 영리한다, 거시기를 과거를 못 봤다는, 서손들은 그 전에 과거를 못 봤잖아요.”<sup>136)</sup>라고 하여 김제의 전승자들은 오늘날 정평구가 서자출신이라는 등의 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언급하는 것을 후손들이 좋아 하지 않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정평구와 비차에 관한 것이 김제지역 내에서 구비 역사 차원에서 전승되어오다가 일제강점기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인물평이 이루어지면서, 그의 담론이 후손들에게까지 강화·고착되어 보수적 성향이 짙은 <제사상 정성 부족하다고 혼낸 혼령 정평구>이야

134) <http://gimje.grandculture.net/?local=gimje>

135)

[http://gimje.grandculture.net/Contents?local=gimje&dataType=01&contents\\_id=GC02601720](http://gimje.grandculture.net/Contents?local=gimje&dataType=01&contents_id=GC02601720)

136) 제보자: 박정도(75세, 남, 전북 김제시 부량면 신두리 선인마을), 조사일시: 2012.07.31, 한 정훈, 앞의 논문, 각주 24) 인용, 17쪽.

기를 전승시키게 한 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sup>137)</sup>

다음은 설화의 허구적 윤색이 강화되며 유형화된 이야기로 흥미와 재미 중심의 이야기인 건달 정평구 전설이다.

- 나) ① <아버지에게 혼나기 싫은 정평구>  
② <가난한 친구의 조상 뒷자리 마련해주기>
- 다) ① <대동강(물,논,오리)팔기>  
② <거짓말을 해보라고 해서 거짓말하기>  
③ <담배장수가 담배주지 않아서 누명 씌우기>  
④ <공짜 담배 얻어 피우기>  
⑤ <상전의 말을 팔아버리기>  
⑥ <상전이 등에 쓴 편지 고치기>  
⑦ <절름발이 속여서 자신이 살기>  
⑧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 풀 먹게 하기>  
⑨ <여자 속여서 입 맞추기>  
⑩ <외도한 부인 혼내주기>  
⑪ <주막집 주인 자식에게 막말하고 도망가기>  
⑫ <주인 있는 돼지 팔기>  
⑬ <다른 사람의 밥을 빼앗아 먹기>

나) 자료는 김제의 건달 정평구의 개별적 성격을 드러낼 만한 이야기이다. 유형화된 건달형 인물 전설은 아니지만, 풍자와 해학이 드러나는 속임수이야기로 유형화되기 이전에 지역 안에서 전승된 건달 정평구이다. 다) 자료는 건달형 인물전설로 유형화된 이야기로 ⑩,⑬번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은 모두 공통 삽화로 분류된 것들이다. 전설적 역사 인식을 드러내는 가) 자료와 달리 나), 다) 자료는 설화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건달 정평구 이야기이다.

예전에 아버지한테 한참 혼날 일이 있었는데요. 혼날 일이 있었는데, 한참 맞게 생겼으게 달아났답니다. 달아났는데, 인제 힘이 부치니깐 아버지한테 맞게 생겼으니깐 갑자기 작대기로 금을 긋더니 “여기 넘어오는 사람은 내 자식이다” 그랬데요.[웃음] 허니깐 아버지가 그 인제 금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어 더 이상 쫓아가지 못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거죠.<sup>138)</sup>

위의 인용문은 나) ① <아버지에게 혼나기 싫은 정평구>이다. 정평구는 아버지에게서 체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치다가 힘이 들자, 작대기로 땅에 선을 그어 ‘이 선을 넘어

137) 김난경, 위의 논문, 233-235쪽.

138) 개인 채록 자료.

오면 내 자식이다.’라고 아버지를 향해 외쳐 위기를 모면했다는 내용의 해학적 이야기이다. 정평구의 재치와 기지가 돋보이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나) ② <가난한 친구의 조상 밭자리 마련해주기>이다. 공통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평구에게는 청렴한 선비 친구가 있다. 그러나 그 친구는 하구 세끼의 끼니를 때우기조차 어려움을 만큼 가난했다. 정평구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명풍수에게 명당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여 당산에 밭자리를 잡아주었다. 명풍수는 재질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정평구를 골탕먹이기 위한 숨은 의도가 들어있었다. 며칠 후, 정평구는 당산에 봉분이 없이 평평하게 암장을 하고 서울의 높은 대감이 당산의 명당에 묘를 쓴다는 소문을 냈다. 마을 노인들은 이를 막을 방도를 고민하다가 정평구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거짓 봉분을 만들면 서울 대감이라도 그 묘를 허물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정평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산에 암장한 묘에 봉분까지 연게 되었다.<sup>139)</sup>

정평구가 청렴한 선비 친구를 위해 속임수로 당산에 명당자리를 공짜로 얻었다는 내용으로 사회적 관념과 금기에 대한 도전하고자 하는 골계적 성격이 강한 이야기이다. 정평구가 친구의 명당자리를 얻고자 명풍수에게 찾아가지만, 명풍수는 정평구가 수단과 재주가 좋은 인물이라는 소문을 확인하고자 당산(堂山)이 명당자리라고 알려준다. 명풍수는 소문난 정평구의 재주를 확인하고자 한 속셈으로 당산(堂山)을 명당이라고 했지만, 당산은 마을의 수호신이 좌정되어 있는 곳이라 여기는 신성 공간이므로 명당자리라고 지목한 명풍수의 말은 틀린 것은 아니다. 정평구는 명당인 당산에 밭자리를 마련하고자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의 높은 대감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서울 대감이 당산에 밭자리를 삼으려 한다는 소문을 퍼트려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주도면밀한 계획의 속임수를 꾀한다. 마을 사람들은 정평구에게 방도를 부탁하고, 정평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당산에 봉분이 있는 무덤을 거짓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양반이라도 남의 묘는 파지 못할 것’이라고 해결책을 내놓는다. 그리하여 결국 정평구는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봉분까지 만들어 친구에게 명당자리를 마련해주며, 자신의 수단과 재주를 명풍수에게 증명한다.

전통사회에서 당산(堂山)은 신성과 금기의 공간이다. 당산이 명당이라고 인식하고 그곳에 밭자리를 삼는 정평구의 행위는 전통 사회의 관념적 사고와 금기에 대한 도전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신성과 금기의 공간이라고 굳게 믿었던 당산에 가짜 무덤까지 만들게 했던 가공의 인물인 서울 대감의 위세가 실제로 당시 지배계층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한다.

나) ①과 ② 자료에서 정평구는 외형적으로는 기지와 수단이 좋은 인물이며, 내면적으로는 관념적 사고에 반기를 드는 골계적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평구의 형

139) <당산에다 명당 쓴 이야기>, 『김제』, 70-71쪽, <당산에 쓴 명당>, 『벼골』, 115-120쪽.

상은 가) ①-④까지의 정평구의 임진왜란 활약담과의 인물 성격과 일정하게 맥을 달고 있다. 정평구의 형상은 다) 자료인 유형화된 건달형 이야기로 확장되어, 저자거리나 길 거리를 돌아다니며 생물학적 욕망의 결핍을 드러내는 인물의 형상으로 변화·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유형화된 건달 정평구이야기는 다) 자료와 같이 13개의 삽화가 현재 전승되고 있으나, 유재 송기면의 「정평구전」에 실린 삽화들과 함께 ‘오늘날까지도 노인들은 그에 관한 일을 이따금 말하면서 포복절도하고 있다.’<sup>140)</sup>라는 유재의 서술에서 건달 정평구이야기는 김제 지역 안에서 다양한 삽화의 이야기가 전승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 다) ③과 ④삽화는 담배를 소재로 한 이야기로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과 정평구, 4인이 함께 전승시키는 공통 삽화이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시대에 담배 소비가 평민층에게까지 널리 유행하면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당대 사회상을 적극 반영하여 형성된 건달형 인물의 이야기로 김제의 전승자들도 이러한 사회상에 호응하여 건달 정평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 전승·향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형화된 건달 정평구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전승되는 삽화는 다) ① <대동강(물,논,오리)팔기>이다.

- 1) 정평구는 한양 사람에게 제주방죽에서 놓고 있는 물오리가 자신의 것이라며 헐값에 사가라고 한다.
- 2) 한양 사람은 돈이 되겠다는 생각에 수천마리 중에서 반수를 계약하고, 그 증거로 오리 몇 마리를 잡아서 한양 사람에게 준다.
- 3) 한양 사람은 오리를 잡을 사람을 데리고 제주방죽으로 왔지만, 오리가 모두 날아가서 잡지 못한다.
- 4) 한양 사람은 정평구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자, 정평구는 자신의 재산인 오리를 전부 날려 보냈으니 자신에게 배상하라고 오히려 따진다.

건달 정평구의 <제주 방죽의 오리 팔기>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김선달의 <대동강 물 팔기>유형에 속하는 자료이다. 대동강을 제주 방죽으로 공간의 변이가 이루어져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이야기로 변화되었다. 정만서는 대동강이 한강이라고 화소가 변화되어 1편이 전승되고 있어서 <대동강 물 팔기>가 지역적 변이형(oico type)으로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것이 건달 정평구라 할 수 있다. 건달 정평구의 <제주 방죽의 오리 팔기>는 대동강을 김제에서 잘 알려져 있는 장소인 제주 방죽으로 이야기의 공간을 옮겨 놓았다. 공간의 변이를 통해 지역적 특색에 맞는 이야기로 변화되었고, 이를 통해 ‘평양의 김선달과 대동강’과 같이 ‘김제의 정평구와 제주 방죽’이라는 지역적 친연성이 강한 화소로 형성된 이야기가 되어 김선달 못지 않게 건달 정평구의 삽화 중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다. 건달 정평구 이야기는 김선달 유형의 영향권 아래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sup>141)</sup>하는 것도 이와 같은 면모 때문이다.

140) 박완식 역, 『유재집』, 이화문화사, 2000, 663쪽.

평양의 김선달은 한미한 계급의 선비 형상을 갖춘 인물이며, 정만서와 방학중은 하층민의 형상을 한 인물이다. 또한, 김선달은 심사숙고하는 계획형의 속임수를 피한다면, 정만서와 방학중은 즉흥적인 속임수를 주로 피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김제의 정평구 전설의 전승자는 서자 출신으로 심사숙고하며 계획형의 속임수로 임진왜란에 활약한 정평구가 김선달의 형상과 유사하다고 여겨서 <대동강 물 팔기>를 수용하여 지역적 특색에 맞는 건달 정평구의 이야기를 형성·전승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현재까지도 김제의 전승자들은 건달 정평구의 대표적인 속임수 이야기라 하면 <제주 방죽 오리팔기>를 가장 먼저 기억한다.

김제의 정평구 전설은 두 가지의 형상으로 전승된다. 하나는 평범한 범인의 모습과 행위로 침략자와 맞서 싸운 민중 영웅의 형상을 갖춘 정평구 전설이다. 비차와 연관된 정평구의 전설은 구비 역사와는 다른 전설적 역사성을 갖는다. 전설의 역사성은 허구적 서사 속에 담겨있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차원의 역사적 진실과 연결된다.<sup>142)</sup> 이야기 속 정평구가 평범한 범인의 지혜와 속임수로 침략자를 물리친 면모는 설화 전승자들로 대변되는 일반 민중과 닮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전북 김제의 민중들이 겪었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진실이 허구적 서사화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설화 전승집단은 정평구를 비차를 만든 대단한 발명가로 서사화하지 않고, 평범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형상화하여 자신들을 닮은 친근한 인물로 서사화하였다. 이러한 서사화는 임진왜란은 민중의 힘으로 싸워나간 전쟁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지배계층의 무능력함으로 기나긴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했지만, 결국 정평구와 같이 미천한 신분이라고 천대받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지혜와 패기가 전쟁을 극복한 힘이며, 정평구는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그들을 형상화한 인물인 것이다. 김제의 설화 전승자의 민중 우의의 의식은 전란을 겪었던 조선 민중의 보편적 각성이면서도 동시에 전라도 지역의 특수성도 동시에 갖는다.<sup>143)</sup> 특히 전라북도에는 체제 수호적 영웅보다는 체제 저항적 영웅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형성·전승되는 곳이다. 전북의 사회문화적 풍토가 지배적 질서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민중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어서 반체제적 영웅의 속성이 체제 내적 영웅의 속성을 압도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44)</sup> 실제로 전북은 경북지역과 달리 보수성이 강한 지역은 아니었으나, 넓은 호남평야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 수탈과 양반 지주들의 횡포가 극심했던 지역으로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민중들의 사고가 의식의 각성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정평구 전설과 같이 안으로는 신분제라는 사회

141) 김현선, 앞의 논문, 113쪽.

142) 신동훈, 「사명당 설화에 담긴 역사인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38집, 고전문학회, 2010, 282쪽.

143) 김난경, 앞의 논문, 26-237쪽.

144) 김월덕, 앞의 논문, 304쪽.

적 모순에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며, 밖으로는 침략자와 당당히 맞서는 민중적 힘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형성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임진왜란이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내부 세계의 모순점을 인식하고 대결함으로써 민중적 우위를 자각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김제의 전승자들은 대결해야 할 세계가 확장되고 다변화되면서 새로운 세계와 대결·갈등을 형상화할 새로운 인물 유형의 이야기가 요구되었다.<sup>145)</sup> 그것이 바로 건달형 인물 전설이다. 건달형 인물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상품화폐경제체제로의 변화해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새로운 인물 유형이며, 건달형 인물은 저잣거리를 주 공간으로 활동한다.

전북지역은 조선시대 정기시장이 처음 발생하고 성장한 곳이다. 18, 19세기 당시 전라도는 경상도 다음으로 정기시장을 비롯한 저잣거리에서 상품과 특산물이 결집·유통되었다. 전북에서 남원과 전주가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이들 중심지의 거점 지역 역할을 한 곳 중에 김제는 순창의 뒤를 잇는 대규모 상업 지역이었다.<sup>146)</sup> 이러한 변화된 새로운 물결 속에서 전북 김제의 설화 전승자들 역시 변화된 세계와의 대결 양상을 형상화할 인물로 골계적 성격을 갖춘 정평구를 다시 재요청하여, 건달형 인물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변이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결해야 할 세계가 변화하였으므로 정평구의 인물 유형 역시 민중 영웅에서 건달의 형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145) 인물전설은 자아와 세계의 대결 양상에 따라 인물 유형이 달라 질 수 있다.: 한정훈, 앞의 논문, 23쪽.

146) 박선진, 「전북지역 정기시장의 특징과 변화-조선후기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지리교육논집』 34, 서울대학교, 1994, 79-88쪽.

#### 4. 서귀포: 피쟁이 하인- 변인태

제주도 서귀포의 변인태는 다른 건달형 인물과는 다른 행적과 형상을 보인다. 김선달은 한미한 가문의 양반, 정만서와 방학중은 하층민, 정평구는 서자 혹은 한미한 출신의 하급 관리등의 형상을 갖는다면, 서귀포의 변인태는 전승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그 신분이 관노(官奴)라는 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관노는 관아(官衙)에 소유된 노비로 행동의 제약이 많이 따르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여타 다른 건달형 인물이 저자 거리나 길거리를 자유롭게 오고가는 것과는 달리 변인태는 관노라는 신분으로 인해 행동과 이동의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변인태 전설에서 변인태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유별난 행적을 남긴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앞서 II장에서도 확인했듯이 변인태의 공통 삽화는 2편뿐이고, 나머지 9편이 단독 삽화에 해당된다. 다른 건달형 인물과 교집합을 보이는 삽화보다 차집합의 삽화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독자적이고 개별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서귀포의 변인태 삽화는 독자적이고 개별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변인태 전설은 꽤 많은 관노인 변인태와 상전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립·갈등을 소재로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와같이 꽤 많은 하인이 상전을 골려먹는 내용의 설화는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광포설화 유형으로 일명 ‘피쟁이 하인’형 설화이다. 변인태 전설은 소재나 내용면에서 일정하게 ‘피쟁이 하인’형과 유형적 동질성을 갖는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달형 인물 전설로써 변인태 전설은 개별적 성격이 강하지만, 설화 유형적인 면에서는 보편적 성격을 갖는다.

다음은 변인태 전설의 공통 삽화와 단독 삽화를 정리한 사항이다.

- 가) ① <거짓말을 해보라고 해서 거짓말하기>
- ② <상전의 음식을 빼앗아 먹기>
  
- 나) ① <봉화불에 고기 굽기>
- ② <조방장의 음식 빼앗아 먹기>
- ③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 요구하는 상전을 혼계하기>
- ④ <상전에게 쇠방석이 뜨겁다고 하기>
- ⑤ <짚신의 크기 똑같이 만들기>
- ⑥ <원님의 순력을 나무라기>
- ⑦ <조방장이 ‘뺨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모르는 척하기>
- ⑧ <조방장의 부인과 오입하기>
- ⑨ <성주를 속여서 절 받기>

가)는 공통 삽화이고, 나)는 단독 삽화로 분류된 자료이다. 나)의 단독 삽화들은 꽤 많

은 하인과 상전 간의 대립·갈등 양상을 그려낸 내용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가) ① <거짓말을 해보라고 해서 거짓말하기>삽화는 정만서 2편, 정평구 5편이 함께 전승되는 자료이다. 변인태는 총 8편의 삽화가 전승되고 있어서, 변인태의 공통 삽화 중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는 자료이다. 특히 정만서와 정평구의 경우는 이 삽화 속 화소들이 대동소이한 반면에 변인태의 삽화 속 화소들은 제주도의 서귀포라는 지역적 특징에 맞추어 변이가 이루어진 점이 특징적이다.

변인태의 <거짓말을 해보라고 해서 거짓말하기>삽화의 공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변인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밭에서 김을 매는 마을 사람들이 변인태에게 거짓말을 한 번 하고 가라고 한다.

2) 변인태는 지금 왜배가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는데, 거짓말 할 여유가 없다고 가버린다.

3)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모두들 봉화불을 붙이려고(혹은 소식을 알리려고) 혼비백산한다.

4) 이후에 마을 사람들은 변인태의 거짓말인 줄 알고 변인태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나무라자, 변인태는 '거짓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대답한다.

이 삽화는 건달형 인물이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 성격을 갖는 인물이라는 점이 잘 부각되면서, 동시에 풍자와 골계적 성격을 갖는 건달형 인물 전설의 서사적 면모도 드러나는 이야기이다. 서귀포의 변인태는 밭에서 일하는 마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보라는 재촉에 '왜군이 쳐들어와서 소식을 전하러 간다.' 혹은 각편에 따라서는 '봉수대에 불을 붙이러 가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급히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정만서와 정평구의 각편에서는 '부자 양반에게 구휼미를 타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달리 서귀포라는 지역적 특징에 부합되게 거짓말의 화소가 변이되었다. 또한, 변인태의 거짓말에 상대인물인 마을 사람들의 대응 방식 역시 다르게 나타나는데, 봉수대에 불을 붙이러 가야한다거나, 남편에게 알려 봉수대에 불을 붙이게 해야 한다는 등의 김을 매던 일을 멈추고 왜군의 침입을 알려야 한다며 허둥지둥 달려 나가는 모습들이 연출된다. 마을 사람들 역시 서귀진에 소속되어 있는 군졸, 망하님(봉화불 관리하는 하인) 혹은 그들의 가족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변인태 전설의 주 전승지역인 서귀포의 옛 지명은 서귀진(西歸鎭)이다. 조선 시대의 제주도는 군사 시설로 3성(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군사·방어시설로 9진(화북진, 조천진, 별장진, 수산진, 서귀진, 모슬진, 차귀진, 명월진, 애월진)을 두었는데, 서귀진은 9진 중에 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변인태의 거짓말과 상대인물의 형상이 변이되어 서사화된 것이다.

또한, 이 삽화는 상대인물을 변이시켜 풍자와 골계적 성격을 드러내는 이야기로도 전승되며 정만서와 정평구 그리고 변인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정만서와 정평구는

거짓말을 해보라고 재촉하는 상대인물로 시골의 가난하고 한미한 가문의 양반<sup>147)</sup>, 변인태는 강별장<sup>148)</sup>으로 각편에 따라서 변이가 이루어지면서 각각의 건달형 인물들이 거짓말로 상대인물을 골탕을 먹이는 연유도 변화한다. 정만서와 정평구는 양반이라는 허울만 가지고 정만서와 정평구에게 거짓말을 해보라며 욕박지르는 양반의 허세를 풍자하기 위해서 구휼미를 얻으러 간다는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양반도 구휼미를 받으러 간다며 길을 따라 나서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묘사된다. 변인태는 품삯도 주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강별장을 골탕을 먹이고자,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짓말을 해서 김을 매던 마을 사람들을 도망가게 만들어버린다.

서귀진의 전승자들은 변인태를 ‘변인태(邊仁泰)는 서귀진(西歸鎭)의 관속(官屬) 하인이었다. 지모(智謀)가 뛰어나고 거짓말 잘하기로 유명하였다.’<sup>149)</sup>, ‘변인태 같이 기지가 뛰어난 사람’<sup>150)</sup>이라고 평가하면서 ‘옛 어른들이 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변인태 같은 사람’<sup>151)</sup>이라 말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거짓말을 해보라고 해서 거짓말하기> 삽화는 변인태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적 변이를 통해 건달형 인물 전설의 유형적 동질성과 개별성을 갖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통 삽화 중에서 많은 편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② <상전의 음식을 빼앗아 먹기>삽화는 ‘피쟁이 하인’유형의 삽화 중 초·중반의 서사에 배치된 삽화로 하인이 상전을 속여서 상전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정만서 1편, 방학중 8편 그리고 변인태가 2편을 전승되는 공통 삽화이다. 이들 삽화의 내용은 유사하다. 피 많은 하인이 상전의 음식에 콧물이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상전의 손가락을 일부러 뜨겁게 만들어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등의 속임수로 상전의 음식을 빼앗아 먹었다는 줄거리로 이루어진다. 변인태 전설에서 변인태와 대립하는 상대인물은 조방장(助防將)으로 등장하고 있다. 조방장은 9진(화북진, 조천진, 별장진, 수산진, 서귀진, 모슬진, 차귀진, 명월진, 애월진)중에서 명월진을 제외한 8개의 진을 관장하는 하급관리이다. 관노인 변인태는 서귀진 조방장을 모시는 일이 주된 업무로 이야기 속에서 묘사되고 있다.

나) ① <봉화불에 고기 굽기>, ② <조방장의 음식 빼앗아먹기>, ③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 요구하는 상전을 혼계하기> 삽화들은 하인과 상전 간의 대립·갈등 양상을 그린 이야기로 가) ②삽화와 일정하게 유형적 동질성을 갖으며, 변인태 전설로써의 일정한 변이를 보이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나) ①, ②, ③삽화들에서 변인태와 조방장 간에 음식을 두고 일으키는 갈등 양상의 원인은 유사하나 변인태의 대응방식은 나) ①, ②삽화와

147) <정만서의 거짓말>, 『대계』7-1, 434-437쪽, <정만서와 가난한 정승>, 『대계』7-3, 125-126쪽, <시골양반 골탕먹인 이야기>, 『김제』, 71-72쪽

148) <변인태>, 『대계』9-3, 82-96쪽, <변인태>, 『대계』9-3, 390-391쪽.

149) 『제주도전설』, 126-131쪽.

150) 『대계』9-3, 266-272쪽.

151) 개인 채록 자료

③삽화에서는 달리 나타난다.

나) ① <봉화불에 고기 굽기>삽화는 변인태의 단독 삽화 중에서 가장 많은 편수가 채록된 자료이며, 공통 삽화까지 통틀어서도 그 편수가 가장 많다. 공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변인태는 조방장의 밥상에 올라 갈 고기를 일부러 태운다.
- 2) 조방장은 고기가 탔다고 불평을 하며, 변인태에게 고기를 불에서 멀리 놓고 구우라고 시킨다.
- 3) 다음날에 변인태는 멀리 있는 봉화불을 바라보면서 고기를 들고 서 있다.
- 4) 조방장은 변인태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고기를 불에서 멀리 놓고 구워야 한다고' 해서 봉화불에 굽고 있다고 대답한다.

변인태가 조방장을 속임수로 골탕을 먹이고자 결심하게 된 것은 조방장이 평소에 '음식 투정이 심해서' 혹은 '새로 부임한 조방장이 까탈스럽게 굴어서'가 원인이 된다. 그리하여 변인태는 조방장이 먹을 고기를 일부러 태워서 밥상에 올리는 것으로 속임수를 계획한다. 속임수의 계획은 '먼 불에서 고기를 구우라'는 조방장의 잔소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에 진행될 변인태의 속임수 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변인태는 조방장의 말을 일부러 과장되게 해석하여 먼 산에 있는 봉화불에 고기를 굽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한다.

나) ② <조방장의 음식 빼앗아 먹기>삽화 역시 위의 이야기와 같이 변인태가 조방장의 말을 자기에게 유리한대로 해석하여 속임수를 꾀한다. 공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조방장은 변인태에게 닭을 삶아 오라고 하면서 닭에 손도대지 말고 고스란히 가져오라고 한다.
- 2) 변인태는 닭의 배를 살짝 잘라서 내장을 꺼낸 후에 찹을 두둑하게 넣고 삶았다.
- 3) 조방장은 삶은 닭이 배에서 내장을 꺼낸 흔적이 없자, 변인태에게 닭을 '어떻게 삶았느냐'고 묻는다.
- 4) 변인태는 '손도대지 말고 고스란히 삶으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하자, 조방장은 변인태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장을 꺼내지도 않은 것은 더럽다며 변인태에게 '너나 먹어라'라고 준다.

문맥상에 드러나는 갈등의 원인은 조방장의 부도덕한 식(食)의 욕망 때문이다. 조방장은 닭을 삶아서 가져오라고 하면서 변인태에게 '음식에 손도 대지 말고 고스란히 가져오라'고 명령하는데, 그의 말을 통해 평소에 윗사람으로써 넉넉지 못한 마음 씀씀이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하인인 변인태를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기보다는 하나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닭백숙을 독점하고자하는 조방장의 식의 욕망과 행위는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지배계층의 부도덕한 욕심을 축약·집약해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변인태는 윗사람답지 못한 상전을 골탕을 먹이고자 닭백숙을 빼앗아 먹기로 결심하고 속임수를 계획한다. 속임수를 계획하는 변인태의 면모는 나) ②<봉화불에 고기 굽기>에서 계획한 것과 유사하게 진행한다. 조방장의 말을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점과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바보스러운 하인인 척 연기하며 속으로는 계획한 속임수를 능청스럽게 진행한다는 점이다. 변인태는 ‘손도 대지 말고 고스란히’ 가져오라는 조방장의 말을 언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닭을 손질하지 않고 고스란히’ 삶아서 가져오라는 것으로 유리하게 일부러 해석하여 속임수를 계획한다. 변인태는 조방장의 명령에 충실하게 이행한 것처럼 거짓된 행동을 하며 닭의 내장을 꺼낸 흔적을 최소화하여, 쌀을 가득 품은 닭백숙을 조방장에게 가져간다. 계획한 변인태의 속임수에 넘어간 조방장의 닭의 내장을 꺼낸 흔적이 보이지 않자 더럽다면서 닭백숙을 변인태에게 쥐버린다. 각편에 따라서 변인태는 조방장이 보는 앞에서 닭백숙을 맛있게 먹었다는 결말을 맺기도 하여, 조방장을 향한 조롱의 풍자를 한층 높이기도 한다.

나) ③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 요구하는 상전을 혼계하기>삽화는 앞서서 보았던 나) ①, ②삽화와 같은 원인은 같으나, 대응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하인들에게 엄동설한에 딸기를 가져오라는 상전의 무도한 횡포에 변인태 스스로가 앞장서서 정면에서 반박한다는 점이다.

“오명 보나 네 새끼 뱀 웅매(雄馬)가 십디다”

스포허는 말은

“너 이놈아, 웅매가 어떻 새끼 배느냐?” 허난,

“스포님, 동지선달에 탈은 어디십니까?”

대답이 서계? 경한 해결했노랜허여.

변인태는 상전에게 찾아가서 ‘수컷의 말(馬)이 새끼를 뱀다.’는 말은 가당치도 않은 말도 공감함을 구한 뒤에 ‘추운 겨울에 딸기를 찾아오라’는 상전의 명령 역시 이와 같으며 직접적으로 꾸짖는 양상을 보인다.

나) ①, ②와 ③삽화는 조방장으로 대변되는 상층인물인 지배계층이 그 신분에 맞지 않게 행동하며, 자신의 욕심만을 탐하는 인물이라서 변인태와 대립·갈등 양상이 형성된다. 또한, 음식을 매개로 이들의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점 역시 공통점이라 하겠다.

가) ② <상전의 음식을 빼앗아 먹기>삽화를 비롯해서 나) ①, ②삽화와 같이 하인이 상전의 음식을 빼앗아 먹거나 나) ③삽화 같이 상전이 하인에게 음식을 매개로 무도한 횡포를 부리는 등의 내용은 상전과 하인의 신분갈등 설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갈등 양상이

다. 강정식은 변인태 전설이 음식을 매개로 갈등을 맺는 양상을 하인이 상전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하인의 대립 양상이 풍족한 식생활을 누리는 지배계층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반감<sup>152)</sup>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표피적 해석에 머문 것 이라고 판단된다. 상전의 음식은 지배계층의 권위와 특권을 상징한다. 당시 조선사회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에 따른 복장과 주거 형태 등이 엄격하게 제한시켜 지배계층이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만한 사회적 구조를 갖는다. 설화 속에서 하인이 상전을 위해 준비한 음식은 지배계층이 누린 특권적 권위의 상징이며, 상전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하인의 행위는 그 특권의 권위를 비판·도전의 행위라 할 수 있다. 변인태 전설 속에서는 이러한 비판적 의식이 나) ①, ②삽화에서 변인태는 관노로써 조방장에게 예속된 인물이므로 조방장 앞에서는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하인인 척 능청을 부리지만, 속으로는 속임수를 꾀하여 조방장이 뒷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우회적으로 희롱하는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반면에 나) ③삽화의 변인태는 주종관계에 예속된 인물임에도 상전을 향한 비판 의식은 직접적·적극적 태도로 맞선다.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을 가져오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층계층의 무도한 횡포에 세상의 이치에 맞지도 않은 말을 비교하며, 예속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노골적인 비판을 한다. 변인태 전설 중에서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야기 속에서 형상화되지 않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으로 상층계층을 향한 비판적 태도가 정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공통적으로 제주 목사의 순력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삽화들이다. 나) ④<상전에게 쇠방석이 뜨겁다고 하기>, ⑤<짚신의 크기 똑같이 만들기>, ⑥<원님의 순력을 나무라기>삽화들에서도 변인태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상전의 부도덕성을 속임수를 통해 우회적인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변인태 전설이 보이는 공통된 면모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④<상전에게 쇠방석이 뜨겁다고 하기>삽화로 변인태가 재치와 기지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부분의 단락이다.

어떤 목사가 새로 내리와서 도내순역島內巡歷을 하고 정방폭포를 구경하게 되었는데 서귀포 조방장이 바쁘게 여러 가지 시중(侍從)하다가 따뜻한 쇠방석을 갖다바치는 것을 깜박 잊었수다. 쇠방석을 제때에 갖다 바치지 못하면 불기매를 맞일 판입니다. 그때 베인태를 열른 검질(발에 매논 잡초)을 때고 그 불에 쇠방석을 넣고 막대기로 불을 케우리며(뒤적거리며)

“어 떠불라. 어 떠불라(아이고 뜨거워라)” 히수다.

스또가 이것을 보고

“너무 뜨거우민 조금 식히서 가져오라” 히수다.

베인태는 이 틈에 낭불(나무로 땀 불)에 쇠방석을 멘드롱해서(알맞게 따듯하게 해서) 갖다 줬다고 합니다.<sup>153)</sup>

152) 강정식, 앞의 논문, 44쪽.

변인태는 조방장을 따라서 목사의 제주 순력 때에 허드렛일을 바쁘게 하다가 정방폭포를 구경할 때 앓은 목사의 쇠방석을 따뜻하게 데워놓는 일을 깜빡 잊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뒷사람을 편히 모시지 못한 죄로 곤장을 맞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 변인태는 순간적인 기지로 쇠방석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짓된 행동의 속임수로 위기를 모면하는 행동을 보인다.

⑤ <짚신의 크기 똑같이 만들기>삽화는 순력 시에 변인태 자신에게 과중한 노동이 부과되는 것에 항의하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공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변인태는 제주 목사의 순력에 관속관노들의 밥을 지어주고, 신발을 만들어주는 일에 힘이 들어죽을 지경이었다.

2) 변인태는 관속관노들을 골탕을 먹이려고 신발의 크기를 아주 큰 것과 아주 작은 것만 수백 켤레를 만들어 버렸다.

3) 관속관노들이 발에 맞는 신발이 없으며 변인태를 혼을 내자, 변인태는 ‘제 속으로 낳은 자식도 맞추지를 못하는데 남의 자식을 어찌 맞추느냐’고 한다.

변인태는 순력에 동원된 관속관노들의 음식이나 짚신 등의 순력 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만들며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 일을 한다. 그러나 순력에 동원된 많은 인력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일은 당연히 역부족이다. 결국 변인태는 그들을 보필하는 일이 과중한 노동임을 깨닫고 속임수를 계획한다. 관속관노들에게 항의하고자 짚신의 크기를 아주 크게,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들을 골탕을 먹이는 방법으로 나름의 시위를 계획한다. 변인태의 이와 같은 속임수의 계획은 단순히 관속관노들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목사의 순력은 제주 고을과 군주둔지를 순시하고 민정을 살핀다는 좋은 취지를 갖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순력에 동원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과 공급은 전적으로 제주민의 몫이다. 척박한 삶 속에서 공적 행사에 동원되어 수탈에 준하는 일을 당했던 제주민의 삶을 변인태라는 최하층민을 내세워 이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변인태는 항의 끝에 곤장을 맞는 형벌이 내려지지만, ‘제 속으로 낳은 자식들도 맞추지 못하는데, 남의 자식을 자신이 어찌 일일이 맞출 수 있느냐’며 관속관노들을 남의 자식으로 비유하여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노동이 과중한 것임을 우회적으로 항의하며 맞선다.

목사의 순력은 공식적인 업무와 행사이지만 나) ④, ⑤삽화 속의 변인태와 같은 피지배계층에게는 제주도에 과중하게 부과되는 공물이나 부역과 같이 목사의 순력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고역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나) ⑥ <원님의 순력을 나무라기>삽화는 본분을 잊고 순력을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목사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목사의 순력을 바라보는 제주민의 시각이 반영된 이

153) <변인태>, 『구전』9, 210-214쪽.

야기라 할 수 있다.

아, 이놈의 정의원은 어떻사 심으쟁이가 곳인지(심술이 고약한지) 그디아올라(그디마저도) 다 관길 딱라가렌(따라가라고) 하니 자, 그 걸영 가랭 홀 수 없인(없어서) 가메에다 관길 멧 개 흐젠 흐민 그 가메 들를 사름 흐다 보민 인력이 오죽 소모될 가파게(쩍니까).

변인태와 상전의 주된 갈등은 신분과 직분에 어긋난 행동 때문이다. 이 삽화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목사의 고약한 성품과 순력이라는 미명아래 관기들을 대동하여 유람놀이에 빠진 목사의 행동에 변인태를 비롯한 순력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된다.

변인태가 물(말)을 이꺼네(이끌고) 가는다, 가다네 그 쉼돈 월라봉 앞의 가가난에,

“저 슝 물은 나가 이끄커라.”

“경해여(그러지).”

확하게끔 기생 가메 물 이경 가단 슝도 물을 이경 가명, 이제는 그 월라산 앞의 간 타령을, 줄타령을 부쩌네(붙여서), 그 원님 들으랜 흐는 소립주게(소리지요).

변인태는 부역에 동원된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나서서 제주 목사를 조롱하고자 속임수를 꾀한다. 그의 계략은 제주 목사가 외지인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제주 방언을 사용하여 조롱의 노랫가락의 타령을 부르는 것이다. 변인태는 목사의 말고삐를 잡고 월라산의 길을 안내하며 ‘하문혈엔 물이 곤곤, 역두형은 거딱거딱, 우리 슝도 아랫 무실(마을)도 거딱거딱’이라고, 월라산의 지형이 성기의 형상을 갖는 역두형인 점을 빗대어 목사의 음탕한 짓을 조롱한다. 목사는 자신이 농락을 당하는 지도 모른 채, 관기나 끼고 경치나 구경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순력에 동원된 제주 사람들은 변인태의 타령에 웃음과 침묵으로 조롱과 비판하는 것에 동조한다. 그러나 이후에 목사가 자신이 조롱을 당한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도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비난을 당한 것으로 징치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

나) ㉞ <조방장이 ‘씹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모르는 척하기>과 ㉟ <조방장의 부인과 오입하기>삽화는 두 삽화가 결합되어 하나의 완결된 서사를 갖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변인태가

조방장과 그의 아내를 속여서 결국 조방장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골계성을 함의한 내용의 이야기이다. 신분이 낮은 인물이 양반의 부인을 범한다는 내용을 지니는 이야기는 변인태 전설 외에도 ‘건달 장활용과 놀아난 평양감사 부인’<sup>154)</sup>, ‘시골놈이 대감 부인과 성교한 이야기’<sup>155)</sup>등의 유사한 구조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또

154) 『대계』2-1, 강원도 강릉 명주군편, 217-223쪽.

155) 『대계』6-1, 전남 진도군편, 651-653쪽.

한, 탈춤의 말뚝이도 상전의 애첩을 희롱하거나 범하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상하관계를 역전시켜 지배계층의 권위를 조롱하거나 뒤집는 내용을 갖는 이야기들에서 등장하는 여러 화소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나) ⑦,⑧삽화의 공통 서사 정리이다.

- 1) 조방장은 부인의 길잡이로 어리숙하게 보이는 변인태를 삼고자 ‘씹을 아느냐’고 묻는다.
- 2) 변인태는 일부러 귀를 ‘묻는 것이냐’고 묻자, 조방장은 ‘사람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대답한다.
- 3) 변인태는 다시 눈언저리를 만지며 ‘이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방장은 ‘아니다’라고 대답하며 ‘정말로 씹을 모르느냐’고 다시 물어도 변인태는 일부러 모른 척을 한다.
- 4) 조방장은 변인태가 ‘씹’을 정말로 모른다고 생각하여 변인태를 길잡이로 삼아서 부인을 본가(本家)로 보낸다.
- 5) 변인태는 일부러 산 중을 헤매서 조방장의 부인을 산 속에서 노숙하게 만든 후에 추위와 어둠을 두려워하는 조방장의 부인의 마음을 이용하여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
- 6) 조방장의 부인은 변인태에게 지난밤의 일은 비밀로 하자고 당부하며 옷감과 돈을 준다.

1) ~ 3)단락은 조방장이 변인태가 여성의 몸을 아는지 알아보기 알아보려고 변인태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담긴 내용이다. 변인태는 조방장의 의중을 간파하고 순종적이고 어리숙한 하인인척 거짓 연기를 한다. 조방장은 변인태에게 속임을 당해 변인태가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를 모른다고 선불리 판단하여 아내의 길잡이로 변인태를 함께 보내고 만다.

4) ~ 5)단락은 변인태의 계획된 갖가지 속임수로 조방장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내용이다. 변인태의 속임수 전략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조방장의 아내가 어두운 산 속에서 자신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조방장의 아내 스스로가 변인태에게 욕정을 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변인태는 속임수가 진행되는 동안에 속마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어리숙한 하인인척 연기하며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치밀하고 영리한 면모를 보인다.

6)단락은 변인태가 지난밤의 일을 비밀로 조방장의 아내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내용이다. 각편에 따라서 변인태는 돈이 필요할 때면 조방장의 아내에게 찾아가 겁박하여 돈을 뜯어낸다는 다소 남성중심의 폭력적 결말을 맺기도 한다.

서사 속에서 지배계층의 권위를 조롱하기 위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화소로써 변인태가 조방장의 아내를 범한다는 문학적 수사는 다소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시각을 드러내는 이야기 전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조방장의 아내가 남성의 부속물처럼 그려지고 있으며, 심지어 서사 말미에는 변인태에 의해 겁박을 당하기까지 하는 등의 객체화되어 형상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건달형 인물 전설의 주 향유층이 남성이고<sup>156)</sup>, 주인공 건달형 인물도 남성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남성주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계<sup>157)</sup>라고 꼬집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단선적 해석에 머문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조방장의 태도에서 변인태를 위시한 피지배계층을 인식하는 지배계층의 우월적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변인태가 남녀간 음양의 이치를 모를 것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속단해버린 것이다. 변인태가 계책한 속임수 조방장이 속임을 당한 것도 있지만, 조방장은 변인태가 천민(賤民)이라하여 세상의 이치마저 모를 것이라고 미리 예단해버렸기 때문에 변인태에게 쉽게 속임을 당한 것이다. 조방장의 아내를 유혹한 변인태의 행위는 신분이 천하다하여 자신들을 무지몽매한 존재로 인식한 조방장, 즉 조방장으로 상징되는 지배계층들이 피지배계층들을 바라보는 무지한 관념적 사고를 도발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하여 조롱·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배계층의 관념적 사고를 조롱하는 또 다른 이야기로 나) ⑨ <성주를 속여서 절 받기>삽화이다. 변인태의 속임수로 성주(城主)가 민간 신앙을 모시는 당(堂)에 절을 했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지배계층은 제주도를 비롯한 민간신앙을 미신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탄압하며, 피지배계층을 교화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유교이데올로기를 교육시킨다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하였다. 오로지 성리학을 위시한 사상적 토대만이 가장 합리적·이성적인 학문이라고 믿으며, 포용보다는 배타적이고 경직된 사고로 드러낸다. 변인태에게 속임을 당한 성주 역시 관념적 사고에 얽매인 지배계층으로 등장한다. 변인태가 성주를 대상으로 속임수를 꾀하는 연유가 다른 상대인물과 소(牛)를 두고서 내기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변인태가 성주를 상대로 속임수를 계획하는 방법은 성주를 비롯한 지배계층들의 관념적 사고에 대한 조롱이 깔려있다. 변인태는 일부러 책방에 몰래 불을 지른 후에, 성주에게 찾아가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난 것은 당(堂)에 정성이 부족한 탓일 수 있다며 감성적인 호소를 구한다. 성주는 원인모를 화재와 변인태의 호소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체통을 잃는 행동이라며 난색을 표하긴 하지만, 결국 변인태의 꼬임에 넘어가서 늦은 밤에 당을 찾아서 세 번이나 절을 한다. 변인태는 내기를 한 상대인물과 함께 당산나무에 올라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변인태는 상대인물과의 내기에서 승리를 자축한다.

변인태는 건달형 인물전설에 속하는 인물이지만,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 정평구와는 사뭇 다른 형상을 가진 인물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변인태 전설은 피 많은 하인이 상전을 속여 상하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일련의 설화 유형과 맥을 닿고 있다. 건달형 인물인 변인태 전설이 신분적 대립을 주된 내용으로 삼게 된 것은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먼저, 제주도는 오랫동안 수탈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제주도의 전복, 말, 굴 등의 특산품은 나라에 진상되는 공물 품목으로 제주 민중의 고향의 상징이 되었다. 제주 민중들은 국가에 바치는 공물을 대는 것도 힘겹거니와 성종이

156) 조동일, 앞의 책.

157) 임재해, 앞의 논문, 252쪽.

후부터는 목민관 이하 관들이 진상제를 남용해 자기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기회로 도구화하거나, 임금의 선심을 얻고자 엄청난 진상품을 요구하는 등 극심한 민폐를 자행하였다.<sup>158)</sup> 심지어는 진상품을 마련하려고 사노비를 비롯한 공노비까지 노동력을 확보하려 했으며, 18세기에는 진상의 막중한 부담으로 결국 도민들의 피역현상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에 와서 더욱 강화되어 제주민들에 대한 수탈이 더욱 강화되었다.<sup>159)</sup> 제주도의 오랜 수탈의 역사는 지배계층에 대한 반발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단적 저항이 발생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제주도는 육지와 달리 시정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840년대 저술된 이원조 목사 『탐라지초본』에서는 ‘뭍에는 장시가 없고, 재화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포목만 사용하므로 매매가 매우 어렵다’<sup>160)</sup>고 서술하였다. 또한 제주도를 찾는 육지의 상인들이 존재하지만, 제주 상인과의 왕래는 별루 긴밀해 보이지 않았으며 화북포와 조천포는 포구가 존재하였어도 도내 유통에 활용된 포구일 뿐이었다. 그리하여 19세기 중엽까지 제주도에는 장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61)</sup> 그러므로 변인태 전설은 시장경제체제 사회의 영향 아래 형성된 여타 건달형 인물전설과는 그 형성 배경이 사회·문화사적 면모가 달랐으므로 전승되는 건달형 인물이야기의 목록 역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변인태 전설은 세 가지 차원에서 건달형 인물전설의 유형에 속한다. 첫째, 여타 건달형 인물과 같이 서귀포라는 전승지역명과 함께 변인태라는 이름이 함께 호명된다는 점이다. 서귀포의 변인태 전설의 전승 양상 역시 서귀포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고 있다는 점 역시 공통된 양상이다.

둘째, 재치있는 속임수로 상대방을 골탕 먹이거나, 골려주는 일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변인태는 관노라는 계층적 특성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속임수가 진행되며, 상대방은 끝까지 자신이 속임을 당한지도 모른다.

셋째, 날카로운 웃음으로 풍자적 면모를 보인다.

그러므로 건달형 인물전설인 변인태 설화는 지역변이유형에 해당된다.

이상으로 평양의 김선달, 경주의 정만서, 영덕·영해의 방학중, 김제의 정평구, 서귀포의 변인태 5인의 각기 다른 전승지역에 따른 건달형 인물들의 개성적 형상과 별별되는 지점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158) 김동전, 「제주도의 공물진헌에 대한 고찰」, 『제주사학』, 창간호, 제주대 사학과, 1985년, 32쪽.

159) 박찬식, 「19세기 제주 지역 진상의 실태」, 『탐라문화』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268-269쪽.

160) 이원조, 『耽羅誌草本 上』, 「風俗」, 邑無場市 貨不用錢 只用布木 賣買極艱

161) 양정필, 「18세기 후반 김만덕의 경제활동 재고론」, 『사학연구』125호, 사학연구회, 2017, 243-260쪽.

## IV. 건달형 인물전설의 이행기적 성격과 의미

앞 장에서는 건달형 인물전설은 유형적 동질성을 갖는 보편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전승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에 따라서 건달형 인물별로 개성적인 형상과 성격을 갖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건달형 인물들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사회에 시정 세태 속 분위기를 반영하여 형성된 인물형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건달형 인물전설이 이행기 사회에 형성된 문학작품으로써 그 의미와 의의를 보다 선명하게 규명하고자, 동시대에 형성된 문학 작품들과의 비교·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구비문학 속에 등장하는 골계적 성격을 갖는 판소리의 방자형 인물, 탈춤의 말뚝이형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물형들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 그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 1. 판소리·탈춤에 등장하는 유사 인물과의 비교

판소리(또한 판소리게 소설)와 탈춤은 건달형 인물전설과 함께 조선 후기 사회를 반영하며 형성된 작품들이다. 특히 이 작품들에서 방자형 인물과 말뚝이형 인물은 건달형 인물을 비롯하여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 유형에 해당된다. 이들은 서로 계층적으로 제각각이지만, 재치있는 말과 행동으로 웃음을 자아내며 작품 속에서 풍자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본 장에서는 세 인물형이 작품 속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며 비교·논의를 진행한다. 상대 인물과의 갈등 양상을 통해 드러나는 욕망 지향의 수동성과 능동성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인물형들의 풍자적 성격과 조선 후기의 이행기 문학의 특징을 아울러 살펴본다.

#### 1) 갈등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욕망 지향의 수동성과 능동성

##### (1) 제한된 욕망 지향의 수동성

방자형 인물은 <춘향전><sup>162)</sup>과 <배비장전>에 등장한다. 이 인물형은 갈등 관계를 맺는 상대 인물과 봉건적 예속 관계에 놓인 인물이다. 갈등의 표면적 원인은 상층인물의 범속한 욕망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관념적 사고에서 비롯된 위선적 태도가 주된 원인이 된다.<sup>163)</sup> 방자형 인물은 상층인물의 위선과 허위를 폭로하는 것과 동시에 신성과 우아의

162) 이고본 『춘향전』을 기본 자료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며, 보조자료로 『남원고사』를 이용한다. 두 자료는 『춘향전』이본 중에서 방자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 자료와 보조자료로 삼는다.

영역에 존재한다고 여겼던 상층계층도 범속한 욕망을 가진 동등한 인간이라는 점을 확 인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방자형 인물은 상전과의 갈등 상황이 촉발되면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며 장난스러운 태도로 상전의 약점을 잡아 조롱거리로 삼는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반상의 차별이라는 현실적 질서가 작품 속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순응과 조롱이라는 상반된 방자형 인물의 태도는 상전의 행동에 따라 변화하며, 같은 지배계층이라 할지라도 순응하는 존재와 그렇지 않고 풍자적 대상으로 삼아 조롱거리가 되는 존재로 양분되는 태도를 보 이기도 한다.

먼저, 이도령과 방자 간의 첫 갈등 양상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방자의 이중적 태도가 잘 드러나는 단락이다.

사또 자제 이도령이 책방(冊房)에 있어 학업(學業)에 힘쓰더라, 호협방탕(豪俠放蕩)하여 청 루주사(靑樓酒肆) 출입을 즐기더라. 때는 마침 오월 천중가절(天中佳節)이라. 춘흥(春興)을 못 이 기어 방자 불러 분부하되, “너희 고을 강산승지(江山勝地) 몇 군대고?” 방자놈 여짜오되, “공부하 시는 도련님이 승지 찾아 무엇하요?” 도령님 하는 말이, “악양루(岳陽樓) 높은 집에 소동파(蘇東 坡)의 글이 있고 악양루 높은 집에 두자미(杜子美)도 놀아 있고, 상산사호(商山四皓) 네 노인도 바 득 두고 놀았으니, 아니 놀고 무엇하리. 승지강산(勝地江山) 일러다고,” 방자놈 시기가 왕거미 똥 꾸녕이었다. (중략) 도련님 좋아라, “그리하면 광한루 구경가자.”<sup>164)</sup>

이도령과 방자의 갈등은 이도령의分別심을 잃은 색(色)의 욕망추구와 그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이러한 이도령의 태도는 광한루에서 춘향을 첫 대 면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 방자의 풍자적 대 상이 된다.

이도령의 위선적 태도를 확인하기 전까지 방자는 충복(忠僕)한 하인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한다. 그러다가 이도령의 위선적 태도를 확인한 후부터 방자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 작한다. 이도령은 학업에 정진해야 할 직분과 양반사대부가의 자제로써 그 체통을 잇은 채 술집이나 수시로 출입하는 등의 방탕한 생활이 원인이 되어 방자와 첫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만약 이도령이 직분과 체통을 지켰다면 방자와 이도령은 갈등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며, 방자는 충복으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을 것이다.<sup>165)</sup>

첫 갈등 양상에서 방자는 충직한 하인의 위치에서 이도령에게 진심 어린 충고의 말을 전한다. 아직은 이도령의 위선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방자에게 이도령은 믿고

163) 김흥규, 「방자와 말뚝이: 두 유형의 비교」, 『한국학논집』 5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0, 5쪽.

164) 성현경 풀고 옮김, 『이고본 춘향전』, 보고서, 2011, 151-153쪽.

165) 정출현, 「『춘향전』의 인물형상과 작중역할의 현실주의적 성격」, 『판소리 연구』 제4집, 판소 리학회, 1993, 113쪽.

따를 만한 상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자는 사또의 엄한 분부로 자신이 혼이 난 다며 이도령에게 감정적 호소를 전하는가 하면, 이도령의 위치와 그의 직분에 대해 간접적으로 환기시켜주는 등의 우호적 관계에서 이도령을 설득해보려고 노력한다.

본격적으로 방자의 태도가 변화하며 이도령과 대립적 관계로 전화되는 지점은 바로 이도령이 방자의 충심을 무시한 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괴변을 늘어놓으면서부터이다. 단지 색(色)의 욕망에 충실해서 방탕하게 지내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어려운 고사를 인용하며 대단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둘러대는 이도령의 허세와 위선적 태도를 확인한 방자는 ‘시기가 왕기미 동구녁이었다.’라고 뒤틀린 감정의 조롱 섞인 말을 속으로 삭이며, 겉으로는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도령이 원하는 바대로 광한루로 인도한다. 방자의 이중적 태도는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이도령의 약점을 이용하여 조롱과 풍자적 태도가 강화되어 불손한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하인으로 서의 직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본격적으로 방자와 이도령 간의 갈등 양상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은 이도령이 광한루에서 춘향을 본 후, 그녀를 향한 범속한 욕망을 방자에게 발각되면서이다. 이들의 대립적 관계의 힘의 우위는 방자가 점하며 진행된다.

방자놈 한참보다가, “무엇인지 아니 뵈오.” “네 눈에 삼승겹포장을 들렀느냐? 자세히 보아라” “축시에 보아도 아니뵈오.” “상놈의 눈은 양반의 발의 티눈만도 못하것다. 저 건너 송림(松林)중에 하양 희뜩하고 별 진(辰) 잘 숙(宿)하니 아마도 선녀 하강하였다보다.” 방자놈 대답하되, “도련님, 망령이오. 신선출처 들어보오. 춘풍 석고 높은 곳에 성진이 없었으니 선녀 희룡 뉘가 할까, 선녀라니 될 말이오” ...(중략)... 이도령 역정내어, “그러면 네 할미냐? 내 첩이나? 조롱 말고 일러다고, 너는 이곳에서 생어사장어사(生於斯長於斯)하였으니 자세히 일러다고.” 방자놈 민망하여, “저 건너 녹림간(綠林間)에 추천하는 처녀를 물으시오?” “그 처녀를 보아하니 여항(閭巷)처녀는 아니로다.”<sup>166)</sup>

이도령이 광한루에서 처음 본 춘향을 향해 욕망을 드러내며, 방자에게 춘향의 정체를 묻고 그녀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방자와 이도령의 대립 양상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들의 대립 관계에 따른 힘의 우위는 방자에게 있다. 방자는 상전을 모시며 수족과 같이 움직이는 인물이다. 상전의 내밀한 속사정까지 잘 아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방자가 우위를 차지하는데, 이도령은 방자에게 춘향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면서 ‘너는 이곳에서 생어사장어사(生於斯長於斯)하였으니 자세히 일러 다고’라고 하는 말과 같이 방자는 남원이라는 공간에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물이지만, 이도령은 그렇지 않다. 방자는 춘향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숨긴 채, 이도령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삶의 공간인 남원 고을의 사정을 잘

166) 「이고본 춘향전」, 161쪽.

아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상적 삶의 지혜를 이용하여 이도령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양상은 <배비장전>의 방자와 배비장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이야기의 주 공간이 제주도는 방자의 삶의 터전이지만, 배비장은 외지인으로 낮은 공간에 해당된다. 방자형 인물이 공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일상적 삶에서 체득한 지혜가 이도령이나 배비장으로 상징되는 문자를 통해 얻은 관념적 사고의 지식보다 우위에 존재함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춘향전>에서 방자는 춘향이 이도령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유교적 도덕률을 강조하며 이도령에게 직접 찾아오길 바란다는 편지를 받아와서 이도령과 함께 편지를 읽는 장면에서 사고방식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도령 받아보니 글자 넷이 쓰였구나. 이리 보고 저리 보되 문리(文理)를 모르겠다. “방자야 이 글이 무슨 글인지 아무래도 모르겠다.” 방자놈 받아들고, “문장이라 일컫더니 글 네자를 모르시오. 이것은 무슨 자요?” “기러기 안자다.” “소인은 무식하니 육담(肉談)으로 아뢰리다. 물 본 기러기 물 보고 오라는 안자요. 이것은 무슨 자요?” “나비 접자다.” ‘탐화광접(探花狂蝶)이 꽃 보고 오라는 접자요. 이것은 무슨 자요?’ “게 해자다.” “게는 구멍따라 오라는 해자요. 또 이것은 무슨 자요?” ‘비둘기 구자다.’ “관관저구 재하지주(關關雎鳩 在河之洲) 요조숙녀(窈窕淑女) 찾아와서 금슬우지(琴瑟友之) 즐기자는 구자요.”<sup>167)</sup>

춘향의 편지를 받아 본 이도령은 한자로 적힌 글자를 전혀 해독하지 못한다. 물론 한 글자씩의 한자는 읽어내려갈 수 있어도 춘향이 쓴 네 글자의 전체 의미를 해독해내지 못한다. 춘향의 편지는 춘향의 지성과 재치가 돋보이는 수준의 언어유희로 자신의 의도를 글자 이면에 숨겨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도령은 경전과 시문 위주의 독서와 과거 공부로 인하여 문자에 대한 경직된 사고로 춘향의 편지 속 문자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지를 못한다. 결국, 이도령은 글자도 모르는 방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방자는 한자를 모르는 일자무식이지만 이도령보다 세상의 이치가 밝고 눈치가 빨라 춘향이 보낸 편지의 의미를 간파하고 문자 이면에 숨은 의미를 해독해낸다. 춘향의 편지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방자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체화된 삶의 지혜가 문자 속의 지혜보다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방자는 춘향을 향한 범속한 욕망에 사로잡힌 이도령의 형태를 약점 삼아서 자신의 욕망 충족시키려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방자의 익살스러운 풍자적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에 해당되는 단락이다.

“바로 이르리다. 본읍 기생 월매 딸 춘향인데 불승춘정(不勝春情)하여 추천(鞦韆)을 하나 보오.” 이도령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이 황홀하여, “이에 방자야, 네 말 그러하면 창기(娼妓)가 분명

167) 「이고본 춘향전」, 168쪽.

하니 한 번 보면 어떠하냐?” 방자 여짜오되, “그런 분부 두 번 마오. 사또 만일 아시면 소인 불기에 널 드러놓고, 오는 해 창고자(倉庫子)는 거지중천(居之中天) 떠나가니 도련님 성화가 나서 방자를 달래는데, ”내 말을 들어보아라. 탐화광접(探花狂蝶) 미친 마음 아무래도 죽겠구나, 네 나를 살려 주면 내년 수노(首奴) 갈데 있다. 어서 바빠 불러다오.“ 방자놈 여짜오되, ”도련님, 그러시오. 반상분의(班常分義) 내버리고 형우제공(兄友弟恭)하옵시다.“ 도련님 욕심에 계관하여 ”그래주마.“ ”그리하면 나보다 손아래니 날더러 호형(呼兄)하소.“ 이도령 그 말 듣고 ... (중략)...방자놈 돌아내려 ”반심(班心)을 못 버리고 오입(誤入)이란 무엇이오? 싫거든 그만 두어“ ... (중략).. 방자놈 뿌리치며 ”다시는 말을 마오.“ 이도령 급한 마음 죽으면 대수냐, ”방자야!“ ”네.“ ”형님!“ 방자놈 돌아서며, “우애, 내 아누냐?”<sup>168)</sup>

방자는 공간적 우위를 바탕으로 춘향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초래하는 과정까지 너스레를 떨면서 일부러 지체하여 이도령의 마음을 애간장을 끊게 한다. 춘향에 대한 정보를 손에 쥐고서 이도령을 희롱하는 방자의 모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상대의 욕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태도이다. 즉, 일부러 지체하여 이도령의 욕망을 최고조로 상승시켜 그의 과잉된 욕망을 약점 삼아서 방자,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그래서 방자는 이도령의 범속한 욕망을 이용하여 돈 오백냥과 값어치있는 물건을 받아내거나, 수노(首奴)자리까지 약속을 받아내는 등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한다. 이본인 <남원고사>에서는 방자의 너스레에 속이 탄 이도령이 방자에게 ‘관청에서 나는 물건을 모조리 챙겨서 진상하겠다’<sup>169)</sup>라는 약속까지 받아낸다. 이러한 방자의 세속적 욕망을 실현하고자 적극성은 춘향을 설득·희유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이도령과의 만남을 종용하면서 ‘이번 길의 틀어지면 너의 자당(慈堂) 잡아다가 성장(聲張)치고 태장쳐서 착가엄수(着枷嚴囚)할 터인즉 오려거든 오고 말려거든 말아라’<sup>170)</sup>라고 위협을 하기도 한다. 또한, <남원고사>의 방자는 ‘남원 거시 네 것시오 운향고이 아름답치라 네 덕이 날 관청고즈나 허여 거드러거려 호강 좀 허여 보겠고나’<sup>171)</sup>라며 신분 상승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그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켜 춘향에게 세속적 욕망을 부추기기도 한다.

그다음은 범속한 욕망에 사로잡힌 이도령을 풍자의 대상으로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범속한 욕망에 눈이 먼 이도령이 ‘방자 형님’이라고 호칭을 달리하거나 방자의 요구를 서슴없이 들어주는 등의 방자가 원하는 바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은 신분의 상하관계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보이는 등 이도령을 조롱거리로 전략한다.

<춘향전>의 방자와 같이 <배비장전>의 방자도 상대 인물의 약점을 파고들어 조롱거

168) 「이고본 춘향전」, 161-164쪽.

169) 김진영 외 편저, 「남원고사」, 『춘향전 전집』5, 박이정, 15-16쪽.

170) 「이고본 춘향전」, 167쪽.

171) 「남원고사」, 18쪽.

리로 삼고, 또한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면모를 보인다.

(비) 이놈 그러면 네가 나도 정비장 갖흔 사람으로 인명흐느냐 내가 큰소리 흐는 것이 아니라 경향편답 수십년에 절디가인 경국미식 두름으로 보앗건만 왼편 눈이라도 한번만 쏘끔 엮으면 인스가 아니다.

(방) 그러하시면 황송호오니 소인과 니기흐옵시다.

(비) 무슨 니기를 흐랏느냐

(방) 나리귀옵서 상경흐시기 전에 저 계집에게 눈을 아니 쓰옵시면 쇼인의 슈다 식구덕에 가서 든 안밥을 먹겠습고 만일 나으리긔서 저 계집에게 반호오시면 타신 말을 쇼인 쥬옵소서비비장 장담호되

(비) 그 일은 어렵지 안타 말갑시 천금이나 니가 만일 지게 되면 안구 써서 너를 쥬마<sup>172)</sup>

배비장은 서사 초반부터 일관되게 허위와 위선적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방자 역시 배비장을 향한 비판적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춘향전>의 방자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배비장은 심임사또 부임의 주연에서 동료 비장들의 모습과 기생에 빠진 정비장을 양반의 권위와 체면에 어긋난 일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호언장담을 한다. 그러나 배비장의 위선적 태도는 방자를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인 제주목사와 애랑에게 일찍이 들통이 나버리고 만다. 이를 모른 체 배비장은 허위와 허세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방자는 그 허위의 포장을 끊임없이 조롱거리로 삼는다. 만약 배비장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풍자적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춘향전>과 같이 <배비장전>에서도 배비장의 범속한 욕망이 고조될수록 방자의 조롱 역시 강화된다. 배비장이 목욕하는 애랑의 모습에 색(색)의 충동에 그녀의 정체를 물어 보지만, <춘향전>의 방자와 같이 일부러 대답을 지연시켜 배비장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는다. 배비장의 욕망이 최고조에 이르러서는 '근래에 서울 량반들 양반 즈세호고 계집이라 흐면 체면업시 욕심널 데 아니 닐데 분간업시 함부로 덤병이다 봉변도 마니 당호옵디다 나으리도 시골이라고 업수이 여기지 말고 정신 좀 차리시오'<sup>173)</sup>와 같이 방자의 조롱이 공격적 언사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배비장을 향해 훈계나 나무라는 식의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아 상하의 관계가 역전되기까지도 한다. 배비장이 범속한 욕망의 나락에 깊게 빠질수록 방자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욕망 추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애랑의 편지를 두고서 배비장에게 흥정을 하는 등의 면모는 <춘향전>의 방자와 유사하다.

그러나 <춘향전>과 <배비장전>에서 방자의 풍자적 성격과 세속적 이익을 지향하는

172) 김진영 외 편저, 「세창서관본 배비장전」, 『실창 판소리사설집』, 박이정, 2004, 162쪽.

173) 「세창서관본 배비장전」, 170-171쪽.

욕망은 상대 인물의 상황인식과 태도 변화에 따라서 함께 변화하거나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춘향전>의 방자는 이도령의 범속한 욕망이 승고한 애정으로 진화·변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방자의 성격과 서사 속 역할이 이전과는 달라진다. 풍자적 성격은 약화되고 이도령과 춘향의 애정 관계를 조력·협력해주는 역할과 기능으로 변화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지지하거나, 이별의 슬픈 감정 등을 함께 교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사적 흐름 속에서 방자의 세속적 욕망은 소거되고 춘향의 욕망을 공유하는 여러 조력자 중에 한 명으로 그 역할이 이동하기도 한다. <춘향전>의 방자는 상대 인물인 이도령의 성격 변화에 따라서 그 역할과 기능이 함께 변화하는 종속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sup>174)</sup> 또한, 이러한 방자의 종속성은 달리 말하면, 상층계층을 향한 감시자로서 깨어있는 민중 의식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한 면모라 할 수 있다. 방자와 이도령의 관계와 같이 상층인물의 위선적 태도가 포착하면 그 풍자적 역할을 강화하는 반면에 그들의 태도가 변화되거나 이상적인 상층인물이라고 판단되면 협력·조력자로서의 역할로 전환되지만, 언제든지 풍자의 대상이나 약점이 포착되면 다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배비장전>의 방자는 욕망 추구하고 풍자적 성격과 그 역할이 변화하지 않고 일관된다. 오히려 배비장이 비속함의 나락으로 하강할수록 방자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상승된다. 그럼에도 <배비장전>의 방자 역시 종속적인 면모를 보이나, <춘향전>의 방자처럼 직접적인 갈등 양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배비장을 향한 방자의 일련의 풍자적 행동과 세속적 욕망 표출은 소위 제주 목사의 암묵적 동의 아래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 목사는 애랑과 배비장을 상대로 계략을 기획하고 배우에서 조종하거나 방조하는 일련의 패턴 내지 연출가<sup>175)</sup>로서의 역할을 하며, 방자와 애랑이 서로 공모하여 배비장을 농락하여 마침내 동헌 앞마당에서 그의 위선이 폭로되도록 사건 전개에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비록 제주 목사의 숨은 조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애랑이 배비장의 비속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필요조건적 인물이라면, 방자는 그 비속함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수위를 결정하는 인물이다.<sup>176)</sup>

<춘향전>과 <배비장전>의 방자형 인물은 신분적 위계질서에 따른 현실의 힘에 논리가 전제된 상황에서 상대 인물과의 대립·갈등 관계를 맺게 되므로 종속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러므로 방자형 인물은 이중적 면모를 취하며, 상대 인물의 약점이 발견되었을 시에 풍자적 성격이 드러나고 그것을 이용하여 개인의 현실적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성도 함께 발현되는 수동적인 면모가 발견된다.

174) 정출현, 앞의 논문, 113쪽.

: 방자는 이도령에게 종속되는 인물로서, 기본적으로 그의 형상에 따라 존재방식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75) 광정식, 「작중 인물을 통해 본 <배비장전>의 양면성- 방자와 사또의 역할을 중심으로-」, 『어문학교육』, 7권, 1984, 112쪽.

176) 박일용, 「조선시대 휘절담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시대애정소설』, 집문당, 1993, 398쪽.

## (2) 욕망지향의 능동적 인물

말뚝이형<sup>177)</sup> 인물도 방자형 인물과 같이 봉건적 예속 관계에 놓인 인물이다. 그러나 방자형 인물과 달리 신분적 위계질서에 따른 현실의 논리가 극 속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갈등적 상황에서 상대인물인 상층계층에게 이중적 면모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말뚝이형 인물이다.

셋째 양반: 막득이란 놈은 제 의붓애비 때부터가 오만한 놈이라 한두 번 불러서 아니 나오  
는 놈이니, 한 번 더 불러보기로 함이 어떨꼬?

넷째 양반: 그놈을 다시 불러? 양반의 체면에 그놈에게 봉욕(逢辱)을 당하면 어찌하겠단 말  
인고?(일동 완강하게 반대하는 등, 이론이 분분하다가)

차양반: 봉욕을 당해도 적잖이 한 섬쯤은 받을 걸세

수양반: 그러나 저러나 봉욕을 호냈서 다 가망할 수 없으니 내가 적당하게 욕(辱)분배를 하  
지, 욕이 만약 한 섬이 내린다며는 지차는 닷 말을 먹고 셋째와 넷째는 꼭 같이 두 말씩 먹고,  
종가 아기는 한 말을 처먹으면 안되겠나?

차양반: 수양반 니는 한 되도 안 처먹겠다 말가!(서로 수양반에게 욕설을 퍼부으니, 수양반  
이 종가의 책임상 봉욕을 독담(獨擔)키로 하고)

수양반: 내가 전 책임을 지고 욕사발을 다 먹을 것이니 다시 부름세.

일동: 이놈 막득아, 이놈 막득아-(이때 말뚝이는 험악한 가면에 마고자를 입고 명주 수건으  
로 한쪽 다리를 잘라매고 마편을 등짐한다)<sup>178)</sup>

위의 인용문은 <수영야류>의 양반과장에서 말뚝이가 등장하는 첫 장면이다. 양반들  
여럿이서 하인인 말뚝이를 불러들이는 장면에서 양반과 말뚝이의 관계가 전복된 현상이  
잘 드러난다. 양반들은 하인인 말뚝이를 부르는 일에 망설이거나 서로에게 미루는 등의  
말뚝이를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극의 첫 장면에서부터 형상화하고 있다. 말뚝  
이가 극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양반들의 언행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가 일반  
적인 상하층의 봉건적 예속관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양반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증명  
이나 하듯이 양반이라는 권위에 기대어 말뚝이를 재차 부르지만 그것마저 거부당함으로  
써 이들의 대립 양상은 극 초반부터 선명하게 드러난다.

말뚝이. 채찍을 좌우로 크게 흔들며 거등거리며 양팔 든 '어름사위'로 활발히 등장 춤추는  
데.(중략) 말뚝이가 양반들의 부름에 돌연 나타나서 모르는 척 하고 채찍으로 위협을 주는 것이고,  
위협을 받은 양반들은 양반의 위신상 겁을 집어먹고 넘어지기까지 하지만 말뚝이의 출현을 외면

177) 탈춤은 도시탈춤을 주 자료로 삼는다. 도시탈춤은 양반과장의 개성이 강하고 말뚝이의 역할  
도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양반 과장 중에서도 말뚝이의 역할이 선명하게 나타  
나는 「수영야류」, 「봉산탈춤」, 「양주별산대」를 주 자료로 삼는다.

178) 강용권 채록, 전경옥 역주, 「수영야류」, 『민속극』,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291-292쪽.

하는 장면이다.<sup>179)</sup>

위의 인용문은 <동래야유>로 양반들의 거듭된 부름에 말뚝이가 등장하는 장면의 지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거드름을 피우며 등장하는 말뚝이의 거만한 태도가 잘 표현된 자료이다. 말뚝이는 양팔을 활개를 치고 한 손으로는 채찍을 흔들면서 위협적으로 등장한다. 위협적이고 당당한 말뚝이의 등장과 달리 양반은 그의 등장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권위와 위세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심하고 볼품이 없다. 이러한 말뚝이와 양반의 대비적 모습은 그가 하인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상층인물에게 복종하지 않는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점과 신분적 위계질서에서 벗어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시각적 대비로 잘 보여주고 있다.

양반 3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3형제 맞이는 생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생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생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생님은 언청이 두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이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 나와서)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小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3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생원이라네> (굿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sup>180)</sup>

<봉산탈춤>의 제6과장의 양반춤으로 말뚝이가 양반들을 조롱하는 부분으로 말뚝이의 풍자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탈춤이라는 장르적 특성으로 인하여 갈등 양상의 형상화 방식이 간결하고 가면과 소품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말뚝이와 지배계층과의 대립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말뚝이의 이름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양반의 말고삐를 잡고 길을 안내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이다. 말뚝이와 양반이 놀이판으로 등장할 때에도 말뚝이가 길을 안내하듯이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 양반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양반들의 외형적 형상은 온전한

179) 천재동 채록, 전경옥 역주, 「동래야유」, 『민속극』,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313-314쪽.

180) 이두현, 「봉산탈춤 대사」, 『한국의 가면극』, 일지사, 1979, 232쪽.

인물이 하나도 없다. 말뚝이는 채찍을 들고 당당하게 등장하는 것과 달리 말뚝이의 뒤를 따르는 언청이, 입이 비뚤어진 양반들과의 시각적 대비는 오히려 말뚝이가 무능한 양반들을 거느리고 등장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들게 한다. 말뚝이는 등장하자마자 ‘양반’의 명호(名號)를 말장난의 대상으로 삼아 양반의 권위와 위엄을 우습게 만들어 버린다. 양반들은 눈앞에서 자신들이 말뚝이에게 조롱을 당한지도 모른 채, 말뚝이의 변명과 아첨이 권위와 그 위엄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말뚝이의 이와 같은 행동은 양반을 오히려 정면에서 조롱·희롱하는 행동이며, 이를 모르는 속는 양반들은 무능력한 존재들이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말뚝이와 양반의 갈등 관계에서 양반은 일방적으로 말뚝이에게 당하기만 한다. 말뚝이는 위세가 당당하지만, 양반은 오히려 말뚝이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같이 말뚝이형 인물은 방자형 인물과 달리 지배계층의 특권적 지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상층 인물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서 방자형 인물이 갖는 종속적인 면모와는 다르다.

생원: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리익은 대초(大棗)빛 같고 울룩줄룩 배비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래이 비호(飛虎)같은데 샌님이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 거저는 잡아눌 수 없습니다.

생원: 오오, 그리하여라. 옛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중략)

말뚝이: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時代)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뭣하오. 돈이나 몇백량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 어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sup>181)</sup>

위의 인용문은 생원이 말뚝이에게 나랏돈을 떼먹은 취발이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하는 장면과 말뚝이가 생원에게 취발이 문제를 두고서 흥정하는 장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생원으로 대변되는 양반계층의 특권적 권위와 위엄은 일절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확인된다. 취발이를 잡아들이라는 생원의 전령(傳令)은 그 권위를 잃은 채, 취발이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취발이가 생원의 전령을 말뚝이에게 직접 확인 한 후에 제 발로 생원을 찾아와 그를 조롱거리로 삼아 버린다. 말뚝이 역시 취발이의 행동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생원의 전령은 말뚝이의 요구에 의해 작

181) 이두현, 「봉산탈춤 대사」, 위의 책, 235쪽.

성된 문서로 말뚝이는 전령으로 상징되는 지배계층의 권위와 위엄이 이제는 작동되지 않은 세계임을 재확인시키는 도구로 활용된다.

취발이 문제를 두고서 말뚝이와 생원은 서로 다른 해결책을 드러낸다. 생원은 특권적 권위를 앞세워 취발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지만, 전령의 상징처럼 더 이상 그러한 세계는 작동되지 않는다. 말뚝이는 주도적으로 생원에게 말뚝이를 처리할 방안을 제시하며, 변화한 시대상을 읽지 못한다며 생원을 나무란다. 즉, 더 이상 특권을 가진 소수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는 저물고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이라는 말뚝이의 말과 같이 세속적인 현실주의의 논리에 의해 작동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생원은 이러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사고관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말뚝이의 해결방식과 목적은 부도덕하다고 여길만하다. 나랏돈을 떼어먹은 취발이를 벌을 주기는커녕 소위 벌금을 내는 방식으로 가볍게 처리하려는 해결방식과 그 해결방식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세속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주목할 점은 말뚝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지배계층은 시대와 호응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의 무능력함을 조롱하며, 봉건적 예속관계를 거부하는 태도를 갖는다. 오히려 지배계층보다 우위를 갖으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세속적·현실적 욕망 추구에 있어서 누구의 구해도 받지 않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자한다. 이러한 말뚝이형 인물의 면모는 조선 후기

### (3) 결핍된 욕망의 능동적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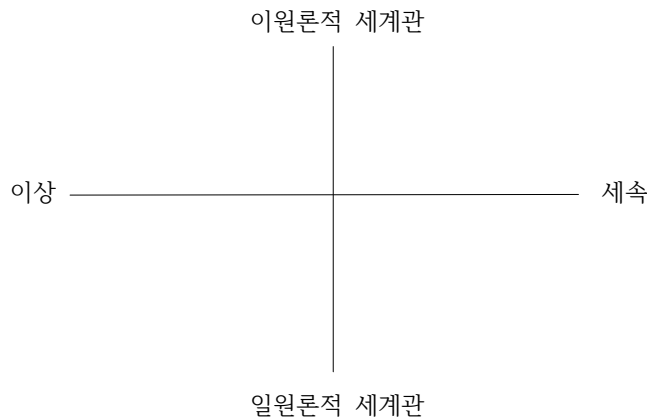
건달형 인물은 앞선 두 인물형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봉건적 예속관계에 놓여있지 않다. 구속됨 없이 자유의지대로 세상을 부유하며 살아가는 인물들로 연구자마다 건달형 인물을 무(無)산자<sup>182)</sup> 혹은 조선 후기에 부농들이 성장하면서 농토에서 이탈한 농민들이 하층민으로 전락했던 시대상을 반영한 인물<sup>183)</sup>이라고 하였다. 건달형 인물은 당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거나 시대와 조우하지 못한 인물들로 저잣거리 등을 돌아다니며 시정의 질서를 농락하여 결핍된 욕망을 해소하는 일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건달형 인물은 자신의 결핍을 인지하고 그 결핍된 욕망을 해결하는 일에 최우선의 과제로 여기고 대단히 능동적·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방자형 인물과 말뚝이형 인물과의 차이점을 보인다.

건달형 인물의 결핍된 욕망은 식(食), 금전, 색(色)등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거나 인지하게 되는 보편적 욕망이다. 그런데 특히 건달형 인물전설은 여타 다른 인물전설들과는 달리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현실적 차원에서 구현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여타

182) 허정주, 앞의 논문, 409쪽.

183)

인물전설은 중세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반영한 이야기들로 조력자나 타고난 혈통적 능력을 앞세워 결핍이나 갈등 양상을 해결하는 등의 비사실적인 허구성을 드러낸다. 이에 반해 건달형 인물전설은 근대적 사고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 일원론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시정세태의 현실세계를 이야기의 주 공간으로 삼으며 일상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또한, 결핍의 인지와 갈등 양상의 해결 역시 사실적인 허구성이 드러나는데, 일상에서 있을법한 재치와 지혜로 상대인물을 속이는 행위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



건달형 인물전설과 여타 인물전설의 변별되는 차이점을 도식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중세문학의 특징중에 하나가 이원론적 세계관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설화문학에서도 적용되며, 건달형 인물전설 이전의 인물전설에서도 이러한 세계관이 반영된 이야기들이 전승되었다. 이러한 인물전설의 주인공들은 눈에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거나, 갈등 상황에서 그러한 힘을 빌리고자 한다. 이성계 전설에서 이성계가 왕업을 이루는 배경에 예언, 신령이나 하늘의 명을 수령하게 되는 과정이 중심 서사로 자리잡고 있으며, 아기장수의 경우도 신성의 명과 신분의 한계의 대립적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대부분 인물전설의 주인공은 거대담론의 이상(理想)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들에 속하지만, 건달형 인물전설의 주인공들은 이와는 정반대항에서 있다. 건달형 인물전설은 신성한 존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이야기 속에서 일체 작동되지 않는 일원론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건달형 인물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선행과 악행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인물형으로 중세적 이데올로기로 쉽게 재단할 수 없는 인물이다. 세속적 질서만이 통용되는 저잣거리가 주된 이야기의 공간으로 인간의 보편적 욕망과 그 욕망의 결핍이 충돌, 대립되는 관계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건달형 인물전설이다. 그러므로 건달형 인물의 결핍된 욕망은 일상생활을 살아가

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들인 식(食), 색(色), 금전적 이득에 해당되나 이 결핍은 삶을 영위하는 한 늘 충족되지 않는 욕망이며, 그 결핍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잠시일 뿐 또 다시 결핍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건달형 인물과 대립 관계에 놓이는 상대인물은 당연히 건달형 인물의 결핍을 해소해 줄만한 인물들이다. 상대인물들은 계층과 계급 그리고 성별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저잣거리나 길에서 우연히 만난 인물들로 특히 상인계층이 다른 계층보다 상대인물로 등장하는 빈도수가 높다.

다음은 건달형 인물이 식(食)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꾀하는 이야기로, 식(食)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상대인물로는 주로 상인계층이 등장한다. 아래의 삽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 1) 정만서는 보신탕집에서 개장국을 먹으면서 개장에서 개 냄새가 난다고 불평한다.
- 2) 정만서는 주인에게 자신의 고장에서는 개장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자, 주인은 그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한다.
- 3) 정만서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니, 주인은 술을 주면서 방법을 알려 달라고 사정을 한다.
- 4) 정만서는 주인에게 석유를 넣으면 한 방울만 넣으면 된다고 알려준다.
- 5) 개장값을 내려는 정만서에게 주인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정만서를 잘 배웅해서 보낸다.
- 6) 주인은 개장을 끓여서 석유를 넣었는데, 냄새도 심하게 나고 사람들도 기름냄새 난다고 난리를 쳤다.
- 7) 주인은 정만서에게 찾아가서 개장국 한 솥을 버렸다고 나무라자, 정만서는 국이 펄펄 끓일 적에 넣어 야한다면서 석유 양도 작았다고 한다.
- 8) 주인은 정만서의 말이 진짜 인줄 알고 집에 가서 또 했지만, 석유 냄새가 나서 모두 버렸다.

상인계층은 보다 나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인물들로 건달형 인물은 이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결핍을 충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 수법의 속임수를 꾀한다. 건달형 인물은 개장국에서 냄새가 난다면 자신이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있는 듯이 행동한다. 개장국 주인은 많은 손님을 확보하여 보다 나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건달형 인물의 거짓말에 걸려들어 속임을 당하고 만다. 결국 개장국 주인은 건달형 인물에게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환심을 얻고자 공짜 음식을 내어주지만, 가짜 비법으로 인해 결국 모든 음식을 버리게 되는 낭패를 당한다. 이와 같이 건달형 인물이 상인계층을 대상으로 속임수를 꾀할 때는 어김없이 직업적 특성 때문에 쉽게 간파되는 그들의 욕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결핍을 해소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 다른 이야기인 <작두 고리로 무전 취식하기>삽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삽화에서 건달형 인물은 미리 계획해서 행동을 취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건달형 인물은 객주집에서 무전취식을 목적에 두고 미리 작두의 고리를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머무르게 되는 객주집의 작두 고리를 일부러 몰래 빼버린다.

“아 이거 작두 고두쇠가 엿저녁에 쓰구 난 게 어디루 갔으니 웬 일이나?”

그래 이 사람이 부시시 일어나서 소변 하러 나간 척하구 가다 하는 말이,

“뿔덜을 이렇게 떠드느냐?”

그러니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래서 소는 수십 바리 들었는데, 이 아침을- 여물을 해 맥여야 장을 보러내보내구 돈을 받아야 할 텐데 이게 큰 문제라.”구.

“아 그러냐? 구. 아 내가 작두를 식건에 여물을 쓸구 애들이 위험해서 빼서는 두구서 고두쇠를 모르구 주머니에다 놓구 그냥 왔으니 이걸 가지구 쓰라.”<sup>184)</sup>

마방까지 운영하는 객주집에서 작두는 말(馬)을 관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작두의 고리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객주집 주인은 이익 창출에 제동이 걸린 것을 인지하고, 상황을 수습해보려고 하지만 뽀족한 수가 없어 전전긍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달형 인물이 선심이나 쓰는 듯이 자신의 작두 고리를 빌려준다며 선뜻 내어주지만, 미리 계획된 속임수이므로 객주집 주인은 오로지 건달형 인물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그리하여 객주집 주인은 작두의 고리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으므로 건달형 인물에게 무료로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작두의 고리를 교환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는 등 건달형 인물의 눈치를 살핀다. 각편에 따라서 건달형 인물이 작두 고리를 다시 내어놓으라고 재촉하여 무전취식뿐만 아니라, 금전적 이득까지 취하기까지 한다. 건달형 인물과 대립 관계를 맺는 상대인물이 상인계층일 경우 특히 두 인물의 대립되는 서로 다른 욕망의 충돌과 그 욕망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면모가 이야기 속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건달형 인물의 결핍된 욕망은 위의 삽화들과 같이 속임수가 성공해서 결핍을 충족하기는 하지만, 속임수가 실패해서 결핍된 욕망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전승되는 삽화들에서 건달형 인물은 결핍된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상대인물에게 심술의 속임수를 꾀하여 분풀이를 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면모를 보이는 대표적 삽화로 <담배장수가 담배주지 않아서 누명 씌우기>와 <돼지 맞돈 내고 먹는 줄 알았다고 하기>이다.

먼저, <담배장수가 담배주지 않아서 누명 씌우기>삽화의 공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1) 건달형 인물은 담배장수에게 공짜 담배를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 2) 건달형 인물은 담배장수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계책한다.
- 3) 건달형 인물은 논에서 일하는 여성의 귀를 잡고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하고서는 담배장수에게 ‘형님, 얼른 오시오’라고 말하고 도망친다.
- 4) 논에서 함께 일했던 남성들은 화가 나서 도마간 건달형 인물을 대신해서 담배장수를 때린다.

184) <봉이 김선달 이야기>, 『대계』 2-2, 194-218쪽.

1)에서 건달형 인물은 담배장수에게 자신의 ‘담배가 젖어서’ 혹은 ‘너무 말라서’ 피울 수 없다는 속임수로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상대방의 거절로 결핍 해소에 실패하게 되는 단락이다. 2)는 건달형 인물이 속임수로 상대인물을 보복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나타나는 단락이다. 건달형 인물은 결핍된 욕망을 해소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담배장수에게 단호한 거절 혹은 각편에 따라서 무시와 모욕적 언사까지 받아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복성의 속임수를 꾀하고자 한다. 3)은 보복의 속임수 계책이 나타나는 단락이다. 논에서 일하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속임수를 꾀한다. 여성의 고향에서 온 부고(訃告)소식을 알린다며 여성을 불러서 순식간에 입맞춤을 하고 도망친다. 건달형 인물은 도망치면서 담배장수가 자신의 형님이라면서 여성을 희롱한 책임을 담배장수에게 전가해 버리는 방식으로 보복의 속임수를 성공시킨다. 그리하여 4)에서 담배장수는 건달형 인물이 책임져야 할 짓값을 대신 받게 되는데, 각편에 따라서 판매해야 할 담배가 모두 부서져 버릴 정도로 담배장수가 동네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다고 하여, 건달형 인물의 보복이 담배장수에게 너무 과혹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

다음은 <돼지 맞돈 내고 먹는 줄 알았다고 하기>삽화로 건달형 인물이 주막집 주인에게 외상술을 요구하지만, 주막집 주인이 이를 거부한다. 그러자 건달형 인물은 결핍된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것에 심술이 발동하여 주인이 가게를 비운 사이에 주막집의 돼지들이 넣어놓은 술밥을 헤집거나 먹는 것을 일부러 저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 각편에 따라서 주막집 주인이 술밥(두부)를 먹지 못하도록 돼지들을 감시해 달라고 건달형 인물에게 부탁을 하거나, 건달형 인물이 일부러 돼지우리를 열어서 술밥을 헤집어 놓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아 이놈의 돼지가 말이야, 두 마리가 나와가주 마마 꼬두밥을 막 먹어대는게라. 그리이,

“아이구 답답어래-이, 꼬두밥 찌났더니엄머 이 양반아-, 세사아(세상에) 이거 돼지가 그 꼬두밥을이거 다 먹는 거 보고 가마 있나?”

이러이께네,

“여보! 돼지가 여보 그 맞돈 주고 먹는 줄 알았지, 내가 외상 먹는 줄 알았나?”<sup>185)</sup>

위의 인용문은 건달형 인물의 심술궂은 속임수 계책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주막집 주인과 건달형 인물의 대립 양상이 부각되는 결말부분에 해당된다. 주막집 주인은 돼지들이 술밥을 헤집어 놓은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며 건달형 인물을 원망한다. 그러자 건달형 인물은 외상술을 주지 않은 주막집 주인의 행동을 은근히 비꼬면서 ‘돼지는 돈을 내고 먹는 줄 알았다.’며 심술궂은 대응을 한다.

<담배장수가 담배주지 않아서 누명 씌우기> 삽화와 <돼지 맞돈 내고 먹는 줄 알았다고 하기>삽화는 공통적으로 결핍된 욕망을 해소하지 못한 건달형 인물이 보복·심술의

185) <방학중의 외상과 돼지의 맞돈(3)>, 『대계』7-7, 546-547쪽.

속임수로 자신의 결핍을 우회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분풀이에 가까운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상대인물에게 분풀이를 한다고 해서 당장의 결핍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건달형 인물의 행동을 강자의 심술과 대비되는 약자의 심술<sup>186)</sup>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지 약자의 심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건달형 인물의 성격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판단이 든다. 건달형 인물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인물로 결핍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대라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간난 아기를 방아 고에 넣는 행위까지도 일삼는다. 담배장수와 주막집 주인에게 심술의 속임수를 피한 일련의 행동은 건달형 인물이 이기적이라 할 정도로 나, 자신의 욕망을 중시 여기는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달형 인물은 욕망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주체적인 역량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행위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된다. 건달형 인물에게서 보이는 ‘개인성’은 이기적인 면모가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세 보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몰개성과 공동체 사회를 강조하며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강조하던 전시대와는 차별화된 모습이 건달형 인물에게서 발견된다.

비단 욕망하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개인’은 건달형 인물만이 아닌 속임을 당하는 상대 인물에게서도 발견된다. 건달형 인물은 속임수를 계획할 때면 상대인물의 욕망하는 바를 이용한다. 건달형 인물에게 속임을 당하는 상대인물은 곧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저 꿈을 꿨는데, 용(용)이 내몸에 탁[무릎을 치며]감기드라. 그래, 시방 고향 내려 가야 되겠다. 할마이인데 가야 내가 뒤 후래가 큰 자석이 나겠다 말이여. 그리이 술을 한잔 마시고 내 고향 가겠다.

이러이. 그 기새이 늙었다 가마- 생각크이 “[큰 소리로]용꿈은 저건 태모(胎夢)인데. 반다시 저거 큰 자석, 어이, [본래 소리로]태모이구나.” 싶으그던. 그래 인제 문을 열고 ㅉ바아 들오라,“ 개가, 인제 ㅉ술 가온나.” 개가. 술을 인제 한 상 채려가 술을 대접하고.[웃으면서]그래 가지마라꼬 구실리이(꾀이니),

“[큰 소리로 몸을 흔들며]이거이거 뉘라 안된다 ! ”

크이, 억지록 해가 그래 인제 기생인데 하룻밤 잤단다.<sup>187)</sup>

위의 자료는 건달형 인물이 용꿈을 꾸었다는 거짓 행세로 기생을 속여 오입질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건달형 인물과 상대인물인 기생은 서로 다른 욕망을 품고 상대방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 한다. 건달형 인물은 색(色)의 욕망이고, 기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불안한 신분으로 인한 결핍 때문에 훌륭한 자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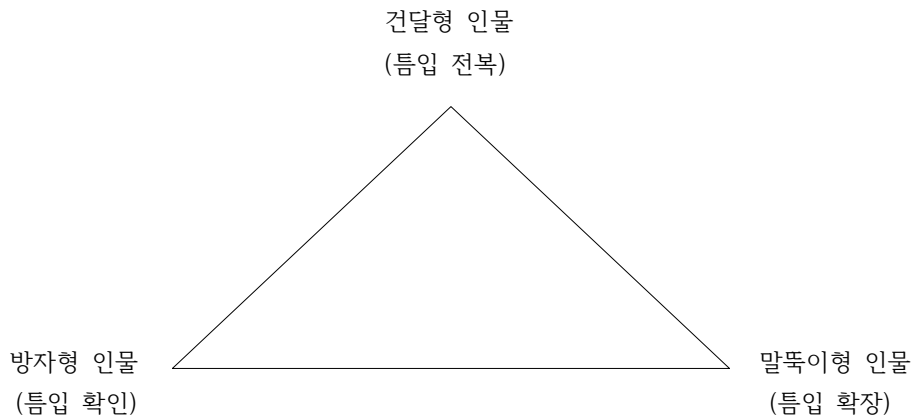
186) 조동일, 앞의 책, 262-263쪽.

187) <기생을 꺾어 동침한 방학중>, 『대계』 7-7, 415-417쪽.

연어 신분 상승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세속적 욕망이라 하겠다. 두 인물은 개인으로서 욕망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을 강구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인다. 기생은 욕망을 충족하고자 건달형 인물을 유혹하는 등의 적극성으로 인해 속임의 대상이 되었으나,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생의 능동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삶의 적극성과 능동성은 건달형 인물전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이와 같은 태도를 갖는다.

## 2) 세 인물형의 풍자적 성격과 이행기적 지표

건달형 인물과 방자형 인물, 말뚝이형 인물은 조선 후기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형성된 인물 유형군으로 재치있는 말솜씨와 행동으로 희극적 요소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세 인물유형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사회가 전시대인 중세적 질서의 분열적 틈입의 징후들을 포착하게 만드는 상징적 인물들이기도 하다.



위의 그림에 좌측의 건달형 인물과 방자형 인물은 각각 신분계층과 이야기의 주된 공간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방자형 인물은 천민계급이며, 남원부인 향촌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반면에 건달형 인물은 가난한 소시민과 같은 형상으로, 주로 저잣거리를 배경으로 삼는다. 방자형 인물은 하인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상층인물과의 갈등 관계에서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면서 장난스러운 행동과 말로 풍자적 행위를 한다. 건달형 인물은 방자형 인물과 신분계층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위의 면모를 보여 방자형 인물과 유사한 행동 양식을 보인다. 건달형 인물의 이중적 행위는 상대인물을 속이기 위한 행위이다. 자신의 의도를 철저히 숨기고 상대인

물의 욕망을 포착하고, 그 욕망을 이용하여 속임수를 계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인물형의 공통적인 행위는 상대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약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건달형 인물은 강자와 약자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약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의미는 결핍된 인물로서 상대를 속이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에서 설정한 위치이다.

방자형 인물은 건달형 인물과 달리 속마음이나 행위의 의도를 상대인물에게 들통이나서는 안된다. 건달형 인물의 경우는 의도나 속임수 행위가 들통이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결핍을 채워 줄 수 있는 다른 상대를 다시 찾으면 그뿐이다. 건달형 인물과 달리 방자형 인물은 신분제 사회라는 현실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방자형 인물은 직선적 표현의 풍자적 행위보다는 기존의 관념이나 행위에 대한 패로디의 형태로 우회하여 조롱하는 풍자적 행동을 취한다.<sup>188)</sup>

방자형 인물은 상대인물의 행동 양상에 따라서 풍자적 행위가 강화 혹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 종속적이라 할 수 있다. 상층인물의 위선적 태도가 포착되면 방자형 인물의 풍자적 역할이 강화되는 반면에 그 태도가 변화되거나 이상적인 상층인물이라고 판단되면 협력·조력자의 역할로 전환된다. 방자형 인물에게 모든 상층계층이 풍자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춘향전>과 <배비장전>에서 방자형 인물과 대립하는 존재는 제한되어 있다. <춘향전>의 경우는 춘향을 향한 색(色)의 욕망과 위선적 태도를 보이는 이도령은 방자의 풍자적 대상된다. 이에 반해 진실한 애정을 마음에 품고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한 암행어사 이도령은 더 이상 방자의 풍자적 대상이 아니다. <배비장전>도 마찬가지이다. 풍자적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으로 배비장과 제주목사로 구분된다.

<춘향전>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한 암행어사 이도령과 <배비장전>의 제주목사는 풍자적 대상이던 상층계층과는 달리 경직되지 않은 사고와 민중 친화적인 면모를 보인다. 공통점이 발견된다. 방자형 인물이 풍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세적 엄숙주의와 관념적 사고로서, 지배계층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는 성장한 민중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방자형 인물은 조선 후기의 성장한 민중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로 중세적 질서의 균열을 확인하고 그것을 풍자하는 역할과 기능을 갖춘 인물이라 하겠다.

위의 그림의 아래측에 해당되는 방자형 인물과 말뚝이형 인물은 공통적으로 천민계급에 속하지만, 말뚝이형 인물은 봉건적 예속관계가 극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중적 행동은 불필요하다. 말뚝이형 인물은 상대인물과의 갈등에서 직접적·공격적<sup>189)</sup> 면모를 보이며, 상층인물의 권위와 위엄을 모조리 파괴해버린다. 이러한 말뚝이형 인물의 대담한 모습은 신분제 사회라는 현실 논리보다는 향유층의 소망과 민중 의식 등의 현실 인식의 논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 논리는 말 그대로 문학의 외적

188) 김흥규, 앞의 논문, 5쪽.

189) 김흥규, 위의 논문, 7쪽.

세계인 현실 세계의 논리가 문학의 내적 세계에 반영<sup>190)</sup>된 것을 의미 한다. 현실 인식의 논리는 전승집단과 연결된다. 전승집단에 의해 인식된 현실이 이야기 속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작품은 현실 논리와 현실 인식의 논리가 함께 반영되어 이야기 속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양반 과장 역시 현실 논리와 현실 인식의 논리가 극에 반영된 점은 물론이며, 무능력한 지배계층을 대하는 말뚝이형 인물의 행동 양상은 향유층의 현실인식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민중 우위의 힘을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탈춤은 이야기를 배제한 순수한 희극적 갈등을 집중<sup>191)</sup>하여 지배계층을 향한 풍자성을 강화하며, 말뚝이형 인물과 양반의 대결 양상을 확대·반복해서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로 양반이 말뚝이를 반복해서 불러들이는 장면이라 하겠다. 이러한 장면은 무능력한 양반의 처지와 말뚝이의 기세와 그 당당함이 강조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극의 초반부터 양반과 말뚝이의 관계가 역전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심지어 양반은 말뚝이가 자신을 모욕하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설령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말뚝이에게 대항할 힘도 없다. 때로는 자기가 모욕을 당한것을 모른체함으로써 체면을 차리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sup>192)</sup> 이와 같이 양반과장에서 양반은 초지일관 무능력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인물로 표현된다.

말뚝이형 인물은 방자형 인물과 달리 상층계층과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는다. 양반과장이 끝을 맺을때까지 양반의 무능함과 그 허위의 실체를 재확인하며 말뚝이형 인물의 우위를 공고하게 한다. 이와 같이 양반과장은 조선 후기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의 과정속에서 국가권력과 공적 질서에 대항하는 상인계층과 부농 등이 추구하는 새로운 민간의 질서를 추구<sup>193)</sup>하던 현실 인식의 논리가 말뚝이형 인물에 반영된 것이다. 과거의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옹호하고자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의 힘은 중세 질서의 균열된 틈새를 더 확장하는 사회적 역할을 한 이들이라 하겠다.

그림의 우측에 건달형 인물은 시정세태를 배경으로 형성된 이야기라는 점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이다. 건달형 인물과 함께 말뚝이형 인물 역시 조선후기 시정사회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탈춤이 조선 후기에 도시탈춤으로의 변천하는 과정에서 양반과장이 확대되어 말뚝이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향유층의 기호에 따른 말뚝이 배역의 인기와 성장에 힘입은 변화<sup>194)</sup>로 도시탈춤으로서 상업적인 흥행을 고려한 것이라 할

190)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7, 91-136쪽.

191)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88, 209쪽.

192) 신동훈, 「피쟁이하인 설화와 가면극 양반마당의 비교」, 『이야기와 문학적 삶』, 월인, 2009, 309쪽.

193) 박일용, 「조선시대 휘절담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시대애정소설』, 집문당, 1993, 321-327쪽.

194) 사진실, 「산대탈의 전승 현황과 완보/말뚝이의 변천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31집, 구비문학회, 2010, 499쪽.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에 관청 주도의 탈춤들이 쇠퇴하고 상인 주도의 민간 도시탈춤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탈춤의 주체로서 상인계층을 중심으로한 평민의 주도 아래 탈춤이 공연되어졌다.<sup>195)</sup> 또한 시정문화가 가장 발달한 한양에서는 도시의 유흥을 활자집단이나 예능인들이 주도하며, 민간의 오락적 수요를 담당하였다.<sup>196)</sup> 이들은 민간의 오락적 수요가 팽배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물질적 이윤을 보장 받았으며, 주된 관객은 상업지역을 터전으로 삼아 생계활동을 하는 이들<sup>197)</sup>이었다. 말뚝이형 인물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새로운 민간의 질서를 앞세워 과거의 질서에 대항하고자 한 신흥세력의 자신감을 반영한 인물이었으므로, 구세력이라 할 수 있는 양반계층을 주된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건달형 인물은 시정 문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나, 그 형상은 결핍된 소시민의 형상에 가깝다. 건달형 인물은 결핍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그 수단으로 삼는다. 욕망을 채워 줄 수 있는 인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인물을 속이려 하는 것이 건달형 인물이다. 이러한 건달형 인물전설에서 조선후기 상업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전승되고 있어 주목된다.

<외도한 부인 혼내주기>이다. 3인의 건달형 인물이 공통적으로 전승시키는 이야기이다. 공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달형 인물은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감지하고 ‘한달 동안 서울에 가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오서는 저녁에 몰래 집을 찾아간다.

2) 건달형 인물은 부인이 셋서방과 한 이불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몰래 방으로 들어가서 셋서방을 죽인다.

3) 건달형 인물은 모른 척하며 부인에게 바람을 피웠으며 호통을 치자, 부인은 셋서방을 깨우려다가 그가 죽은 사실을 알게 된다.

4) 건달형 인물은 부인에게 송장을 몰래 묻고 오라고 시키지만, 부인은 송장을 등에 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5) 건달형 인물은 부인과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죽은 셋서방의 시체를 그의 집으로 가져간다.

6) 건달형 인물은 셋서방인 척 그의 부인에게 문을 열라고 하지만, 부인은 바람피우는 그 여자의 집으로 가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자 건달형 인물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겠다면서 죽은 셋서방을 목을 매달아 놓고 도망 나온다.

7) 셋서방의 부인은 남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건달형 인물에게 찾아와서 남편의 송장을

195) 손태도, 「조선후기 탈춤의 주체」, 『실천민속학연구』 6, 실천민속학회, 2004, 116-121쪽.

196)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흥의 발달」, 『민족문화사연구』 2호, 민족문화사연구소, 1992, 193-194쪽.

197) 사진실, 「서울의 시정문화와 탈춤의 성장」, 『韓國史市民講座』, 45, 일조각, 2009, 131-132쪽.

조용히 감장을 해 달라고 부탁한다.

8) 건달형 인물은 송장을 짊어지고 대감집으로 찾아가서 술주정을 하듯이 소리를 지르며, 대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그런 후에 그 송장을 대감집 대문 앞에 세워두는데, 이름을 함부러 불러서 화가 난 대감이 서 있는 송장을 때린다. 그러자 대감은 자신이 사람을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놀라서 정평구를 찾아간다.

9) 대감은 건달형 인물에게 돈과 텃논을 줄 테니 송장을 몰래 치워달라고 하여 이를 이행한다.<sup>198)</sup>

1) ~ 6) 단락은 건달형 인물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통한 일이 주요 갈등이다. 건달형 인물은 부인이 사통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사통한 남성을 죽인다. 7) 단락은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은폐하려는 건달형 인물의 속임수가 나타난다. 8) ~ 9)는 핵심적 의미가 담긴 단락으로 건달형 인물이 죽은 남성의 시체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살인의 은폐까지 성공하게 되는 결말 부분이다. 건달형 인물이 대감의 체통과 위엄을 끌어내리는 행위의 속임수로 그를 살인자로 몰아서 시체를 은폐해주는 대가로 금전과 농토를 얻는 이익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건달형 인물은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로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만을 앞세운다. 건달형 인물은 살인을 한 범피자로, 그 행위는 반도덕적, 반윤리적이다.

이옥의 <성진토전 成進土傳>은 건달형 인물이 시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행위와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옥은 시정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시정세태를 그린 여러 편의 전(傳)을 지었다. 그 중에서 바른 몸가짐과 덕을 베푸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성희룡을 입전대상으로 삼아 전(전)을 지었는데, 그 글 속에서 시체를 이용하여 성희룡을 협박하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지 떼가 등장한다.

거지 떼는 시체를 자루에 넣어와서 사람들을 협박하여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주장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거지 떼들이 성희룡을 협박하여도 아무런 저항없이 그들이 원하는대로 음식과 돈을 내놓자, 금세 태도를 달리하며 ‘부처님’이라 호칭하며 몸을 낮춘다. 이들의 태도변화는 성희룡의 높은 덕에 감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존경의 마음을 품고 음식과 돈은 가져가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굶어죽은 시체를 업고 밤에 남의 집 문을 열어제치고 주인을 급히 부르고는 성질을 돋게 하여, 서로 주먹질을 하는 데까지 이른 뒤에 비로소 큰 소리로 “주인이 내 친구를 죽였다. 관가에 가서 고발하겠다.”라고 한다. 주인은 영문도 모르고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서야 일이 겨우 가라앉게 된다. 또한 험악한 일이다.<sup>199)</sup>

<성진토전 成進土傳>에서 주목할 것은 거지 떼의 비윤리·도덕적 행위이다. 아무리 먹

198) 『대계』 2-8, 362-372, 『대계』 7-3, 255-257쪽, 『대계』 5-7, 631-636쪽.

199) 이옥,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이옥 전집』 2, 소망출판사, 2001, 228쪽.

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시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협박하는 행위는 물질적 가치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시정 사회의 비정한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이옥의 전(傳)에 등장하는 거지 떼와 시체처리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건달형 인물은 행위는 유사하며, 이들의 반도덕적·윤리적 이익추구는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200)</sup>

이옥은 <시간기市奸記>에서 남을 속여 이익을 추구하는 시정의 세태를 “의를 가버어 여기며 간사하게 어지럽히고 재물을 약탈하여 난을 일삼는다”<sup>201)</sup>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 의식은 이옥과 동시대를 살았던 건달형 인물전설의 전승자 역시 건달형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옥은 문자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 설화 전승 집단은 허구적 이야기에 기대어 시정 세태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sup>202)</sup>

건달형 인물은 중세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대치되는 인물이다. 그의 행동 양식에서부터 중세적 질서에 편입될 수 없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방자형 인물은 중세적 질서의 왜곡된 틈입을 확인하는 풍자적 인물이고, 말뚝이형 인물은 중세적 질서의 틈입을 확장하는 풍자적 역할을 한다. 두 인물형은 중세사회의 불합리한 신분제사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중세사회의 모순을 인식한 것이다. 건달형 인물은 두 인물형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중세사회의 질서 자체를 거부하고 이를 전복<sup>203)</sup>시키는 풍자적 역할을 한다.

건달형 인물은 결핍된 욕망을 가진 인물이다. 즉, 결핍된 나, 자신의 욕망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획득하려고 속임수를 꾀한다는 행동에서부터 중세적 질서와는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중세사회는 욕망하는 개인을 지양하며 개인의 욕망보다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욕망을 최우선에 둔다. 그리하여 개인은 공동체의 욕망이 자신의 욕망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공동체의 욕망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욕망은 유교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금욕주의를 지향하도록 제도화해버린다. 그러나 건달형 인물은 중세사회의 물개성과 보편성, 금욕주의 관념들을 일시에 뒤집어 버린다.

건달형 인물전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자거리의 왈카지절한 요란함과 같이 발랄하고 솔직하다. 특히 건달형 인물과 여성 간의 희롱 섞인 말이 오가는 이야기들은 이와 같은 면모를 잘 보여준다.

① 처자가 이래 보쌀을(보리쌀을) 씻다가 인제 말이지, 머 물로(물을)말이지 확 부이께네, 거 수채에 마 연면 물이 안 나오니까.

200) 김난경, 앞의 논문, 228쪽.

201) 이옥,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이옥 전집』 1, 소망출판사, 2001, 221쪽.

202) 김난경, 앞의 논문, 229쪽.

203) 임재해, 앞의 논문, 210쪽.

“헛다! 그 참 한창은 한창이다.”

정만서가 이런 말을 하던요. 정만서가. 그래 처자가 하는 말이야.

“참, 한창은 한창이다. 물도 떨어지기 전에 아(아기) 소리나는 거 보이게네.”

그래가 정만서가 그래 한번 욱봤다 카데. 그래 한 번 골탕 먹었다니더.<sup>204)</sup>

② 앞에 가매 바람에 펄렁 펄렁 속옷이 비그덩. 꼬장주꺼짐 환하게 빈다. 정만서가 뭐 따라 가매.

“여보 문 열렸소. 문 열렸소.”

카이, 휘뚝 돌아보미 처매를 씩 끄질디마는.

“아따, 덧집에 개 안 짓었으면 도둑 맞을 뻔 안 했다.”<sup>205)</sup>

위의 ①, ②의 이야기는 성적 은유가 담긴 이야기로 건달형 인물이 여성을 희롱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희롱당한다는 이야기이다. ①은 여성이 쌀을 씻은 물을 버리는 것을 본 건달형 인물이 여성의 성적 흥분과 연관된 희롱의 말을 던졌다가 오히려 아이 취급을 당하는 무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② 역시 여성의 치마라 바람에 훑날려 속옷이 보이는 것을 건달형 인물이 성적 농담을 던졌다가 개 취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두 이야기 모두 건달형 인물의 상대인물로 등장하는 여성들은 건달형 인물을 압도할 정도로 그 위세가 당당하고, 거리낌이 없다. 건달형 인물의 성적 희롱을 두 이야기 속 여성들은 오히려 건달형 인물을 ‘아이, 개(犬)’로 낮게 취급해버려, 삼시간에 건달형 인물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해버린다. 그리하여 성적 희롱을 건넨 건달형 인물을 무안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와 같이 두 여성이 보여주는 생동감있고 발랄한 모습은 건달형 인물전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상대 인물들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동감과 발랄성은 삶의 적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건달형 인물전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욕망을 긍정하고, 결핍된 욕망이라면 능동적으로 그 결핍을 해소하려는 주체적인 모습에서 생동감과 발랄함을 드러나는 것이다.

건달형 인물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인물이다. 건달형 인물은 악행이라고 여길 정도의 행위를 하여도 그 이야기를 향유하는 전승자는 웃음을 짓기 때문이다. 대부분 건달형 인물의 악행이라고 여길만한 행위는 대부분 일탈적 행위이다. 대표적인 예로 불효자 대신에 건달형 인물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불효자를 신고한 어머니를 오히려 치매환자로 뒤집어 씌어버려 불효자를 도와준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물론 건달형 인물이 불효자를 도와주는 것은 금전적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 이야기 속 불효자는 죄값을 치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불효자를 돕는 건달형 인물의 행위에 일탈적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 삶의 하나하나를 규정하고 제약하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제도화된 윤리·도덕주의의 지나친 삶

204) <정만서가 실패한 이야기>, 『대계』 7-1, 57-58쪽.

205) <정만서와 말 잘하는 여자>, 『대계』 7-3, 127쪽.

의 간섭은 삶의 무게를 더하게 한다. 불효자를 도와준 건달형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비난받아야 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관계가 전복되어 버린다. 불효자는 사람들에게 위로받아야 할 대상이 되고, 불효자를 고발한 어머니는 위로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와 같이 건달형 인물은 제도화된 윤리·도덕주의의 관념을 일시에 뒤집어 놓는 일탈적 행위는 중세적 사고를 전복시키는 행위이므로 악행이라고 지탄받을 수 없다.

## 2. 건달형 인물전설의 이행기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미

앞서 건달형 인물과 함께 동시대에 형성된 판소리(판소리계소설)의 방자형 인물과 탈춤의 말뚝이형 인물과 비교·논의를 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풍자적 성격과 특징을 밝히고, 세 인물형이 조선 후기의 이행기 사회를 반영한 인물형임을 아울러 논의하였다.

유사 인물형들과의 비교·논의를 통해서 건달형 인물전설은 조선 후기 이행기 사회와 밀접한 친연성 아래 형성된 이야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건달형 인물전설 속에서 등장 인물들 간에 주된 갈등 공간은 저잣거리와 길거리이다. 이 공간에서 우연히 만난 건달형 인물과 상대인물은 세속적·현실적 욕망에 충실하여 자신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 능동적·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이 건달형 인물전설의 주 공간과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은 중세 사회와는 사뭇 달라진 가치관을 반영한다.

건달형 인물전설 속 가치관	중세 사회의 가치관
욕망 추구	금욕 추구
비속	우아
세속·현실주의	이상주의

위의 도표는 건달형 인물전설 속 가치관과 중세 사회의 가치관을 단순 도식화한 것이다. 건달형 인물전설 속 다양한 인물군상들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가치관과 중세 사회의 가치관을 일반론적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건달형 인물전설에서 드러나는 가치관은 중세 사회가 추구하는 질서와 상충된다. 어리숙한 촌놈으로 보인다고 닭을 봉이라고 속여서 판매하려는 상인, 인정으로 변소를 빌려줄 만한데 돈을 내야지만 변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여염집 아낙네, 건달형 인물의 성적 희롱을 오히려 곱절로 되받아치는 여성 등 건달형 인물전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아함과 거리가 멀다. 비속하다 할 수 있는 일상적 삶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들이다.

조선 후기의 이행기 사회는 양극단의 사회적 분위기가 충돌하던 시대였다. 하나는 국가 주도의 유교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는 보수성과 다른 하나는 시장경제 사회로 이행해 가려는 진보성이다. 즉, 보수성의 중세적 가치와 진보성의 근대적 가치가 서로 충돌·공존하던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 사회로 건달형 인물전설은 후자인 진보적의 근대성을 지향하는 가치가 반영한 이야기이다.

조선 후기의 이행기 사회는 겉으로는 중세사회의 이념적 가치체제를 유지해나가려는

힘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인을 비롯한 사회 중·하위의 사회세력들이 시장 경제적 토대를 기반 삼아 신흥 지배세력으로 부상했다. 사회구성 내부를 역동적으로 해체하는 힘<sup>206)</sup>이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쳐, 사실상 시장경제 체제의 역동적인 힘이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변화해 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고전문학사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의 충격과 경제적 토양의 변화와 함께 민중의식의 각성·성장을 가져와 조선 후기의 이행기에 민중문화가 주류문화를 이끌어가는 힘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저류에 머물렀던 설화가 재흥하여 변화해가는 민중의식이 갖든 다양한 이야기들이 형성되어 다른 장르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sup>207)</sup>

조선 후기의 이행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전설 중에서 다양한 민중 의식을 담아낸 박문수 설화일 것이다.<sup>208)</sup> 암행어사 박문수 설화는 전국 각 지역에서 전승되는 광포설화로써 이행기 사회의 복잡다단했던 민중의식을 압축적으로 반영하여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갖는다. 박문수 설화는 전승 자료들에서 이행기 사회를 반영이나 한 듯이 다양한 인식의 세계관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야기가 서로 상충·공존하며 존재한다. 먼저, 박문수가 정의의 심판자로 백성의 원조자로 등장하는 박문수 우위의 이야기와 지혜가 부족한 인물 혹은 미천한 출신의 부자가 신분 상승하는 일에 이용되는 박문수로 민중 우위의 면모를 보이는 이야기이다.<sup>209)</sup> 전자는 피지배계층이라는 수동적 인식에서 박문수로 대표되는 소위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와 같은 전능한 관리가 출현해서 모든 갈등적 요소를 해소해주기를 바라는 중세적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후자는 박문수가 오히려 어린아이와 여인 등과 같은 존재에게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이야기들로 지배계층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지배계층의 무능과 민중의 지혜가 우위를 갖는다. 이와같이 박문수 설화는 이행기 사회의 상반된 민중 의식을 포착할 수 있는 인물전설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건달형 인물전설은 시장경제 사회의 한 단면을 담아낸 이야기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약자로 그려진 건달을 내세워 시정의 다양한 인물 군상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박문수 설화를 비롯한 여타 인물전설과는 차별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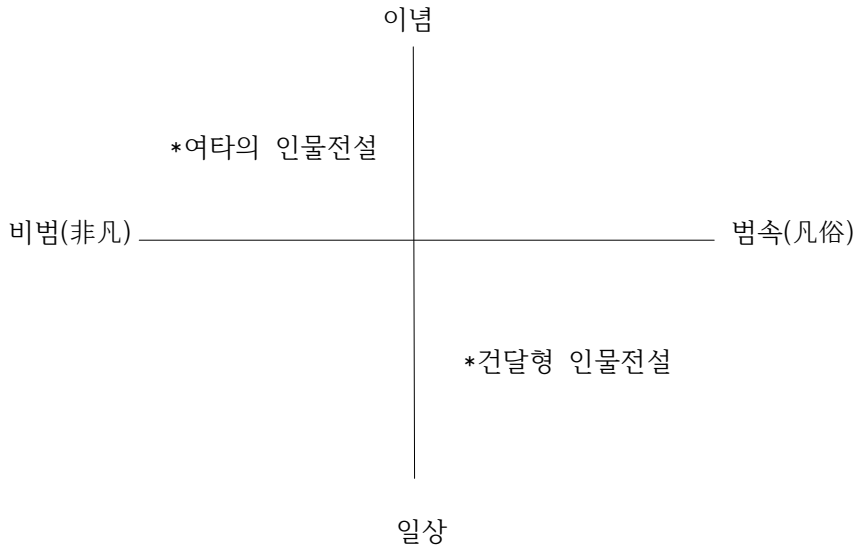
206) 서종문, 「19세기 한국 문화」, 『국어국문학』 149호, 국어국문학회, 2008, 167쪽.

20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477-478쪽.

208) 조동일, 위의 책, 479-480쪽.

209) 최래옥, 「박문수설화의 성격분석」, 『한국민속학』, 한국민속학회, 1985, 261-266쪽.

최운식, 「설화에 나타난 박문수의 인간상과 민중의 의식」, 『청람어문교육』, 청람어문학회, 1999, 43-72쪽.



위의 도표는 건달형 인물전설과 여타의 인물전설과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세로축의 '이념'은 중세사회에서 종교나 유교이데올로기와 같은 이념적 사고가 내제화된 것이며, '일상'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일상의 현실적 삶을 의미한다. 가로축은 주인공이 특별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구분이다.

중세의 인물전설은 이념과 비범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물전설은 일반적으로 비범한 주인공을 내세워 중세적 이념을 내제화한 이야기를 갖는다. 원효와 의상과 같은 고승이 인물전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불교의 교리를 전하는 이야기들이 이념과 비범의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전설이다. 또한, 유교이데올로기의 반영하는 사대부의 일화와 효자 및 열녀 전설 등 역시 이념을 내제화한 비범한 인물의 이야기들이다. 이들 인물전설 속의 주인공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존재들로 타인의 추앙을 받는 존재로 인식된다.

이에 반해 범인과 일상의 영역에 속하는 건달형 인물전설은 건달형 인물을 포함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군상들이 등장한다. 일상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으로 건달형 인물전설은 시정의 세계를 배경으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생활로서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건달형 인물은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서슴없이 행동하는 등의 범속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 인물의 욕망은 세속·현실적인 것들로 식, 욕, 금전, 배변 등과 같이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욕망이다. 다만, 대개의 경우 건달형 인물과 같이 솔직하게 드러내지는 못한다.

이념적이고 비범한 인물전설에서 일상적 삶에 관심을 둔 범인들의 인물전설로의 변화

는 통시적 관점에서 인물전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도 같다. 집단적 거대담론에서 개인의 미시적 담론으로의 흐름은 조선 중·후기의 우리 고전문학사에서 보이는 보편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시에 민중문화가 우위를 점하며 문화의 상하부의 변화에 의해 이념적 지향에서 이탈하여 일상적 삶에 관심을 갖게 된 요인이라 볼 수 있다.<sup>210)</sup> 일상성과 범인 즉,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포착하는 문화의 흐름은 사설시조를 비롯한 <sup>211)</sup>조선풍의 한시에서도 주된 흐름이었다. 회화에서도 단원 김홍도, 긍재 김득신, 혜원 신윤복이 서민의 일상적 삶을 포착하는 다수의 풍속화를 남겼으며, 이옥과 같은 젊은 사대부 지식인은 소품을 통해 시정세태의 일상인 구체적 삶의 현상을 포착·묘사하는 다수의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일상 속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고자 한 것은 당시 문화적인 주류의 흐름이었다.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주류의 힘은 민중의식의 성장과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부(富)를 획득한 서민과 중인계층의 성장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특히 문학에서 '일상성'은 근대문학의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중세문학의 '보편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주체로서의 '개인'의 발견과 그러한 경험과 인식주체로서의 '개인'이 활동하는 '당대적 삶'에 대한 묘사와 접촉을 통해 형성<sup>212)</sup>된다. 건달형 인물전설 역시 일상성에 주목하며, 당대의 같은 시기에 형성된 구비연행물의 유사인물들 중에서 건달형 인물은 개인의 결핍된 욕망을 인식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체적·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일상적 삶을 가장 잘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달형 인물전설은 근대문학적 지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213)</sup> 또한, 앞장의 전승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문화를 반영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근대적 지표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서귀포의 변인태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의 건달인 평양의 김선달, 경주의 정만서, 영덕·영해의 방학중, 김제의 정평구 이야기는 각 전승지역의 문화의 반영과 영향관계 속에서 이들의 개별 양상들이 드러난다. 저잣거리, 장시를 중심으로 도시와 문화가 형성되므로 중세적 지리·공간의 개념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 중세사회는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였으나, 시장경제체제의 발달되면서 도시가 형성되고, 형성된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중심부와 주변부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며, 중앙집권체제의 한계가 발생 될 수밖에 없다. 건달형 인물전설은 각각의 온

210) 서종문, 앞의 논문, 173쪽.

211) 이정선, 「조선후기 문화변동과 조선풍의 위상」, 『한국언어문화』제3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319-322쪽.

212) 한수영, 『소설과 일상성』, 소명출판사, 2000, 125쪽.

213) 최원식은 근대문학의 지표를 리얼리즘, 현실주의에 있다고 보았다. 건달형 인물전설은 꿈의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현실주의가 시종일관 관철되었다라면서, 이는 시정의 세계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형성·성장되어서 시정인의 생활체험에 뿌리를 둔 건달전승 현실주의에 다가선 이야기라고 하였다. 최원식의 현실주의를 근대문학의 지표로 기준점을 둔 것 역시 일상과 개인을 지표로 둔 것과 유사한 논리라고 판단된다. : 최원식, 앞의 책, 212쪽.

전한 도시문화의 영향아래 형성·전승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러한 징후가 발생되고 있는 이행기적 상황에서 형성·전승된 것이라 추측된다.

건달형 인물전설과 같이 동시대에 시정 세태를 반영한 판소리계소설과 세태소설에서도 건달형 인물과 같이 현실적·세속적 삶에 충실하며 자신의 욕망 충족에 충실한 인물 유형들이라 하겠다.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강릉매화타령>, <무속이타령>과 세태소설에서는 <오유란전>, <삼선기>, <지봉전>등이 이와같은 경향을 보인다. 이 작품들에서는 과잉된 욕망을 드러내며, 세속적 삶에 충실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후기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사회에 부합하는 현실인식이 반영<sup>214)</sup>된 것이다. 또한, 고전소설 속 한량형 인물들 역시 욕망충족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또한 시정적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건달형 인물과는 달리 한량형 인물은 주로 서울이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유흥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한량형 인물은 무반이나 중인계층으로 등장한다. 건달형 인물은 근대적 징후를 알리는 인물형인 것에 반해 한량형 인물은 양반이 주도한 문화가 중인계층으로 이동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며, 중인계층의 상층지향의 면모가 드러난다.

세계사적으로 건달형 인물과 견줄만한 인물로 같은 동양권에서는 베트남 Trang Quynh와 중국의 서문장이 존재한다. 피카레스크 구성을 취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이행기 사회에 근대사회로의 진입하려는 새로운 물결 속에서 이들은 중세사회의 낡은 관념과 가치관을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건달형 인물전설은 근대의 모습을 다각도로 반영한다. 예컨대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을 꼬집는 일화들은 이행기 사회가 갖는 어두운 이면도 드러낸다.

이와같이 건달형 인물전설은 근대지향의 면모를 보이며, 근대문학으로서의 일정한 가능성을 갖는 인물전설이라 하겠다.

---

214) 신해진, 『조선후기 세태소설』, 월인, 1999, 10쪽.

## V. 결론

이상으로 건달형 인물전설의 전승지역에 따른 개별적 성격과 이행기적 성격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의 건달형 인물전설의 연구가 보편적 성격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점과 통시적 관점으로써 인물유형론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하고 본 논문의 연구는 공시적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밝히며,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건달형 인물전설 중에서 연구대상으로 평양의 김선달, 경주의 정만서, 영덕·영해의 방학중, 김제의 정평구, 서귀포의 변인태 자료의 수집과 선정 이유를 다루었다.

제Ⅱ장은 평양의 김선달, 경주의 정만서, 영덕·영해의 방학중, 김제의 정평구, 서귀포의 변인태 자료의 전승 현황 및 양상을 점검하고, 삽화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삽화별 분류는 건달형 인물이 함께 공유하며 전승시키는 삽화들을 공통 삽화,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전승시키는 삽화들은 단독 삽화라고 명명하여 분류하였다. 각각의 건달형 인물들이 전승시키는 공통삽화와 단독삽화의 분포를 통해 개성적·보편적 전승 양상들을 점검하며 진행하였다. 공통삽화의 경우 ‘3인의 공통 삽화’에 다수로 분류되는 건달형 인물은 ‘김선달, 정만서, 방학중’이며, 분류된 삽화수는 ‘정만서>방학중>김선달’순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2인의 공통 삽화’에 다수로 분류되어 묶이는 인물은 ‘정만서와 방학중’이 분류되며, 분류된 삽화수 역시 ‘정만서>방학중’이 된다. 그리하여 건달형 인물전설의 유형적 보편성을 갖는 삽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달형 인물은 ‘정만서>방학중>김선달’이었다. 단독삽화를 통해 김선달은 사기꾼의 형상을 갖으며, 상대인물은 주로 상인계층이다. 그리하여 이들을 속여서 김선달은 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만서는 하층민의 형상을 갖으며, 상대인물은 주로 상인계층이나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정만서가 상대인물을 속이는 주된 원인은 식(食)의 결핍 해소와 성적 희롱에 해당되었다. 방학중 역시 정만서와 함께 하층민의 형상을 갖으며, 상대인물은 주로 상인계층이나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람들로 속이는 주된 원인은 식(食)의 결핍 해소이며, 가난한 자기자신을 희화화하는 면모가 발견되었다. 정평구는 민중 영웅의 형상을 갖으며, 속이는 상대인물은 왜군과 상층계층에 해당되었다. 속이는 주된 원인은 반외세와 상층계층을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변인태는 꾀쟁이 하인의 형상을 갖으며, 상대인물로 상층계층이 등장하며 속이는 주된 원인은 골탕 먹이기와 상층계층을 풍자하기 위해서였다.

제Ⅲ장은 제Ⅱ장을 바탕으로 각각의 건달형 인물들의 개성적 성격과 특징을 전승지역의 특성과 전승 삽화들을 통해 논의하였다. 평양의 김선달은 금전적 욕망을 주로 드러내는 인물로 일찍이 상업이 번성했던 평양의 지역적 특징이 반영된 인물이라는 점을 분

석하였다. 속임수의 수법이 치밀한 계획을 갖고 진행한다는 점과 속임수를 통해 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도외지의 사기꾼의 형상을 갖는다고 밝혔다. 경주와 영덕·영해의 정만서와 방학중은 공통 삽화의 교집합을 이루는 자료가 대부분으로 경북의 두 건달형 인물은 김선달과 달리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피하여 일회성에 그치는 식(食)의 욕망을 주로 충족시키는 등의 하층민의 형상을 갖는 인물이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정만서와 방학중을 둘러싼 전승 자료의 내적·외적 요소들의 다양한 담론들을 통해 두 인물이 구별되는 개성적 지점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김제의 정평구는 민중영웅의 형상을 갖는 임진왜란 활약담이 함께 전승되고 있어서 민중영웅에서 건달형 인물로의 유형적 변이가 전승지역에서 골계적 성격을 갖는 정평구에 대한 애정과 상품 경제사회로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평구가 문화영웅으로 추앙받게 되면서 근대부터 오늘날까지 전승지역에서는 정평구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서귀포의 변인태는 지배계층을 향한 골계적 성격이 강한 인물로 그의 이야기는 주로 피많은 하인이 상전을 골려먹는 내용의 전국적 전승을 보이는 설화와 유형적 동질성을 갖는 등의 건달형 인물전설 중에서도 이질적이고 개성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다는 특징과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속임수를 피하는 등의 건달형 인물전설의 유형적 동질성을 갖는 지역변이유형에 속한다고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건달형 인물전설은 각각 인물별로 개별적인 개성적 성격들이 발견되면서도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이 주로 저잣거리나 길거리를 배외하고 다니는 할 일 없는 인물들이라는 점과 개인의 욕망을 긍정하고 타인의 욕망을 이용하여 속임수를 피하는 등의 유형적 보편성의 성격 역시 정리·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건달형 인물이 상대인물을 속일 때 상대인물의 욕망을 이용한다는 점을 밝히고, 4인의 건달형 인물의 상대인물의 속임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김선달은 주도면밀한 계획성의 속임수를 구사하면서 상대인물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상대의 욕망을 이용한다. 정만서와 방학중은 속임수가 즉흥적이며 언어유희를 이용하는 속임수를 피한다. 그러므로 상대인물인 정만서와 방학중이 갑작스럽게 속임수를 당하게 되므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미숙한 대처로 인해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정평구 역시 주도면밀한 계획성의 속임수를 피한다. 정평구는 상대인물이 위계질서에 따른 관념적 사고를 이용하여 속임수를 계획한다. 변인태도 주도면밀한 계획성의 속임수를 계획한다. 속임을 당하는 상대인물은 상층계층으로 그들이 갖는 하층민에 대한 고정관념, 즉 순종과 복종하는 하층민이라는 그들의 관념을 이용하여 속임수를 계획한다.

제IV장에서는 건달형 인물전설의 개별성과 보편성의 성격과 그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규명하고자 조선 후기의 동시대에 함께 형성되었던 인물유형인 판소리의 방자형, 탈춤의 말뚝이형 인물과의 비교·고찰을 하였다. 먼저 각각의 인물별로 상대인물과의 갈등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욕망 지향의 수동성과 능동성을 기준에 두고 논의하였다. 방자형

인물은 상대인물과 작품 내적·외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욕망추구에 있어서도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면모를 보이는 등의 중세적 인물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따른 인물이며, 말뚝이형 인물은 상대인물과 우위를 점하는 등의 봉건적 예속관계에서 벗어난 전복된 관계를 보이며 욕망추구에서도 주체·능동적 면모를 보여 근대적 인물형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을 작품들을 통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건달형 인물과 이광옥은 유사점이 많은 인물형으로 자유의지로 세상을 부유하는 인물로써 방자와 말뚝이와 달리 뚜렷한 세속적 결핍을 드러내며 주체적·능동적 욕망추구를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 다음은 갈등해결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지향성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기준점에 두고 논의하였다. 상대인물과의 갈등 전개 양상을 통해 방자형 인물은 중세사회에 불합리성의 '틈입을 확인', 말뚝이형 인물은 중세사회에 불합리성의 '틈입 확장', 건달형 인물은 중세사회에 불합리성의 '틈새 전복'에 집중하는 인물형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의 주인공들은 범인과 일상의 영역에 속하며 세속적·현실적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주인공들이 등장한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본고는 고전문학의 이행기적 성격을 밝히려고 하였으나, 시정사회를 배경으로 창작된 판소리계소설과 세태소설과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분명한 한계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행기 사회의 성격과 문학적 특징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판소리계소설과 세태소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미진한 연구는 향후에 지속적인 연구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김영돈, 현용준 공저, 『제주설화 집성 I』,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 김용문, 『벼골에 불던 바람』, 김제문화원, 1991.
- 김제군, 『김제의 전통』, 김제군, 1982.
- 김진영 외 편저, 「남원고사」, 『춘향전 전집』5, 박이정, 1997.
- 외 편저, 「세창서관본 배비장전」, 『실창 판소리사설집』, 박이정, 2004.
- 『동아일보』
- 성현경 편저, 『이고본 춘향전』, 보고서, 2011.
- 송기면, 박완식 역, 『유재집』, 이회문화사, 2000.
- 『신한민보』
- 이옥, 실사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이옥 전집 1, 2』, 소망출판사, 2001.
- 이두현, 『한국의 가면극』, 일지사, 1979.
- 이원조, 『耽羅誌草本 上』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1-12권, 평민사, 1989년.
- 전경옥 역주, 『민속극』,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 正祖, 『弘齊全書』 卷32, 한국문집총간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백록어문 5』, 1998, 『백록어문 7』, 1992, 『백록어문 9』, 199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편집, 『제주도부락지 I』,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 진성기, 『남국의 민담』, 영설출판사, 1976.
- , 『제주도 전설』, 백록, 1992.
- 한국정신문화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년.
- 해양어부, 『엉터리들』, 우문관서회, 발행년도 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 2. 단행본

- 강석근, 『경주사람 천하명물 정만서』,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17.
- 김주석, 『거꾸로 본, 정만서 세상』, 글누림, 2011.
- 미하일 바흐찐/이덕형, 최건영 옮김,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0.

- 신동훈, 『역사인물 이야기 연구』, 집문당, 2002.
- 신해진, 『조선후기 세태소설』, 월인, 1999.
-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2002.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출판부, 1979.
- ,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88.
- ,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 최원식, 『한국 근현대소설사론』, 창작과 비평사, 1986.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하, 국학자료원, 2006년.

### 3. 논문

-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흥의 발달」, 『민족문학사연구』 2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2.
- , 「조선후기 서울과 한시의 변화」, 『민족문학사연구』 6, 민족문학사학회, 1994.
- 강정식, 「邊仁泰 說話의 意味」, 『백문어문』 7, 백록어문학회, 1990.
- 곽정식, 「작중 인물을 통해 본 <배비장전>의 양면성-방자와 사또의 역할을 중심으로-」, 『어문학교육』, 7권, 1984.
- 김난경, 『방학중 설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 「설화 속 정평구의 형상과 전승의식의 다각화」, 『돈암어문학』 31집, 돈암어문학회, 2017.
- 김동진, 「제주도의 공물진헌에 대한 고찰」, 『제주사학』, 창간호, 제주대 사학과, 1985.
- 김월덕, 「전북지역 구비설화에 나타난 영웅의식」,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회, 1997.
- 김현선, 「건달형 인물이야기의 존재 양상과 의미」, 『경기어문학』8,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0.
- 김흥규, 「방자와 말뚝이: 두 유형의 비교」, 『한국학논집』 5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0.
-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원형적인 인물 트릭스터의 경계성」, 『구비문학연구』제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한국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방학중, 정만서, 김선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박선진, 「전북지역 정기시장의 특징과 변화-조선후기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지리교육논집』 34, 서울대학교, 1994.

- 박성래, 「尹達圭의 飛車: 韓國 飛行機의 前史」, 『역사문화연구』 1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3.
- 박연관, 「김선달과 Trang Quynh이야기를 통해 본 전승집단의 의식」, 『동남아연구』 25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 동남아연구소, 2016.
- 박일용, 「조선시대 횡절담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시대애정소설』, 집문당, 1993.
- 박진태, 「盈德郡寧海地方의 口碑文學現地調査報告書」, 『인문과학연구』 1,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 박찬식, 「19세기 제주 지역 진상의 실태」, 『탐라문화』 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사진실, 「서울의 시정문화와 탈춤의 성장」, 『韓國史市民講座』, 45, 일조각, 2009.
- , 「산대탈의 전승 현황과 완보/말뚝이의 변천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31집, 구비학회, 2010.
- 서종문, 「19세기 한국 문화」, 『국어국문학』 149호, 국어국문학회, 2008.
- 손태도, 「조선후기 탈춤의 주체」, 『실천민속학연구』 6, 실천민속학회, 2004.
- 신동훈, 「신분갈등 설화의 형상화 방식과 문제 해결 양상」, 『서사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 소명, 2009.
- , 「사명당 설화에 담긴 역사인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38집, 고전문학회, 2010.
- 양정필, 「18세기 후반 김만덕의 경제활동 재고론」, 『사학연구』 125호, 사학연구회, 2017.
- 오상욱, 「조선시대 경주지역 유람과 遊記의 특징 고찰」, 『동방어문학』 71, 동방어문학회.
- 오수창, 「조선후기 평양과 그 인식의 변화」, 정만조·한충희·김인걸 외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2002.
- , 「<<청구야담>>에 나타난 조선 후기 평양 인식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2007.
- 이수환, 「조선후기 영해지역 재지사족의 향촌 지배」, 『울릉도·독도, 동해안 주민의 생활 구조와 그 변천·발전』, 영남대출판부, 2003.
- 이영학, 「담배의 사회학-조선 후기에서 일제기시까지-」, 『역사비평』 12집, 역사문제연구소, 1991.
- 이은숙, 「전평구 전승의 확대 양상-전북의 건달형 인물 이야기 고찰(2)-」, 『국어문학』 35, 국어문학회, 2000.
- 이인경, 「경주지역의 전승설화의 성격과 의미-역사 인물전설과 ‘孝不孝’說話를 중심으로-」, 『경주문화연구』 3,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2000.
- 이정선, 「조선후기 문화변동과 조선풍의 위상」, 『한국언어문화』 제3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 이창언, 「동해안지역 정기시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영덕군 영해장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임재해, 「건달형 인물전설의 어긋난 행위에 갈무리된 근대성」, 『한민족어문학』53, 한민족어문학회, 2008.
- 임재해 외9명, 『천하잡보 방학중의 해학과 풍자』, 민속원, 2014.
- 전화민, 『한·중 궤지인물설화 연구: 김선달, 서문장 설화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정출현, 「『춘향전』의 인물형상과 작중역할의 현실주의적 성격」, 『판소리 연구』 제4집, 판소리학회, 1993.
- 조희웅, 「트릭스터담 연구」, 『어문학논총』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7.
- 최래옥, 「박문수설화의 성격분석」, 『한국민속학』, 한국민속학회, 1985.
- 최운식, 「설화에 나타난 박문수의 인간상과 민중의 의식」, 『청람어문교육』, 청람어문학회, 1999.
- 최인학, 「서평: 70년 걸린 본격구전설화의 채록 자료집」, 『한국문화인류학』 26, 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 한정훈, 「설화에 나타난 실존 인물의 의미화와 전승주체의 인식-김제 정평구 설화를 대상으로」, 『구비문학연구』 36, 한국구비문학회, 2013.
- 허정주, 「정평구 설화의 세계와 문화적 의미」, 『비교민속학』41, 비교민속학회, 2010.

##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Legends of Scamp-like People by Region and Features of Transitional Period

Kim, Nana-Kyung

Majored in Classical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legends of scamp-like people by region and features of transitional period.

To begin with, the literature review found that previous research on the legends of scamp-like people was inclined towards universal nature and focused on the examination of personality types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and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issues from a synchronic perspective. In addition, among the legends of scamp-like people passed down in several regions nationwide, the study selected the stories of Kim Seon Dal of Pyeongyang, Jeong Man Seo of Gyeongju, Bang Hak Jung of Youngdeok/Younghae, Jeong Pyeong Goo of Kimjae and Byeon In Tae of Seogwipo and collected data and explained why they were chosen.

The study investigated situations and patterns of passing down the data on these stories and attempted to classify them by episode. Episodes shared and inherited by the scamp-like people were classified into common episode, while those passed down independently were grouped into independent episode. From the distribution of common episodes and independent episodes passed down by the scamp-like people, individual and universal inheritance pattern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bov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the scamp-like people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by region and inherited episode. Kim Seon Dal of Pyeongyang as a character showing a desire for money appeared to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Pyeongyang which enjoyed economic prosperity at the time. Considering that his trick was based on deliberate planning and pursued mainly financial profits, he is a typical swindler. Jeong Man Seo of Gyeong Ju and Bang Hak Jung of Young Deok/Young Hae shared many episodes, which shows that these two scamp-like people in Gyeongbuk region, unlike Kim Seon Dal, have aspects of people of lower classes by fooling others for sleeping and eating without money with one-off tricks to meet their desire for food. The study also looked into individual aspects that distinguish the two characters through diverse discourses about in and external elements of data passed down in relation to them.

As far as Jeong Pyeong Goo of Kim Jae is concerned, stories about his heroic activities during the Imjin Japanese Invasion in Joseon Dynasty as a hero for the people are also passed down, which reveals that a change from a hero for the people to a scamp-like person was primarily stemmed from the affection towards him as a comic character across the region and the transition to a society of commodity money.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as he was admired as a cultural hero in various medi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diverse stories about him have been formed from the modern period until now across the region.

It was pointed out that Byeon In Tae of Seogwipo has a strong comic characteristic towards the governing class and his stories are similar to tales about a witty servant fooling his master passed down nationwide, making them differentiated and unique compared to other legends of scamp-like people. Nevertheless, considering that his stories have been passed down in a specific region and tell about tricks he used to realize his desires, his stories are similar in pattern to other legends of scamp-like people and therefore belong to a regional transformation type.

As mentioned above, the study found that the legends of scamp-like people show individual features by person and have in common that the stories mainly happen at a marketplace or on a street and the characters are a wanderer doing nothing and personal desires are pursued by fooling others by means of their desires.

To define more clearly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ity and

universality of the legends of scamp-like people, Bangja type in Pansori and Malttugi type in mask drama as the two highly comic contemporary characters created in the mid- and late Joseon period were compared. The discussion was based on the passivity and activity of desire inclination appearing in a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their antagonists. Bangja types cannot break a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their antagonist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making themselves passive and dependent in seeking their desires as a medieval person.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suggests that Malttugi types have a subversive relationship evolving from a feudal subordinate relationship by taking advantageous positions over their antagonists and are independent and active in seeking desires, making them closer to a modern character. The study also examined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the inclination of the characters found in ways of solving conflict. From the analysis on how they develop a conflict with their antagonists, it was found that the Malttugi type confirms the intrusion of the medieval society, the Malttugi type expands the intrusion, and the scamp-like people pursue to overthrow the intrusion. From these findings, the features of transitional period of the legends of scamp-like people were investigated.